언론사: 서울신문-4-609.txt

제목: 단백질도 낚시로 잡아낸다?  
날짜: 20170302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2165103001  
ID: 01100611.2017030216510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질병 발생 메커니즘 및 신약개발 도움줄 듯<br/>국내 연구진이 낚시하듯이 특정 단백질만 골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br/>기초과학연구원(IBS) 복잡계 자기조립연구단 김기문(포스텍 화학과 교수) 단장과 제임스 머레이 박사팀은 ‘분자 바구니’를 만들어 특정 단백질만 고순도, 고효율로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화학분야 국제학술지 ‘안게반테 케미’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독특성 때문에 ‘주목할만한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br/>암은 체내 단백질의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암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이 단백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질병 치료법과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세포내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 중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특정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존 단백질 정제법은 추출 과정 중에 화학반응으로 인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거나 다른 단백질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질병 연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br/>연구팀은 호박 속을 파놓은 듯 가운데가 텅빈 바구니 모양의 분자 ‘쿠커비투릴’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만 골라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마치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 것처럼 쿠커비투릴에 특정 단백질만 골라 담을 수 있도록 처리한 ‘단백질 낚시법’을 개발한 것이다. 연구팀은 미끼로 암의 일종인 피부T세포림프종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사하’(SAHA)라는 물질을 활용했다.<br/>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단백질 정제법과 달리 오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조, 사용, 보관이 손쉬워 실험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각종 질병 메커니즘 파악, 신약 개발, 약물 부작용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김기문 단장은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한 단백질 낚시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 부작용이 최소화된 신약개발에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0.txt

제목: 배우 민욱 별세 “1년반 전 암 선고” 향년 70세로 지다  
날짜: 20170302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2114617001  
ID: 01100611.20170302114617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본명 민우기)이 별세했다.<br/>민욱은 2일 오전,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br/>고인의 빈소는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 40분이다.<br/>고인은 1년 반 전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정옥씨와 1남 3녀가 있다.<br/>지난 1969년 KBS 공채 8기 탤런트로 데뷔한 민욱은 영화 ‘강력계’를 비롯, 드라마 ‘매천야록’ ‘형사 25시’ ‘황금분할’ ‘’코리아 게이트‘ ’용의 눈물‘ ’태조 왕건‘ ’금쪽같은 내새끼‘ ’싱글파파는 열애중‘ 등에 출연하며 굵직한 인상을 남겼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1.txt

제목: “잠, 8시간보다 적거나 많으면 비만 위험 커”(연구)  
날짜: 201703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2112648001  
ID: 01100611.2017030211264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매일 밤 8시간은 자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br/>실제로 수면 시간이 8시간보다 적거나 많으면 허리둘레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이로 인해 과체중이 되면 심장 질환과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여러 유형의 암이 생길 위험과 관련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다.<br/>영국 글래스고대학 연구진은 성인남녀 12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면 시간과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다.<br/>이번 연구는 수면 습관과 비만 유전자의 상호 작용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고 한다.<br/>연구진은 수면 시간이 9시간이 넘으면 오래 자는 것으로, 7시간이 못 되면 짧게 자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7~9시간으로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했다.<br/>그 결과, 비만에 관한 유전적인 위험이 큰 사람들은 좋지 못한 수면 습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r/>자세히 살펴보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수면 시간이 9시간을 넘는 사람들은 정상 수면 시간을 가진 이들보다 몸무게가 평균 4㎏이 더 나갔다. 반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정상 수면 시간을 가진 이들보다 몸무게가 평균 2㎏이 더 나갔다.<br/>즉,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 수면시간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몸무게를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br/>심지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식이 요법과 건강 문제,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발생했다.<br/>그렇지만 비만에 관한 유전적인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수면 시간과 체중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대해 연구를 이끈 제이슨 길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 너무 짧게 자거나 오래 자는 사람, 낮잠 습관을 가진 사람, 교대 근무 등으로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 등은 체중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span>”고 말했다.<br/>또한 “반면 비만에 관한 유전적인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적게 받았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수면 습관이 더 열악해져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br/>연구에 참여한 칼로스 셀리스 박사는 “<span class='quot1'>비만에 관한 유전적인 위험이 큰 사람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방식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어 “이번 데이터는 수면이 식이 요법과 신체 활동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다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2.txt

제목: [최영미와 함께 읽는 세계의 명시] 노래  
날짜: 20170302  
기자: 이순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2034121001  
ID: 01100611.2017030203412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노래(Song)<br/>-크리스티나 로세티(1830~1894)<br/>내가 죽거든, 사랑하는 이여,<br/>날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br/>내 머리맡에 장미꽃도 심지 마시고,<br/>그늘진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br/>내 위에 푸른 잔디가<br/>비와 이슬방울에 젖게 해주세요:<br/>그리고 생각이 나시면, 기억하시고,<br/>잊고 싶으면, 잊어 주세요.<br/>나는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br/>비가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br/>고통스러운 듯 노래하는<br/>나이팅게일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br/>해가 뜨거나 저물지도 않는<br/>희미한 어둠 속에서 꿈을 꾸며,<br/>어쩌면 나는 기억하겠지요,<br/>어쩌면 잊을지도 모르지요<br/>When I am dead, my dearest,<br/>Sing no sad songs for me;<br/>Plant thou no roses at my head,<br/>Nor shady cypress tree:<br/>Be the green grass above me<br/>With showers and dewdrops wet:<br/>And if thou wilt, remember,<br/>And if thou wilt, forget.<br/>I shall not see the shadows,<br/>I shall not feel the rain;<br/>I shall not hear the nightingale<br/>Sing on as if in pain:<br/>And dreaming through the twilight<br/>That doth not rise nor set,<br/>Haply I may remember,<br/>And haply may forget<br/>\*<br/>이런 시에는 해설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스치듯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슬픈 노래 같은 시. 제목도 간단히 ‘노래’(Song)이다. 내 인생의 노래를 부른다는 심정으로 지은 시일 게다. 시를 다 지어놓고 죽 읽어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각운과 박자를 맞추느라 감상에 빠질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다.자신의 묘비명 같은 노래를 썼을 때, 로세티의 나이는 서른두 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맛보았겠지만 아직 파릇파릇, 상처도 싱싱할 때다. 푸른 잔디가 우거지고 이슬에 젖은 그녀의 ‘노래’는 슬프면서도 달콤하다. 장미의 붉은빛, 사이프러스의 침침함, 푸른 잔디…붉고 푸른 색채의 대비도 눈부시다.<br/>장미는 사랑, 사이프러스 나무는 상중(喪中)임을 상징하는 목재로 장례식에 사용됐다. 장미도 사이프러스도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시인은 그녀의 연인이 사랑과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그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데, 잊고 싶으면 잊으세요라는 말투가 사뭇 간절하다.<br/>나이팅게일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새로 기쁨, 음악, 불멸과 관련된 상징이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연관시키며, 로세티는 자연이 순수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기존의 통념을 부정한다.<br/>\*<br/>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가 죽거든 When I am dead”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연상됐다.<br/>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1<br/>내가 죽거든 싸늘하고 음산한 종소리(弔鐘)를 듣고<br/>종소리보다 오래 애도하지 마세요<br/>가장 역겨운 구더기와 살려고 내가 이 역겨운 세상을 떠났다고,<br/>세상에 경고하세요.<br/>이 시구를 읽어도 시를 쓴 손을 기억하지 마세요<br/>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br/>나는 차라리 그대의 향기로운 머리에서 잊혀지길 바라니까요.<br/>(후략)<br/>기억과 망각의 또렷한 대비에서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감지된다. 기억과 망각, 생과 사의 차이를 즐기는 듯한 태도, 그 넘치는 자의식이야말로 현대성의 증거이며 수백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시가 살아남은 이유이다.<br/>\*<br/>크리스티나 로세티는 1830년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 혈통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도 시인이었고, 오빠는 저 유명한 라파엘전파의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이다. 문학과 예술에 둘러싸여 자란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열두살 되던 해부터 시를 지었고, 스무살인 1850년 그녀의 오빠와 친구들이 만든 라파엘전파의 잡지에 7편의 시가 실렸다.<br/>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녀의 시 세계는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의 여성 시인 에밀리 디킨슨과 종종 비교되는데, 초자연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경향은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은 상이하다. 디킨슨이 자신의 방에 갇혀 당대 어느 시와도 닮지 않은 독창적인 시를 썼다면, 로세티는 그녀에게 익숙한 영국의 시적 전통 안에서 세련된 기술을 구사한 시인이었다.<br/>디킨슨처럼 로세티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로세티가 열네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을 앓아 킹스 칼리지 교수직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밖에 나가 교사로 일했다. 그녀의 언니도 입주 가정교사가 되어 집을 나가고 낮에 홀로 남겨진 로세티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 신경쇠약에 걸려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로세티 집안의 여자들-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로세티는 영국 성공회에 심취했고, 이후 그녀의 인생에서 종교적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오빠의 친구인 젊은 화가와 약혼했던 로세티는 약혼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자 파혼을 선언했다.<br/>혼자 살던 로세티의 생계는 오빠 윌리엄이 챙겨주었다. 오십대에 이르러 가정교사를 꿈꾸던 로세티는 갑상선 질환에 걸려 가정교사의 꿈을 접고 집안에 틀어박혀 종교적인 시와 산문을 집필했다. 암을 앓던 로세티는 64세에 런던에서 사망했다. 서른살에 ‘내가 죽거든’으로 시작하는 시를 쓴 시인치고는 오래 살았다.

언론사: 서울신문-4-613.txt

제목: [주목! 이 상품]  
날짜: 20170302  
기자: 최선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2034059001  
ID: 01100611.20170302034059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신한금융투자 ‘ELS 취향저격 이벤트’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ELS 취향저격 이벤트’를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기간 중 홈트레이딩서비스(HTS)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홈페이지를 통해 ELS·DLS 누적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반얀트리호텔 이용권 등 사은품을 준다.<br/>●우리은행, 청소년 특화 ‘위비 프렌즈 패키지’<br/>우리은행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에게 특화된 ‘위비 프렌즈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 상품은 ‘위비 프렌즈 적금’과 ‘위비 프렌즈 통장’으로 만 18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위비프렌즈적금은 단체 가입 또는 친구 추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2.5%를 받을 수 있다. 만 6~15세는 적금 가입 시 ‘금융바우처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입출금 통장인 ‘위비프렌즈통장’은 스쿨카드(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br/>●KEB하나은행, 15개국 모바일 앱 해외 송금<br/>KEB하나은행은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원큐(1Q) 트랜스퍼’ 서비스 지역을 15개 국가로 확대했다. 받는 사람의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는 몰라도 된다. 대상국은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가나 등이다. 500달러 이하는 5000원, 500달러 초과는 7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br/>●삼성화재, 3대 질병 보장 상품 ‘태평삼대’삼성화재가 한국인의 3대 질병을 보장하는 신상품 ‘태평삼대’를 출시했다. 한국인 사망원인 1, 2, 3위인 암·뇌·심혈관 질병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 장애, 사망까지 단계별 위험을 보장한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급성 뇌경색 진단비’를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br/>●신한생명, 통합 모바일 플랫폼 ‘신나는 한판’<br/>신한생명이 자사 ‘스마트창구 모바일 앱’에 신한금융 그룹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나는 한판’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들은 해당 앱 하나로 은행·카드·금융투자·생명 등 신한금융의 주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준다.

언론사: 서울신문-4-614.txt

제목: 흑인 사이에서 ‘인기템’ 된 미백크림 논란…왜?  
날짜: 2017030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301180620001  
ID: 01100611.20170301180620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남아프리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피부톤을 밝혀주는 미백크림이 유행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br/><br/>피부톤을 보다 희게 만들어준다는 미백크림은 백인과 황인 여성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기 아이템’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피부톤이 본래 어두운 흑인에게도 이 크림이 효과가 있을까.<br/><br/>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미백크림은 페놀류의 하나인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고 있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 세포 안의 멜라닌 생성 경로를 차단해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중인 미백 연고에도 하이드로퀴논이 일부 함유돼 있는데, 일반 화장품에는 배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br/><br/>일본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이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뉴욕포스트의 조사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중 1명이 이 성분이 함유된 미백화장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2년간 미백크림을 써 왔다는 흑인 남성 제프(19)는 “미백크림을 쓰고 난 이후 피부톤이 훨씬 밝아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제프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백크림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br/><br/>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유명 여가수까지 나서 미백크림 애용자라는 사실을 밝힐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문제는 이러한 미백용 화장품에 포함된 기준치 이상의 자극적인 성분들이 피부암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br/><br/>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당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만간 경찰을 대동해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미백크림을 모두 압수할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br/><br/>미백크림이 인기를 끄는 아프리카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 곳만은 아니다. 2015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서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피부 미백크림의 판매를 중지시켰다.<br/><br/>코트디부아르의 한 의사는 “ “우리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런 미적 기준으로 많은 소녀가 그들 피부에서 색소를 빼내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br/><br/>이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은 피부가 하얀 사람일수록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이라면서 피부미백크림의 인기가 인종차별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br/><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5.txt

제목: [메디컬 인사이드] 하루 종일 피곤하고 건망증… 일단 뛰세요  
날짜: 20170228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8034143002  
ID: 01100611.201702280341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불규칙한 식습관·우울증도 원인 <br/>젊은 여성 갑상선·빈혈 체크를 <br/>조급증 금물…가벼운 운동부터직장인 김세영(45)씨는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주말에 늘어지게 잠만 잤는데도 출근만 하면 또다시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피로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밀려옵니다. “<span class='quot0'>봄철 춘곤증까지 겹치면 주변의 시선이 의식돼 괴롭기까지 하다</span>”고 했습니다. 김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br/>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한 경우에 생기는 피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기 때문에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6개월을 넘어가면 ‘만성피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쯤 들어 보셨을 법한 ‘만성피로증후군’(CFS)은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여러 가지 징후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br/>27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질병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원인 불명의 피로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1988년 미국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질병 분류 없이 신경쇠약증 보험코드인 ‘F48.0’을 씁니다.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피로증후군을 치료한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삭감했다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공단이 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br/>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에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많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환자 1만 588명으로 조사한 결과 50대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18.9%), 30대(17.3%) 등의 순이었습니다.●피로감·통증 6개월 이상 지속<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 비대 및 통증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 ▲평소와 다른 두통 ▲수면 뒤 피로감 ▲운동 뒤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일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br/>전문가들은 만성피로를 이길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이덕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처음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점진적 운동강화법’을 권한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2'>운동 초기에는 피로감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점차 늘려 가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습니다.<br/>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 헬스클럽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해 힘든 몸을 혹사시키면 증세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여유로운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span>”고 지적했습니다.<br/>만성피로는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는 내 몸의 질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만성피로의 3분의2 정도는 내과 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2'>흔한 원인으로 지속적인 수면부족, 불균형한 식사, 알코올, 카페인 등이 있고 빈혈이나 우울증,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도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활습관에 큰 문제가 없는 젊은 여성에게 만성피로가 생긴다면 빈혈이나 갑상선질환, 우울증 같은 질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만일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면 악성 종양과 같은 좀더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2'>실제로 지속적인 체중 감소와 통증, 만성피로가 동반된 환자들을 검사해 암을 찾아낸 경우도 종종 있다</span>”고 덧붙였습니다.●영양 불균형·우울감 등도 영향<br/>우울, 불안 등의 증세가 계속되면 체내에서는 큰 스트레스 반응으로 여겨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식습관 변화와 영양 불균형을 유발해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 줄 수 없게 되면 피로감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꼭 우울하다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것이 없고, 음식의 맛도 잘 모르겠고, 막연히 만성적으로 피로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 보는 게 좋다</span>”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식단을 바꿔 내게 부족한 영양이 무엇인지, 내 대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극심한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위장 상태에 악영향을 미쳐 만성피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산균 복용을 권장하기도 한다</span>”고 했습니다.<br/>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로감으로 1시간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적 상태에 이르거나 통증이 심해 가만히 있어도 힘든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다행히 진단 시점부터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병의 진행이 멈추고 완치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바닥난 체력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보통 3~6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3'>‘며칠 쉬면 피로가 회복되겠지’라고 조급해하는 마음은 금물</span>”이라고 했습니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6.txt

제목: ‘길냥이’보다 더 위험…‘집냥이’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연구)  
날짜: 20170227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7113615001  
ID: 01100611.2017022711361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집고양이가 야생고양이보다 훨씬 건강할 거라는 ‘집사’들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최근 스웨덴 연구진은 건강한 집고양이도 집에 오래 있을 경우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br/>과거 연구에서는 혈중 브롬계 난연제(BFR·Brominated flame retardants) 수치가 높은 고양이일수록 고양이 갑상성기능항진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br/>브롬계 난연제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 브롬계의 물질을 뜻하는데, 주택단열재, 커튼, 핸드폰, 노트북 등에 들어있다. 이 물질에 과다노출될 경우 갑상선호르몬 과다분비로 체중감소와 다뇨, 구토, 무기력증, 신경쇠약, 식용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br/>일반적으로 브롬계 난연제는 제품 표면에서 방출돼 공기와 먼지를 매개로 체내에 들어가는데,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연구진이 집고양이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실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일수록 혈중 브롬계 난연제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진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집고양이일수록 브롬계 난연제 수치가 높았다. 이는 고양이갑상성기능항진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브롬계 난연제가 고양이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br/>이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갓난아기들은 자신의 손을 비롯해 장난감 등을 입에 넣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먼지를 함께 들이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br/>전문가들은 브롬계 난연제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며,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등을 발생해 암 발병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br/>자세한 연구결과는 환경공학 분야 저널 환경과학기술(Journal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7.txt

제목: [그때의 사회면] 가족 계획  
날짜: 20170227  
기자: 손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7034152001  
ID: 01100611.20170227034152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80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곧 국력이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만 해도 이런 사태가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하던 그때였기 때문이다.1949년 38선 이남 기준으로 2017만명 선이었던 인구는 1960년 2498만명, 1970년 3144만명, 1980년 3741만명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는 4599만명, 현재는 약 5170만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후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약 9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 인구가 급증했다. 광복 직후 90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1963년 325만 4630명, 1970년 543만 3198명, 1976년 725만 4958명, 1983년 920만 4344명으로 크게 늘다가 1988년 1028만 6503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1992년에 1096만 98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br/>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산 억제에 나선 것은 1961년 무렵이다. 그해 11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출범했다. 인구증가율이 3%가 넘어 매년 당시의 대구만 한 도시가 생겨나던 때였다. 협회 출범 10주년이 된 1971년 11월 9일자 신문은 ‘급격한 인구증가율은 식량부족을 초래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장애물’이라고 규정했으니 지금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가족계획협회는 남녀 피임약과 콘돔을 보급하고 불임시술을 독려했다. 전국 1만 6800여개의 이동(里洞)에 ‘어머니회’를 만들어 피임을 권장했다. 낙태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허용됐다. 그 결과 2차 5개년 가족계획이 끝나가던 197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8%까지 떨어졌다. 1971년부터는 3차 가족계획이 시작돼 둘 낳기 운동을 시작했다. 불임시술팀이 예비군훈련장을 돌아다니며 즉석에서 정관수술을 해 주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는 달콤한 ‘사탕’에 이끌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48만명의 예비군이 정관수술을 받았다.<br/> 가족계획 표어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보통 5, 6남매는 낳아 기르던 1960년대에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벗는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가 선보였다. 둘만 낳자는 운동을 한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이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적게 낳다 보니 아들을 골라 낳는 풍조가 번져 성비에 문제가 생기자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나붙었다. 1990년대에 들어 아이를 너무 적게 낳아 거꾸로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자 가족계획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가족계획협회도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출산 장려와 지원 캠페인을 벌이는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다.<br/>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8.txt

제목: [김유민의 노견일기] 반려동물 안락사 권하는 사회  
날짜: 20170224  
기자: 김유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4163630001  
ID: 01100611.20170224163630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안락사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다. 사람의 경우 불치의 병으로 남은 삶을 고통 속에 연명해야만 할 때, 본인과 가족의 동의하에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동물의 안락사는 오로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열흘의 공고기간이 끝난 보호소의 버려진 동물들이 오늘도 그렇게 눈이 감긴다. 아프지 않지만, 아프더라도 치료하면 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권한다.<br/>병원에서도 안락사는 흔한 일이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치매에 걸리고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린다. 항암치료, 약물치료, 수술과 재활과정이 있고 상태에 따라 깁스를 하거나 휠체어를 타야한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안되는데다 병원별로 부르는 게 값인 병원비는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간단한 예방접종,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도 5만원, 큰 병에 걸려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50만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생기고 그 동물들은 또다시 안락사에 처해지는 악순환 속에서 나는 늙고 아픈 개를 키우고 있다.<br/>개도, 사람도… 고통스러운 안락사<br/>안락사를 시행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슬펐고, 무엇보다 죄책감으로 힘들었다고 말한다. 아파하는 개가 안쓰러워, 이제는 보내줄 때라는 생각에 힘든 결정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아프더라도 가족 옆에서 눈감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며칠이라도 더 함께했을 텐데... 어쩌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도 있었는데 섣불리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안락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br/>안락사 주사의 성분은 염화칼륨이다. 사람의 안락사에도 쓰이는 이 주사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모든 장기를 멈추게 한다. 주사를 맞으면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온몸을 떨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를 줄여주기 위해 1차적으로 마취제를 놓는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 곧바로 안락사 주사를 놓는 경우도 흔하다.<br/>말 못하는 동물에게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 TV프로그램 ‘동물농장’이 버려진 강아지들의 실태를 방송할 때 나온 한 강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보호소에서 자신을 품어줄 사람을 기다렸고, 그러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고, 안락사 주사를 맞으며 굵은 눈물을 떨어트렸다. 내가 기억하는 안락사의 모습이다. <br/>물론 사람이라고 편할 리 없다. 지난해 5월, 대만의 보호소에서 일하던 30대 수의사는 “<span class='quot0'>너무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span>”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몸에 안락사 주사를 놓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전 유기동물을 위해 보호소에 자원했지만 안락사 과정은 불가피했고, 매번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다 쏟아지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대만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금지가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안락사가 없는 나라, 독일<br/>독일은 그런 면에서 부러운 나라다. 동물의 안락사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데다 국민 전체의 의식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에서는 버려졌다고 죽는 법이 없다. 안락사는 말기 암이나 극도의 행동장애, 강한 전염병, 개 자신의 중증의 고통을 가진 경우, 수의사가 최후의 방법으로 결정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br/>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심한 아픔이 없고 약물치료로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입양 희망자를 찾아준다. 행동장애도 교정이 가능할 때엔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br/>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안락사 판정을 받은 개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죽음’으로 마취약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안락사 결정은 수의학문학적소견을 중심으로 제 3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물 보호에 준거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개의 번식도 나라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br/>500개가 넘는 민간보호소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개, 고양이 뿐 아니라 새, 돼지, 토끼, 뱀 등의 동물들을 체류 기한 없이 보호한다. 모두 독일 동물보호동맹과 700여개의 동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유산증여와 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소에 있는 많은 개와 고양이들의 입양비율은 90%이상이다. 나머지 10%는 보호소에 머물다 병 또는 노쇠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애견숍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를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물보호소다. <br/>반면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8만2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난다. 주인을 찾거나 다시 입양되는 경우는 절반이 채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안락사에 처해진다. 여전히 개 번식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명을 물건처럼 찍어내고, 투견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살기 위해 싸워야하는 피 범벅된 개가 있다.<br/>“<span class='quot1'>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span>”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는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락사 권하는 사회. 나는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안락사 권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br/>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19.txt

제목: 일본서 ‘물 99%’ 제품 판매해 부당이득 취한 회사 대표 체포  
날짜: 20170224  
기자: 김서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4141156001  
ID: 01100611.20170224141156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일본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5세 남성이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인 경시청에 체포됐다.<br/>일본 NHK는 24일 성분의 99%가 물인 제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하던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의 한 회사 대표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의약품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br/>경시청에 따르면 제품은 ‘숨 쉬는 물’이라는 액체다. 회사는 이 제품이 해초의 점액 성분을 농축해 체내의 백혈구를 활성화한 것으로 면역력을 높여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br/>가격은 5개에 1만 2500엔(약 12만 5000원)으로, 지금까지 1600명에게 모두 1만 7000개 가량 판매됐다.<br/>NHK는 회사 대표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좋은 물이라서 퍼뜨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경시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br/>김서연 기자 wk@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0.txt

제목: 10평 원룸서 하루 두 끼 혼밥해도 ‘혼자가 편해요’  
날짜: 20170224  
기자: 신융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4034218001  
ID: 01100611.20170224034218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20~40대 1인 가구의 절반이 10평 미만 원룸에 살며 주말에 하루 두 끼 이상을 혼자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혼자 사는 삶에 만족했으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은 컸다.KB금융경영연구소가 23일 발표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했다.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의 20~40대 1인 가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520만명으로 40대 이하가 전체의 52.8%(275만명)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4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68.3%) 서울(63.8%)이 뒤를 이었다.주거 형태는 원룸이 가장 많았으며 크기는 5~10평이었다. 반전세를 포함한 전월세 비중이 82.8%로 전세금은 5000만~1억원(46.2%), 월세는 20만~40만원(5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평일에 하루 두 끼 이상(51.7%)을 혼자 먹는다고 답했다. 주말에는 절반(49.2%)이 하루 두 끼를 혼자 먹었으며 세끼 모두 혼자 먹는 비중도 17.8%에 달했다.<br/>처음에는 ‘학교나 직장 때문’(1순위)에 혼자 살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1순위+2순위) 1인 가구를 택한 사람이 많은 것(63.7%)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답한 비중은 남성(35.7%)이 여성(24.6%)보다 높았으며 남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증가했다. 10명 중 1명(11.9%)은 반려동물을 키웠다.<br/>이들은 대체로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49.7%)고 답했다. 여성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30대 초반(82.5%)에 가장 높았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70% 이상이 만족했다. 남성은 20대 초반(70.6%)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줄어들었다. 이들은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84.4%)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br/>그러나 경제적으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노후자금 마련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연구소는 연소득이 낮을수록 전세·생활·결혼자금에 대해,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노후·질병·재난 대비 자금 마련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예·적금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82.9%)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건강과 노후를 위한 암, 연금, 질병 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났다.<br/>김예구 KB금융 1인가구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1인 가구는 성,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보고 세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1.txt

제목: [재테크 특집] 현대해상, 뇌졸중 최초 보장… 회복 땐 보험료 낮춰  
날짜: 20170223  
기자: 유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3034232001  
ID: 01100611.201702230342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뇌졸중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 시 보험료도 낮춰 주는 간편 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5년 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br/>간편 심사만으로도 뇌졸중을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병이 있는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보험료를 낮춰 준다.<br/>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보장하며 유병자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메디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은 물론 병원 진료예약 대행, 전담간호사 방문, 24시간 상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5년, 10년 주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상해 1급, 10년 만기 전기납 기준으로 8만원 수준이다.<br/>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2.txt

제목: [재테크 특집] 삼성생명, 3대 질병 보험료 변동 없이 100세 보장  
날짜: 20170223  
기자: 신융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3034228002  
ID: 01100611.2017022303422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보험료 부담을 줄인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br/>삼성생명이 최근 내놓은 ‘건강생활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주요 질병을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한다. 기존 건강보험은 주로 10년 또는 15년 주기로 보험료가 바뀌지만, 이 상품은 주보험 보장에 대해 가입 시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한다.<br/>기본 보장 내용은 3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사망에 대한 보장이다. 주보험 20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 일반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개별적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300만~500만원을 지급하고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은 특약을 통해 6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은 80세까지 보장한다. 3대 주요 질병의 진단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2000만원, 3대 주요 질병 진단 이후 사망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br/>실속형으로 가입하면 보장은 같으면서도 보험료는 20~25% 더 낮출 수 있다. 단, 실속형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해지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b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3.txt

제목: 엄마가 암투병 아들의 가슴 아픈 사진 공유한 이유  
날짜: 201702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2133117001  
ID: 01100611.2017022213311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한 어머니가 암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10살 된 아들의 사진을 공유했다. 암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br/>미국 텍사스주(州) 톰볼에 사는 제시카 메딩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고 ‘아들 드레이크는 밤에 자다가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안방에서 나와 함께 자고 있다’고 밝혔다.<br/>사진 속 드레이크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로 화장실에 서 있다. 통증이 심한지 세면대에 팔을 기대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다.<br/>소년은 지난 2012년 백혈병 진단을 받아 요추천자와 수술 등을 받으며 꿋꿋이 버텼다. 지난해 3월부터는 화학요법도 중단했고, 4월에는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br/>그런데 6개월 뒤 소년은 고환암 진단을 받고 다시 투병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됐다.<br/>문제는 계속된 화학요법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통증이 심한 데다가 장 기능까지 떨어져 스스로 배변을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br/>그리고 최근 밤에는 저혈량 쇼크로 입원까지 했으며 영양분 보충을 위해 영양 위관 삽입까지 했다고 한다.<br/>이런 사연을 공개한 제시카는 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면서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br/>한편 이번 사연은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페이스북 페이지 ‘러브 왓 매터스’에도 소개됐으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유케어링에도 공개됐다.<br/>소년의 가족은 유케어링에서 아이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목표인 1만 달러(약 1140만 원)의 3배가 넘는 3만 5000달러(약 3990만 원) 이상이다.<br/>사진=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4.txt

제목: 상한 통조림 속 치명적 毒 있다  
날짜: 20170222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2034206002  
ID: 01100611.2017022203420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명 ‘보톡스’ 보툴리누스톡신 한 스푼에 4000만명 살상 위력<br/>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경우처럼 독살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9년 영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방사성 동위원소 폴로늄210에 중독돼 사망했고,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 당시 야당후보였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은 다이옥신에 중독돼 피부가 심하게 변형되기도 했다. 1995년 3월 사교집단인 일본 옴진리교 간부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사망자 12명, 부상자 5500명에 이르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된 뒤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일반적으로 ‘독’은 위험하고 치명적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독과 약은 모두 생체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똑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고 약이 된다.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의 덩이뿌리를 말린 ‘부자’는 한방에서 강심제나 이뇨제로 쓴다. 물론 소량을 썼을 때 얘기다. 하지만 양을 잘못 맞추면 구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br/>현재까지 발견되거나 합성된 독은 매우 다양하다. 투구꽃이나 피마자 같은 식물에서 유래한 독, 독사나 복어 등 동물에게서 나온 독,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미생물이 만든 독, 납이나 수은 같은 광물에서 비롯된 독 등으로 분류된다. 비소나 청산가리처럼 화학적으로 합성된 독도 있다.<br/>●작용 방식별 신경독·혈액독·세포독<br/>또 독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신경독 ▲혈액독 ▲세포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경독은 신경의 신호전달 시스템을 교란시켜 신경이나 근육에 마비를 일으킨다. 결국 호흡곤란, 심부전, 경련 같은 증상이 동반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이나 보툴리누스균, 전갈독,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등이 대표적이다.<br/>살무사나 반시뱀의 독으로 대표되는 혈액독은 체내 침투 시 혈관과 조직이 파괴되고 적혈구가 깨지면서 피하출혈이 발생한다. 심한 통증과 함께 구역질과 부종이 생긴다. 탈리도마이드나 유기수은, 방사성 물질 등은 세포독으로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퍼트려 에너지 대사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DNA 변형을 유발시켜 암이나 태아 기형 등을 유발시킨다. 다른 독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것이 특징이다.<br/>독성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반수 치사량’(Lethal Dose 50%, LD50)으로 나타낸다. LD50은 투여 시 실험동물 절반을 죽게 만드는 양으로 보통 급성독성 물질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생물 독이 화학물질이나 인공합성 독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실제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치명적인 독은 상한 통조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경독 ‘보툴리누스톡신’이다. ‘보톡스’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바로 그 독이다. 보툴리누스톡신은 토양이나 바닷속에서도 존재하는 일종의 곰팡이균인데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활발하게 번식하는 혐기성 세균이다. 완전히 멸균되지 않은 음식물이 완전 밀봉돼 공기가 없는 통조림 속에 들어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중독되기 쉽지 않지만 멸균이 덜 된 상태의 통조림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독이 발견된 것도 멸균이 덜 된 상태의 소시지 통조림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 멸균 상태로 통조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조림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br/>사람의 LD50은 주사의 경우 1.3~2.1나노그램(ng)/㎏, 흡입할 경우는 10~13ng/㎏이다. 찻숟갈 하나에 해당하는 5g 정도로 40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를 희석해 신경장애나 근육경련 등을 치료하거나 주름이나 사각턱을 교정하는 등 의료나 미용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br/> ●인공 합성독 ‘VX가스’ 독성 최강<br/>인공적으로 합성된 독으로는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학살하는 데 사용한 신경독인 VX가스의 독성이 가장 강하다. 이후 VX는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생산이 전면 금지됐다.<br/>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독물은 종류에 따라 피부와 호흡기, 구강, 피하 조직, 동맥과 정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span>”고 설명했다. 피부나 호흡기, 혈관을 통해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독이 입으로 들어간 경우는 위산으로 분해되고 장에서도 흡수되지 않아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5.txt

제목: 칙칙했던 후암시장 다시 태어났습니다  
날짜: 20170222  
기자: 유대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2034135001  
ID: 01100611.2017022203413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낡은 재래시장에서 깔끔한 골목형 시장으로 거듭난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이 신고식을 치른다.용산구는 22일 제4회 두텁바위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후암시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억 8000만원을 들여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했다. 갤러리형 담장과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했고 점포별 매대는 판매 상품에 맞게 디자인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3개 국어 안내판과 홍보용 발광다이오드(LED) 보드 등을 설치했다.<br/>이번 축제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후암’이라는 주제로 ▲후암의 얼굴 그리기 및 사진 뽐내기 ▲어린이 보물찾기 ▲특화메뉴 시식회 ▲어린이 100원 경매·장보기 ▲골목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br/>후암시장 상인회는 2014년부터 자발적인 마을 행사로 두텁바위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두텁바위는 후암동의 한 고개에 있던 바위로 후암동 지명의 유래가 됐다. 이 바위를 만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br/>구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이야기가 있는 시장 만들기’, ‘매력적인 점포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식 변화를 이끌어왔다. 상인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변화된 후암시장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인회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이달에 세 차례에 걸쳐 ‘암(岩)시장+골맥파티’라는 이름의 벼룩시장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span class='quot0'>새로 태어난 후암시장이 전통시장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6.txt

제목: 건강보험 당기수지 2019년 다시 적자로  
날짜: 20170222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2034122002  
ID: 01100611.2017022203412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0년 후 흑자 행진 제동 전망 <br/>적립금 2020년 17조로 줄어들 듯<br/>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br/>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으로 해마다 급상승했다.<br/>그러나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 1728억원, 지난해 3조 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br/>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는 6676억원, 내년은 4777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 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2조 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br/>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말 기준 20조 656억원에 이르는 누적적립금은 올해 20조 7332억원, 2018년 21조 210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 211원, 2020년에는 17조 175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도 올해 12월 말 만료된다.<br/>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7.txt

제목: 암 공포 드리운 전북 익산 시골마을…10명 사망 5명 투병  
날짜: 20170221  
기자: 임송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1112214001  
ID: 01100611.20170221112214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br/>21일 전북도에 따르면 45가구 70명의 주민이 사는 장점마을에서 2012년 이후 암 환자 발생이 크게 늘었다.<br/>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0명에 이르고 현재도 5명이 투병 중이다.특히 60대 이상 노인뿐 아니라 30~40대 젊은 층에서도 암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br/>주민들은 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2000년대 초반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br/>주민들은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악취와 침출수 배출이 심각하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익산시는 악취, 침출수 민원과 함께 암환자 발생 원인을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 자체 환경조사를 했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익산시와 합동으로 비료공장 일대에서 수질과 악취 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등 환경조사에 들어갔다.<br/>이 마을 김현구 이장은 “<span class='quot0'>쾌적한 시골 마을에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근 비료공장 외에 의심한 요인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빨리 원인을 찾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span>”을 요구했다.<br/>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8.txt

제목: 암환자, 하루걸러 30분씩 걸으면 삶의 질 개선된다  
날짜: 20170220  
기자: 심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20112729001  
ID: 01100611.201702201127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가 하루걸러 30분씩 걸으면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br/>영국 서리(Surrey)대학 보건대학원 암 환자 지원 연구실장 엠마 림 박사 연구팀은 진행성 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엔 하루걸러 최소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자 그룹 걷기에 참가하게 하는 한편 다른 그룹은 평소 신체활동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6주, 12주, 24주 후 삶의 질을 평가했다.<br/>그 결과 걷기 운동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웰빙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암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심혈관 건강과 체력도 좋아졌다.<br/>걷기 운동에 참가한 한 환자는 이젠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되도록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 걷기 운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 많이 도움됐다고 한다.<br/>연구를 이끈 엠마 림 박사는 암 관리에 운동이 상당히 도움된다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암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적 활동이 크게 줄어들게 마련이라면서 암 환자에게 운동을 피할 게 아니라 생활화하도록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이 연구결과는 영국 의학 저널 온라인판(British Medical Journal Open)에 발표됐다.<b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29.txt

제목: ‘내 집이 나타났다’ 장혁, 고정게스트 안될까요? 자상한 만능일꾼 ‘훈훈’  
날짜: 20170218  
기자: 김민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8140618001  
ID: 01100611.2017021814061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내 집이 나타났다’ 장혁이 집짓기를 통해 사랑을 나누며 ‘만능일꾼’으로 거듭났다.<br/>17일 방송된 JTBC ‘내 집이 나타났다’ 3회에서는 게스트로 배우 장혁이 출연한 가운데, 집과 집 사이에 위치한 ‘샌드위치 하우스’의 사연이 그려졌다.<br/>이날 건축가 양진석은 “<span class='quot0'>집과 집 사이에 끼어 있어 철거 및 신축의 여러 제약이 많다</span>”며 세 번째 프로젝트 집을 소개했다.<br/>아버지와 암 투병 중인 어머니, 그리고 아이까지 3인이 살고 있는 3호집은 생각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벽이 갈라져 비가 새고, 도로가에 위치해 환기 및 소음이 심각하며, 위치적으로 집과 집 사이에 끼어 있어 화재, 붕괴 시 도미노 피해가 위험한 상황.<br/>무엇보다 정화조 옆에 위치한 주방은 암 투병중인 어머니의 위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br/>사연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MC들과 장혁은 고군분투했다. 먼저 이경규와 채정안은 가족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긴장한 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건축가 양진석은 사연자 맞춤 인테리어로 기적을 선물했다.<br/>특히 장혁은 게스트 최초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해 철거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직접 타일을 골라 시공까지 하는 등 철거와 신축의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하며 큰 활약했다.<br/>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줄 3호집이 공개됐다. 이전의 위태로웠던 집은 침대배달 하는 아버지를 위한 주차장을 시작으로 책을 좋아하는 모녀를 위한 서제, 아늑한 거실 및 주방, 안방, 딸의 방 등 모두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br/>장혁은 “<span class='quot1'>집에서 온기가 많이 느껴지는 곳은 식탁인 것 같다</span>”며 가족들이 새로운 주방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JJ키친’을 기획해 훈훈함을 더했다.<br/>집을 본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감사하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MC들과 장혁 역시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훈훈한 시간을 마무리했다.<br/>한편 초대형 신축 프로젝트 ‘내집이 나타났다’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JTBC를 통해 방송된다.<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0.txt

제목: [달콤한 사이언스] “한 달 5일, 다이어트 OK”  
날짜: 20170218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8033924002  
ID: 01100611.2017021803392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 달에 5일 다이어트만으로도 체중을 줄이고 건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개발했다.<br/>미국 남가주대(USC), 독일 샤리테대 대학병원, 이탈리아 국립 분자종양학 암센터, 사피엔짜대 공동연구진은 한 달에 닷새만 식이조절을 하더라도 노화와 당뇨, 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의학 및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 15일자에 실렸다.<br/>●美 연구진 ‘간헐적 금식 프로그램’ 개발<br/>연구팀은 ‘금식모방 다이어트’(fasting-mimicking diet)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달 중에 5일 동안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 700~1100㎉만 섭취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 칼로리는 2000~2500㎉인데 금식모방 다이어트에서는 이것의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불포화지방산은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과 호두, 땅콩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돼 있다.<br/>●고등어·견과류 등 불포화지방산 섭취<br/>연구팀은 우선 비만과 체내 염증이 생기도록 유도한 생쥐들에게 이 같은 식이요법을 실시한 결과 혈당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71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금식모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평균 2.6㎏의 체중이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또 IGF1이라는 호르몬 수치와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 염증표지자 단백질도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IGF1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성인에게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br/>●암·노화·당뇨·성인병 등 예방 효과<br/>발터 롱고 남가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발견한 다이어트 방법은 각종 성인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간헐적 금식이 건강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1.txt

제목: [핵잼 라이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싱글들이여~ “결혼하세요”  
날짜: 20170218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8004700001  
ID: 01100611.2017021800470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남녀가 살림을 합쳐서 사는 결혼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하지만 결혼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낯선 삶이 주는 스트레스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br/>미국 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정신신경내분비학’(Psychoneuroendocrinology)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br/>연구진은 최근 21세부터 55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572명을 대상으로, 3일간 여러 번에 걸쳐 타액 표본을 채취해 코르티솔 수치를 검사했다.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의 생각만큼 혹은 생각 이상이었다.<br/>기혼자 집단은 연구 동안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한 집단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르티솔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주기를 갖는데 하루의 생활 사이클에서 기혼자 집단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이처럼 코르티솔의 감소가 더 빠른 것은 심장질환 위험이 낮고 암 생존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 있다.<br/>이번 연구에 참여한 브라이언 친 박사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이런 관계가 건강과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생리학적 경로를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인 셸던 코언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 발견은 결혼 등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span>”고 말했다.<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2.txt

제목: 포켓몬고, 첫 대규모 업데이트…무엇이 달라졌나  
날짜: 20170217  
기자: 이혜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7140202001  
ID: 01100611.20170217140202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나이앤틱의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가 17일 오전(한국시간)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개시했다.<br/>안드로이드용(버전 0.57.2)과 iOS용(버전 1.27.2) 업데이트가 함께 나왔으며, 파일 크기는 200MB 이상이다.<br/>이번 업데이트로 치코리타와 브케인, 리아코 등 기존의 콘솔게임 ‘포켓몬스터 금·은’에 등장했던 성도지방 포켓몬들이 대거 추가됐다. 기존에는 일부에 불과했던 몬스터의 성별도 암·수·무성으로 표기된다.<br/>이밖에 게임 아바타의 모자와 티셔츠, 팬츠 등의 디자인도 이전보다 늘어나고 좀더 정교해졌으며, 새로운 야간용 지도가 적용됐다. 배경음악도 새로 추가됐다.<br/>업데이트 직후 몇 시간 동안 새 포켓몬과 아이템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일부 포켓몬의 그림과 정보가 잘못 표시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오전 10시쯤부터는 정상적으로 동작중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3.txt

제목: [기고] 사람과 사회를 위한 지능정보기술/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날짜: 2017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7034259002  
ID: 01100611.20170217034259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어느 날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에게 팔뚝만 한 작은 로봇 하나가 배달된다. 로봇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할머니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알려 주면서 할머니와 로봇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이 로봇은 할머니 곁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눈을 맞추면서 할머니 표정을 읽고 기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언제부터인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말소리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도 나면서 사람 사는 집 같아진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일본의 대화하는 로봇 사례다.사물인터넷(IoT)에 의해 온갖 정보가 수집되고, 클라우드에 대량의 정보들이 저장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은 빠르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기계가 인간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br/>새로운 기술은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할 때 사람을 위한 기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국내 모 병원에서는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암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암진료에 성공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인기에 힘입어 지금까지 100여건의 암진료를 시행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가운데 담당 의사와 왓슨의 처방이 다른 경우가 4건 발생했는데 모든 환자가 고민 끝에 왓슨의 처방을 선택했다고 한다.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로 구현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br/>지능정보기술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위한 기술로 진화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를 위한 기술은 각 사회공동체가 처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지능정보기술의 집합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확실시된다.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사회적 순기능까지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지능정보기술이 사람뿐 아니라 사회를 위한 기술로 진화하는 모습이다.<br/>먼 훗날 지능정보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단계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지능정보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사회를 위한 기술로 진화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인간과 기계가 더불어 사는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이 앞으로는 사람과 기계가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으로 확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규범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돼야 한다.<br/>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고용 구조의 변화, 삶의 모습과 환경의 변화까지 담고 있다. 사람과 사회를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언론사: 서울신문-4-634.txt

제목: “스트레스 줄이려면?…결혼이 그나마 낫다”  
날짜: 2017021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6165646001  
ID: 01100611.2017021616564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남녀가 살림을 합쳐서 사는 결혼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하지만 결혼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낯선 삶이 주는 스트레스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br/>미국 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정신신경내분비학’(Psychoneuroendocrinology)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br/>연구진은 최근 21세부터 55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572명을 대상으로, 3일간 여러 번에 걸쳐 타액 표본을 채취해 코르티솔 수치를 검사했다.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의 생각 만큼, 혹은 그 생각을 뛰어넘었다.<br/>기혼자 집단은 연구 동안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한 집단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르티솔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주기를 갖는데 하루의 생활 사이클에서 기혼자 집단이 빠르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br/>이처럼 코르티솔의 감소가 더 빠른 것은 심장질환 위험이 낮고 암 생존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br/>이번 연구에 참여한 브라이언 친 박사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이런 관계가 건강과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생리학적 경로를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인 셸던 코언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 발견은 결혼 등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span>”고 말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5.txt

제목: “히틀러와 닮은꼴은 찬양의 의미” 오스트리아 경찰이 체포  
날짜: 20170214  
기자: 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4100143001  
ID: 01100611.20170214100143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히틀러와 닮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남자가 있다.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아픈 역사를 지닌 오스트리아에서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br/>자신을 ‘하랄트 히틀러’라고 주장하는 25세 남성이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이 1889년 4월 20일 태어난 브라우나우 암 인의 생가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1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그의 사진들은 이날 오스트리아의 ‘호이트, at’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다비드 퍼트너 현지 경찰 대변인은 이 남자가 최근 독일 국경에 위치한 이 도시로 이사왔다고 밝혔다.<br/>퍼트너 대변인은 문제의 남성을 체포한 것이 농담이 아니며 그의 혐의가 일종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젊은 남자가 자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다”며 빈과 그라츠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전했다.<br/>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친나치주의자들이 경배하는 장소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히틀러의 생가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나치 시절에 히틀러가 맨 위층 월세 방에서 태어난 이 건물은 일종의 성지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았지만 친나치 정권이 몰락한 1944년 폐쇄됐다고 방송은 전했다.<br/>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6.txt

제목: [이상욱의 암 연구 속으로] 암 환자 방사선 치료의 미래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4034150001  
ID: 01100611.2017021403415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의 상상력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이 이룩한 현재의 문명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이 아이폰을 만들었듯이 연구자들의 풍부한 상상력은 과학이 지금과 같은 수준까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의사의 상상력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사의 상상력의 원천은 환자가 완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창조적 활동은 필요에 의해 시작되고, 바라는 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기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무성영화를 만들던 시기에도 인간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영화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까지 만족시키는 오늘날의 4D 입체영화와 같은 형태였다.<br/>1895년 뢴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한 이후 방사선은 암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의사들이 원하는 방사선 치료기기의 이상적인 모델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의사들의 머릿속에서 완성돼 있었다.<br/>의사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치료기기에 거의 근접한 방사선치료 장비가 현재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 방사선 세기 조절, 환자 동조, 초정밀 방사선량 전달 등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엑스선을 이용해 현재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br/>그렇다면 이처럼 이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치료는 더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것일까. 인간의 상상력이 과학을 발전시켜 왔듯이 더 나은 방사선 치료법을 계속 고민한다면 치료 장비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입자 치료기’일 것이다. 사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형가속기의 발전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의 주된 발전 방향은 개량된 선형가속기보다는 새로운 중입자 치료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br/>입자 치료는 가속한 원자핵을 종양조직에 조사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자 치료법은 수소원자핵인 ‘양성자 빔’을 이용한 치료다. 양성자 빔은 방사선량을 종양에 집중시킬 수 있지만 기존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술과 효과가 유사하고,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은 거의 같다. 이에 반해 암세포 살상능력이 몇 배 더 강력한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보다 몇 배 무거운 원자핵을 가속해 암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이다.<br/>전 세계적으로 치료 의학은 미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중입자 치료 분야만큼은 일본과 독일이 단연 앞서가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를 포함한 2곳, 일본에서는 이미 5곳에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돼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1곳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2015년까지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환자 수는 2만명을 넘었고 학계에 발표된 치료성적도 매우 우수하다. 탄소핵을 이용한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엑스레이나 양성자에 비해서 2~3배 가까이 높아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종양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나 독일로 중입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국내 환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br/>의사들이 암 환자의 완치를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만간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기보다 더 나은 방사선 치료기를 개발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론사: 서울신문-4-637.txt

제목: 故 김성재 사후 22년, 남겨진 동생 전신화상..아내와 사별 ‘충격’  
날짜: 20170213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3140116001  
ID: 01100611.2017021314011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14일 방송되는 EBS ‘리얼극장-행복’에서 인기 절정에서 의문사한 그룹 듀스 김성재의 사후 22년을 조명한다.<br/>고(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솔로 컴백 무대를 마치고 김성재는 주사바늘 자국 28개를 남긴 채 싸늘하게 돌아왔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당시 언론은 그의 죽음을 두고 자살, 마약 등의 자극적인 추측을 연일 보도했다.<br/>언제나 가족이 우선이었던 살가운 아들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억측은 어머니 육영애 씨를 무너뜨렸다. 컴백 성공 축하 파티를 일찍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겠다던 성재와의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br/>떠들썩했던 김성재의 죽음은 의문사로 결론이 났고, 22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에게 아들의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하다. 후회와 자책으로 어머니의 시간은 1995년 11월에 멈춰 있다. 김성재의 죽음 이후, 남겨진 단 두 명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 성욱 씨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다.<br/>어머니는 둘째 아들 성욱 씨에게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아픔을 깊숙이 누르며 살아왔다. 그러나 동생 성욱 씨의 방황은 끝날 줄 몰랐다. 형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가수 활동의 실패,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한 배우 활동은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까지 입었다. 계속된 실패에 성욱 씨는 거칠어졌다.<br/>6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겐 지옥이었다. 다행히 결혼을 하고 딸을 낳으며 안정을 찾은 성욱 씨.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2016년 12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며느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성욱 씨네 집으로 왔지만, 성욱 씨가 예전처럼 폭발할까 봐 두렵고 답답하다.<br/>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말 못 할 고통이었다. 그 아픈 시간을 어머니는 그저 참기만 했고, 성욱 씨는 오래 방황했다. 그러나 또다시 마주하게 된 죽음으로 또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 모자.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에 속내를 감추다 보니 벽이 생기고 말았다.<br/>아들이 무섭다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다는 아들. 이제는 슬픔을 털어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모자는 단둘만의 여행을 떠났다.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정은 남겨진 모자가 꾹꾹 누르고 참아온 22년간의 아픔을 씻겨줄 수 있을까. 14일 밤 10시 45분에 방송된다.<br/>사진 = 서울신문DB<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8.txt

제목: 남편 이어 아내도 말기암…마지막 함께 하는 부부  
날짜: 2017021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2114631001  
ID: 01100611.20170212114631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말기암으로 함께 죽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서부 위럴 어비에 사는 마이크와 줄리 베넷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br/>지난 6일 지역 호스피스 병동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서 부부는 병상에 누운 채 서로 손을 잡으며 온기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 마이크(57)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진은 부부의 세 자녀 루크(21)와 한나(18), 그리고 올리버(13)에 의해 공개됐다.<br/>자영업자였던 마이크는 4년 전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자택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보냈다.<br/>초등학교 교사인 줄리(50)는 마이크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면서도 아이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br/>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도 베넷 부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br/>하지만 지난해 5월 건강했던 줄리마저 간암과 신장암이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고 만 것이다.<br/>줄리는 부모 없이 남겨질지도 모르는 세 자녀를 위해 암과 싸우기로 하고 여러 번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견뎠다.<br/>또한 이들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며 추억을 쌓았다.<br/>하지만 줄리의 암은 주요 장기로 전이됐고 그녀도 결국 말기암 선고를 받고 말았다. <br/>　 <br/>그리고 최근 그녀는 죽어가는 남편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br/>마이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병원을 찾은 부부의 친구 수 라이트(48)는 “줄리에게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하자 그녀는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br/>또 다른 친구이자 아이들의 후견인인 헤더 히턴 갤러거(36)는 “부부의 친구들은 자녀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고 차를 사고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부금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애초 목표 금액인 5만 파운드를 넘어선 6만 파운드(약 8500만 원)를 기록하고 있다.<br/>이에 대해 부부의 맏아들인 루크는 “<span class='quot0'>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난 많은 친구와 지지자들의 엄청난 성원과 따뜻함에 압도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어머니는 우리가 지역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위안을 얻으셨다</span>”고 전했다.<br/>사진=저스트기빙<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39.txt

제목: 톡 터지고 향긋하고…젊은층 유혹하는 가향담배 더 위험  
날짜: 20170211  
기자: 강국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11145127001  
ID: 01100611.20170211145127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담배 필터 안에 있는 캡슐을 터뜨려 다른 향과 맛이 나는 방식으로 담배 향을 부드럽게 하는 이른바 가향 담배가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11일 건강증진개발원이 낸 ‘가향담배 위해성과 규제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향 물질인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멘톨은 또 니코틴 반응 감각을 둔화시켜 중독 가능성을 높이고, 폐에 흡수되는 연기 성분을 증가시켜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br/>또 다른 주요 가향 물질인 설탕과 같은 감미료는 연소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한다. 코코아 성분 중 하나인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이 폐에 더 잘 흡수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특히 캡슐 담배는 다른 가향담배보다 더 많은 양의 가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멘톨 담배의 멘톨 함유량은 2∼5㎎이지만 캡슐 담배는 최대 9.8㎎으로, 캡슐을 터뜨렸을 때 최대 1.29㎎의 멘톨이 담배 연기와 함께 배출돼 일반 멘톨 담배(0.4∼0.8㎎)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가향 담배는 애초 기존 흡연자가 아니라 청소년과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12∼17세 중 80.8%가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가향 담배를 ‘많은 아동 및 젊은 성인층을 정기 흡연자가 되도록 하는 관문’이라고 봤다.<br/>실제 2004∼2010년 미국의 흡연율 추이를 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멘톨 담배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작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8∼25세에서 멘톨 담배 흡연율이 증가했으며, 12∼17세 청소년은 2007년 이후 일반 담배보다 멘톨 담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한국의 캡슐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캡슐 담배 판매량과 시정 점유율도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4.9배,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18∼24세가 40세 이상보다 멘톨이 포함된 가향 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r/>보고서는 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과일 향이나 바닐라나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며 규제가 전무한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0.txt

제목: 한영, 갑상선암 이겨낸 근황 ‘5년 공백기 무색한 몸매’  
날짜: 20170209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9232130001  
ID: 01100611.201702092321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겸 배우 한영이 근황을 공개했다.<br/>한영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영 #최여진 #코사무이 오늘부터 여행~~~^.^ #힐링하자. 이 정도면 유럽사람들에게 안 밀리겠죠.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는 태그와 함께 최여진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br/>한영과 최여진은 해변을 배경으로 비치룩을 선보이며 우월한 몸매를 뽐내고 있다. 특히 건강해 보이는 한영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br/>소속사에 따르면 한영은 JTBC골프 채널의 ‘매혹 레슨 버디버디 시즌1’ 촬영 차 태국 코사무이를 방문했다.<br/>한영과 함은정 그리고 최여진이 함께 촬영한 ‘매혹 레슨 버디버디 시즌1’ 은 4월 초 JTBC골프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이다.<br/>한편, 한영은 과거 갑상선 암 수술 이후 마비 증상 때문에 5년의 공백기를 가졌다. 그는 현재 완치 후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br/>사진 = 한영 인스타그램<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1.txt

제목: 극소량 혈액으로 췌장암 조기 진단, 신기술 개발(연구)  
날짜: 20170207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7163109001  
ID: 01100611.201702071631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 방울도 안 되는 극소량의 혈액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법을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은 사망 위험이 가장 큰 암 중 하나다.<br/>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은 췌장 종양에 존재하는 단백질 ‘A형 에프린 수용체 2’(ephrin type-A receptor 2·EphA2)를 확인하고,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서 크기 0.001㎜보다 작은 이 수용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최신호(2월 6일자)에 발표했다.<br/>특히 이번 검사법은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정밀도가 높아 다른 질병 분야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br/>이번 연구진처럼 연구자들은 암 조기 진단에 관한 연구에서 췌장암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악성도가 커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말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효과적인 치료법마저 없어 환자의 약 80%는 진단을 받은 뒤 1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br/>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토니 후 박사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은 종양의 존재가 드러나는 초기에 혈액에서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검사법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암 중 하나다</span>”고 설명했다.<br/>연구진에 따르면, 혈액에서 암의 생체지표를 검출하는 기존의 검사 방법은 많은 혈액 표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br/>또한 연구진은 이번 검사법을 이용한 예비 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와 일반인, 그리고 암이 아닌 염증인 췌장염 환자를 85%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해냈다. 이는 기존의 혈장 검사보다 정밀하다는 것.<br/>물론 이번 결과는 앞으로 연구 집단을 늘려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검사법에는 췌장암이나 다른 암, 또는 감염에 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경과 관찰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연구진은 말한다.<br/>그렇지만 이번 검사 방법이 승인을 얻으려면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후 박사는 설명했다.<br/>사진=ⓒ Syda Productions / Fotoli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2.txt

제목: [씨줄날줄] 대머리 사회/이동구 논설위원  
날짜: 20170207  
기자: 이동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7070543001  
ID: 01100611.2017020707054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지만, 항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앞머리가 가발 아니냐는 말이 있다.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퇴 이후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가발이라는 소문에 한 방송사 앵커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보기도 했다.대머리에 대한 인식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결혼 정보회사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의 기피 배우자 1위로 수년간 탈모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가수 김상희씨의 ‘대머리 총각’이 요즘 발표됐다면 과연 히트했을까.<br/>입사시험 때도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지난해 한 취업 포털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겉모습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은 80%가 넘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br/>탈모의 고충은 현대인만 겪는 게 아니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1168~1241)는 탈모가 진행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시조를 남겼다. ‘털이 빠져 머리가 온통 벗겨지니 나무 없는 민둥산을 꼭 닮았네~, 귀밑머리와 수염만 없다면 참으로 늙은 까까중 같으리~’라고 탄식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윗머리가 빠지면 뒷머리와 옆머리를 올려 상투를 만들어 감추었다. 조선 초 개국공신인 권근(1352~1409)은 ‘대머리의 변’이라는 글까지 남겼다. “<span class='quot0'>한 사내가 대머리였음에도 대간의 요직을 역임하는 등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span>”며 인물의 됨됨이는 외모에 있지 않고 인격수양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을 알리는 교훈적인 내용을 해학적으로 담아냈다.<br/>대머리는 유전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옛 사람들도 전염병이며 전쟁, 허리를 휘게 하는 세금, 과거시험, 양반의 횡포 등 지금에 못지않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대인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br/>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 3700여명 가운데 20~30대가 7만 1300여명으로 43.5%나 된다고 한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육아 등 삶의 과정이 갈수록 힘들어져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9살배기 어린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원형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질병이 단지 탈모뿐이겠는가. 암이나 우울증 등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들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는 게 있겠는가.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히 가지며 살 일이다.<br/>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3.txt

제목: [재미있는 원자력] 로봇 기술의 숨은 주역, 원자력/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융합기술 개발부 선임연구원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7070538002  
ID: 01100611.2017020707053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로봇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영화는 물론 각종 애니메이션에서 지구 평화를 지키는 주인공으로 로봇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br/>인류의 오랜 역사에 비해 로봇이 등장한 것은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로봇은 1921년 체코 출신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섬의 만능 로봇‘이라는 희곡에서 처음 등장했다. 로봇이란 단어는 ‘강요된 노동’, ‘소작농의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유래됐다. 이후 1961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에 산업용 로봇이 설치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군사, 물류, 의료, 건설,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립 보행하는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주목받고 있다.<br/>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로봇 개발의 역사를 이끌어 온 하나의 축은 바로 원자력이다.<br/>원자력 시설 내부에는 고방사선 구역, 수중 구역 등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핫셀’이라는 시설에서는 1950년대부터 로봇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은 방사선을 막아주는 납유리창 밖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로봇팔을 이용해 안전하게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며 다양한 작업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br/>196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상업화되면서 로봇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강한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로봇이 사용되었으며, 고방사선이 방출되는 좁은 구역을 점검하는 소형 이동로봇도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좁은 배관 속을 스스로 이동하며 1㎜ 이하의 미세 결함까지 탐지할 수 있는 뱀 형태 로봇이 개발된 바 있다. 원자력 분야에 사용되는 로봇은 안전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전 사고 시에도 활용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도 미국 군용로봇 ‘팩봇’과 일본 재난대응 로봇 ‘퀸스’ 등이 투입돼 원전의 내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br/>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로봇 개발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로봇을 투입, 운영할 수 있도록 조종사를 훈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형 원전사고 대응조직’도 준비 중이다. 이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로봇을 투입해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br/>이 밖에도 메스 없이 방사선을 이용해 암을 제거하는 기존 사이버나이프보다 안전하고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암 치료용 엑스선 발생 로봇 장치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br/>이처럼 앞으로도 로봇은 다른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언론사: 서울신문-4-644.txt

제목: 암세포 또렷하게 보여주는 ‘나노MRI 램프’  
날짜: 2017020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7070524003  
ID: 01100611.20170207070524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590년 네덜란드 안경 제작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이 발명한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해 생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후 과학자들은 ‘몸속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골몰하게 됐다.1895년 독일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이 우연히 발견한 엑스선은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영상진단 기술이다. 그로부터 80년 정도 지나 엑스선 촬영의 진화인 컴퓨터단층촬영(CT) 기법이 개발됐다. 1971년에 선보인 CT는 원통 모양의 기계에서 엑스선으로 인체 각 부분을 촬영한 뒤 이를 재조합해 영상으로 표시해 보여 주는 것이다. CT를 개발한 앨런 코맥, 고드프리 하운스필드 박사는 197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br/>CT와 함께 정밀 영상진단에 많이 쓰이는 것이 자기공명영상장치(MRI)다. 폴 라우터버와 피터 맨스필드 박사는 1973년 MRI를 개발한 지 30년 만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MRI는 CT와는 달리 방사선 피폭 걱정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인체 장기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RI는 핵자기공명(NMR)이라는 물리학 원리를 영상화한 기술로,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분자를 이루는 수소원자를 이용한다. MRI에 장착된 고감도 자기센서는 신체조직의 물이 만드는 미약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내부 코일로 증폭시켜 위치와 세기를 등고선처럼 나타낸다. 이를 컴퓨터가 변환시켜 신체 영상으로 보여 준다.<br/>횡단면만 촬영이 가능한 CT와 달리 종·횡단면을 모두 찍을 수 있는 MRI가 더 선명하게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좀더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조영제를 활용한다. 조영제는 MRI를 찍기 전 주사해 원하는 부위의 영상을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약품으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에 염색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다.<br/>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조영제는 질병 발생 부위와 주변 정상 부위를 모두 염색해 병변 부위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연세대 화학과 특훈교수) 단장팀이 질병 부위만 선택적으로 찾아내 MRI 신호를 강하게 내보내는 ‘나노MRI 램프’라는 일종의 나노물질 조영제를 개발하고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7일자에 발표했다.<br/>연구팀은 자성물질의 거리에 따라 MRI 신호 강도가 달라지는 자기공명튜너(MRET)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를 활용해 자성을 띠는 나노입자와 상자성(常磁性) 물질, 생체인자 인식물질로 구성된 나노MRI 램프를 개발했다. 생체인자 인식물질이 암세포 같은 특정 단백질을 인식하면 상자성 물질이 암세포에 가까워지는 대신 자성나노입자와 멀어지면서 나노MRI 램프가 켜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조직보다 병변 조직이 최대 10배 이상 밝게 보이기 때문에 기존 MRI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명확한 고감도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MRI 검사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세포나 조직 일부를 떼어내 검사하는 생검도 필요 없게 돼 의료진과 환자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br/>실제로 연구팀은 생쥐에게 암을 유발시킨 뒤 나노MRI 램프와 기존 조영제로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나노MRI 램프가 암 발병 부위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을 확인했다.<br/>천 단장은 “<span class='quot0'>나노MRI 램프는 기존의 MRI 진단보다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갖고 있어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영상진단의 신개념을 제시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분자들의 결합과 해리 등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현상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5.txt

제목: 영등포 도림유수지서 암벽등반 즐겨요  
날짜: 20170207  
기자: 이범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7070451002  
ID: 01100611.20170207070451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서울시의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 체육시설 현황’(지난해 1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 공간이 구별로 크게 다르다. 가장 넓은 곳은 도봉구로 구민 10명당 40.2㎡(12.2평)다. 그다음이 강서구(39.6㎡), 중구(33.9㎡) 순이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8.3㎡로 약 2.7평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인 1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영등포구가 최근 체육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영등포구가 8일 도림유수지 인공암벽장(왼쪽)과 배드민턴 체육관(오른쪽)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산이 없는 지형적 특성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지역 내에 전무한 점을 반영해 도림유수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span>”고 설명했다.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에는 총 123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울시가 인공암벽장과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에 각각 15억 7500만원, 107억 4900만원을 지원했다. 인공암벽장은 지상 3층 연면적 492㎡ 규모로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폭 24m, 높이 17m 규모로 국제기준에 맞춰 조성된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암벽등반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도 암벽장을 설치한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인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지상 3층, 연면적 2990㎡ 규모로 조성된다. 12면의 배드민턴장이 들어설 예정이다.<br/>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span class='quot1'>인공암벽장과 배드민턴 체육관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 도림유수지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6.txt

제목: 시한부 암환자, 임상시험약 처방받고 종양 사라져  
날짜: 2017020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6153747002  
ID: 01100611.2017020615374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암 환자가 새로운 임상 약을 처방받은 뒤 체내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였다고 영국 맨체스터이브닝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그 주인공은 맨체스터 인근 스톡포드에 있는 하젤 그로브에 사는 밥 베리(60). 과거 그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끝에 3년 전 폐암 판정을 받았다.<br/><br/>그는 곧 병원에서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종양이 재발해 림프샘까지 전이되고 말았다.<br/><br/>이어 그는 맨체스터에 있는 크리스티병원(영국 NHS 재단신탁)에서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까지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1년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다.<br/><br/>이후 그는 의료진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와 함께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전 세계에 총 12명으로, 이 병원에서만 그까지 3명이라고 한다.<br/><br/>이렇게 해서 그는 1년 전부터 임상시험 부서에서 신약 처방과 함께 면역요법 치료를 함께 받았다.<br/><br/>그리고 최신 검사에서 그의 몸에 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br/><br/>이에 대해 밥의 주치의 매튜 크레브스 박사는 “<span class='quot0'>밥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경이로운 결과를 보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최신 검사에서 그의 몸에는 어떤 종양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결과를 보였다</span>”고 설명했다.<br/><br/>또한 “우리는 이런 결과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면서 “신약은 모든 환자에게서 반응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현재 건강이 호전돼 매주 조카 딸들을 발레 수업에 데려다주고 있다고 밝힌 그는 이번 임상시험이 자기 삶을 늘려줬다고 말한다.<br/><br/>그는 “3년 전 난 12~18개월 더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그 시기를 넘겼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결국, 임상시험이 내 목숨을 늘려준 것”이라면서도 “누구든 임상시험을 제안받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7.txt

제목: 식습관 서구화로 느는 전립선암 직장수지검사 통한 조기 발견을  
날짜: 20170206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6034214001  
ID: 01100611.2017020603421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통계청의 사망 원인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사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3.8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10년간 74.8% 증가했다.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 인구가 늘고 식습관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진을 통해 전립선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5일 김태형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에게 전립선암 검진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Q.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가 아시아에서도 많은 편인가.<br/>A.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비뇨기과종양학회가 최근 55세 이상 남성 40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5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5.2명이 전립선암 환자로 밝혀졌다. 일본은 1.8명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다.<br/>Q. 전립선암 검사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br/>A. 전립선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고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상당히 커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년 남성은 정기적으로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사법에는 혈액검사인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직장수지검사(DRE), 전립선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조직검사가 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의 남성은 1년에 1회 이상 전립선특이항원검사와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직장수지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40세부터 매년 한 번 정도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한다.<br/>Q. 직장수지검사를 꺼리는 남성이 많은데.<br/>A. 전립선특이항원검사와 더불어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검사인 직장수지검사는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 보는 검사법이다. 전립선이 항문과 직장의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촉진하는 것이다. 이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 딱딱한 정도와 결절 유무,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br/>직장수지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전립선암 확률은 21~53%에 이른다. 전립선암 환자의 25%는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장수지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br/>직장수지검사는 불편한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올바른 자세만 취해도 불쾌한 느낌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br/>Q.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br/>A.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육류, 피자, 버터 등 동물성 고지방식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과일, 야채, 토마토, 마늘, 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일부 연구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비만일수록 치료 뒤에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한편 금연도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8.txt

제목: 암·종신 등 순수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날짜: 20170206  
기자: 오달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6034150001  
ID: 01100611.20170206034150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상품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부동산 신탁 평가 이자율이 연 10%에서 3.0%로 낮아진다.<br/>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때 되돌려 주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1800만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br/>기재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순수보장성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하면 차익이 발생하지만 이런 상품은 저축 목적이 아니므로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여유자금이 생겨 저축성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때도 연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br/>현재 10%인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3.5%)과 함께 3.0%로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신탁상품 이자율이 높아 고액 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49.txt

제목: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했다…아시아 최다”  
날짜: 20170205  
기자: 이혜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5103645001  
ID: 01100611.2017020510364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스위스의 안락사 주선 비영리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신청 수치라고 한다.<br/>허핑턴포스트는 의학전문매체 ‘비온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지난 13일 이같이 보도했다. 신청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br/>비온뒤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가 아닌 조력자살 방식으로 말기암 등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돕는다. 의사 등 타인이 아닌 환자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조력자살’이다.<br/>한국은 일본(17명), 태국(10명), 중국(7명)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였다.<br/>박형욱 단국대 의료윤리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허용될 진 몰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안락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연명의료 중단도 보수적으로 제한된 입법적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0.txt

제목: “불면증 고통있다면 캠핑 떠나세요” (연구)  
날짜: 20170203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3144646001  
ID: 01100611.2017020314464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평소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 속으로 훌쩍 캠핑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br/>최근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팀은 1주일만 캠핑을 해도 불면증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캠핑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이 연구는 불면증을 약 복용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이 불면증 원인으로 주목한 것은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s)이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 부른다. 24시간을 주기로 인간은 체온, 수면, 호르몬 활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소화불량, 심지어 암도 유발된다.<br/>문제는 우리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바로 인공 빛이라는 점이다. 원래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현대인의 경우 해가 진 이후에도 컴퓨터, TV, 휴대전화 등 각종 인공 빛에 노출돼 그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br/>연구팀은 캠핑과 수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총 9그룹의 캠핑족을 1주일 간 자연 속으로 보냈다. 또한 이 기간 중 손전등과 휴대전화 휴대를 금지시켜 원천적으로 인공 빛 노출을 차단했다. 그 결과 피실험 캠핑족들의 멜라토닌 분비가 빨라지고 수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br/>연구를 이끈 케네스 라이트 박사는 "<span class='quot0'>캠핑족들의 일주기 리듬이 도시에 있을 때 보다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앞당겨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흥미로운 점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그 패턴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점</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일 간의 캠핑 만으로도 일주기 리듬이 리셋되는 셈"이라면서 "이는 질 좋은 수면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1.txt

제목: 차병원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인정…기증자들에게 ‘사과문’  
날짜: 20170203  
기자: 장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3090620001  
ID: 01100611.2017020309062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차병원이 기증 받은 제대혈을 무단으로 불법 시술한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br/>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차병원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분당차병원장 겸직) 명의의 사과문을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br/>차병원은 사과문에서 “<span class='quot0'>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span>”고 밝혔다.<br/>하지만 차병원은 “<span class='quot0'>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span>”고 해명했다. 용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줄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br/>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구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의 경우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인체 시술로 사용했다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차병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br/>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 없이 차광렬 회장 부부와 그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2.txt

제목: 위험한 햄버거 포장지…절반서 발암의심물질 발견  
날짜: 2017020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2164634001  
ID: 01100611.2017020216463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햄버거나 감자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이 배지 않는 포장지나 용기에는 음식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를 미국의 연구자들이 1일 학술지에 발표했다.<br/>연구진은 이런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과거 연구에서는 암이나 갑상샘 질환의 발병과의 관련성이 의심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br/>미국 화학회(ACS)가 발행하는 학술지 ‘환경 과학과 기술 레터스’(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27곳에서 수집한 표본 400여 개를 검사한 결과, 햄버거 포장지의 거의 절반과 감자튀김과 피자 등을 넣는 종이상자의 20%에서 과불화 화합물(PFAS)이 검출됐다.<br/>불소 처리는 얼룩이 지지 않는 카펫이나 쉽게 오염되지 않는 조리 도구, 또는 야외용으로 방수성을 높인 의류 등에서도 활용된다.<br/>연구논문은 “텍스멕스 요리(텍사스풍 멕시코 요리)와 디저트, 빵의 포장지는 불소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br/>단, 이 논문에서는 인체가 포장지에 포함된 PFAS에 노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br/>반면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일부 PFAS가 암과 갑상샘 질환을 발생하거나 면역 기능과 출산율, 그리고 생식 능력의 저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r/>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비영리 ‘침묵의 봄 연구소’의 환경화학자 로럴 샤이더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런 화학물질(PFAS)은 다양한 건강 장애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그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span>”고 말했다.<br/>사진=ⓒ Silent Spring Institute(위),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3.txt

제목: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집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형  
날짜: 20170202  
기자: 신동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2143131001  
ID: 01100611.2017020214313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주인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br/>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 홍순욱)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br/>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A(67)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r/>범행이 발생하기 1년 전 아들 내외와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A씨 부부는 김씨의 층간소음 주장에 식탁 다리 밑에 테니스공을 끼우는가 하면,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걸레질을 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br/>그럼에도 A씨는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서울의 쇼핑센터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A씨 부부 집 복도 천장에 설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br/>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span class='quot0'>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span>”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br/>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span class='quot1'>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pan>”는 소견을 제시했다.<br/>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br/>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br/>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4.txt

제목: “정치·사회 변혁 있어야 새 도약” 관료의 마지막 훈수  
날짜: 20170202  
기자: 김경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2034255001  
ID: 01100611.20170202034255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암 투병 중에도 경제 원로로 조언 <br/> 김대중 정부 ‘정책 브레인’ 역할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외환위기 시절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74세.<br/>강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경제 원로로서 언론 등을 통해 내수·수출 동반 둔화, 저성장 고착화 등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br/>지난해 11월 30일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 보고회에서는 “요즘 나라 사정, 특히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어수선하지만 정치·사회적 변혁이 있어야만 새로운 도약과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쉽게 오지 않는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노()관료의 마지막 훈수가 됐다.<br/>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그는 서울대 상대에 늦깎이로 입학한 뒤 1969년 행정고시(6회)에 합격했다. 노동부 차관과 경제기획원 차관 등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책 브레인’을 두루 역임하며 외환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재경부 장관을 지내며 재벌 개혁과 부실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이끌었다.<br/>2002년 8월 재·보궐선거에서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 수립을 주도했다. 18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해 4·13 총선 때는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한석유협회장을 맡아 왔다. 최근 췌장암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br/>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1일 오전부터 학계와 재계, 전현직 관료,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대신 보내 조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조화를 보냈다.<br/>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pan class='quot0'>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원로로서 후배들이 깊이 존경하는 분이자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신 바가 매우 큰 분</span>”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br/>유족으로 부인 서혜원(71)씨와 아들 문선(43)씨, 딸 보영(42)씨가 있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전북 군산시 옥구읍 가족묘다.<br/>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5.txt

제목: 발길 머문 곳, 중세의 낭만 흐르다  
날짜: 20170202  
기자: 손원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2034225001  
ID: 01100611.20170202034225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도시다. 공항과 연결된 호텔에서 보면 특히 그렇다. 방금 이륙한 비행기를 포함해 한번에 12개의 운항궤적이 하늘에 그려질 때도 있다.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남긴 흔적인지, 서로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유럽 하늘길의 요충지다운 풍경이다.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오래전부터 유럽의 진면목에 다가서려는 여행자들에게 관문 같은 도시였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한번이라도 방문해본 이들은 독특한 유럽의 색채를 담은 이 도시를 쉬 잊지 못한다.유럽 금융 중심지… 골목 구석구석엔 중세 흔적이<br/>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꼽힌다. ‘뱅크푸르트’라 불릴 만큼 유럽의 금융, 경제 중심지다.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은 현란하지만 골목 구석구석엔 중세의 흔적이 여전하다. 프랑크푸르트가 내세운 슬로건이 ‘시대보다 늘 조금은 앞서간다. 하지만 시대는 준수한다‘인 것도 이런 이유이지 싶다. 독일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뒤에 꼭 ‘암 마인’을 붙여 부른다. ‘마인강변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뜻이다. 이는 옛 동독 지역의 오데르 강 언저리에 있는 또 다른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데르)와 구분 짓기 위해서다.<br/>프랑크푸르트의 명소들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 산재해 있다. 다소 벅차긴 해도 걸어서 돌아보는 게 한결 여유 있고 수월하다. 출발지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이다. 역을 나서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양옆으로 펼쳐진다. 여기가 카이저 거리다. 옛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길 너머에는 어김없이 마천루가 서 있다. 어느 골목이나 양상은 비슷하다. 아마 이런 느낌들이 프랑크푸르트의 정수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br/>최고층 코메르츠방크 아래 화려한 스카이라인<br/>프랑크푸르트가 자랑하는 건 스카이라인이다.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아래 옛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장면 말이다. 이 모습은 걷기 여정의 끝인 아이제르너다리에서 본다. 모름지기 하이라이트는 아껴 뒀다 나중에 봐야 제맛이다.<br/>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물(65층)이라는 코메르츠방크 등을 줄줄이 지나고 나면 곧 중앙광장이다. 코메르츠방크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인수해 관심을 끈 건물이다. 광장 주변은 번화가다. 하우프트바체 역을 중심으로 각종 상업용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옥상은 전망대 겸 식당이다. 프랑크푸르트 중심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커피와 맥주 등을 마시며 독일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는 재미가 각별하다. 다만 굽어보는 도심 풍경은 다소 생뚱맞고 부자연스럽다. 마천루들 틈바구니에 성 카탈리나 교회, 카페 하우프트바체 등 옛 건물 몇 채가 옹색하게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이는 전쟁 탓이다. 프랑크푸르트는 2차대전 때 폭격 피해를 입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온전히 남은 건물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철저히 두들겨 맞았다. 바로 그 탓에 이런 어색한 풍경들과 만나기도 한다.<br/>중앙광장 한편의 성 카탈리나 교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다. 17세기 세워졌으나 1944년 파괴됐다가 1954년 재건됐다. 카페 하우프트바체는 옛 교도소 건물이다. 지금은 커피숍으로 쓰이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아래쪽은 자일 거리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다.<br/>카탈리나 교회를 지나 마인강 쪽으로 걷다 보면 붉은 벽돌로 지은 성 파울 교회가 나온다. 1848년 최초의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던 곳으로, 독일 사람들은 이 교회를 독일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여긴다. 교회 안에 당시를 기억하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입장료는 없다.<br/>이 도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프랑크푸르트의 위대한 아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다. 괴테 하우스나 그가 자주 찾아 사과와인을 마셨다는 게르버뮐레 레스토랑 등의 흔적을 좇다 보면 18세기 프랑크푸르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파울 교회 위쪽으로 이어진 베를리너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괴테 생가가 나온다. 우아한 자태의 고딕양식 건물이다. 괴테가 태어나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살던 집으로 그의 문학적 토양이 됐던 곳이다. 괴테가 시를 썼던 방과 책상, 자필 원고 등이 전시돼 있다. 생가 옆은 괴테 박물관이다.올드 시티 중심지, 뢰머광장엔 ‘정의의 여신상’이<br/>프랑크푸르트의 핵심은 뢰머광장이다. 이른바 올드 시티(old city)의 중심지 노릇을 하는 곳이다. 성 파울 교회에서 마인강 쪽으로 한 블록 내려가면 나온다. 마천루 사이에 터를 잡은 광장은 고즈넉한 분위기로 여행자들을 맞고 있다. 먼저 ‘정의의 여신상’이 눈길을 끈다. 정의의 기준을 형상화한 저울과 엄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칼을 양손에 쥐고 있다. 여신상을 가운데 두고 2차대전 이후 원형대로 복원된 뢰머(옛 시청사)와 중세 목조건물 등이 늘어서 있다. 광장 뒤편은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다. 역대 황제들이 대관식을 치렀다는 교회로 ‘카이저돔’이라고도 불린다. 탑에 올라서면 시가지 모습이 한눈에 펼쳐진다고 한다.<br/>영원한 사랑이 깃든 마인강 위 아이제르너다리<br/>광장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마인강이 나온다. 강변 바로 앞에 하우스 베르트하임 건물이 서 있다. 용케 2차대전의 포화를 견딘 유일한 건물이다. 1479년에 세워져 여태 그대로다. 지금은 커피와 음식 등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쓰인다. 마인강변으로 나가면 시원한 풍경이 이방인을 맞는다. 바람을 따라 찰랑대는 강물과 괴테의 이름을 딴 유람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롭다. 강 양쪽에 슈테델 예술박물관, 시립미술관, 응용예술 박물관, 현대예술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다. 시간이 있다면 한두 곳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br/>마인강을 가로질러 아이제르너다리가 세워져 있다. 보행자 전용 다리로, 약 500t의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자랑하는 스카이라인은 아이제르너다리에서 본다. 저물녘 마인강 너머로 지는 해가 토해내는 붉은 기운과 파란 하늘, 그리고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마천루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다리 난간 곳곳엔 수많은 자물쇠가 매달려 있다.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흔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저물녘 풍경과 어우러지니 퍽 로맨틱하다. 다리 너머는 작센하우젠 지역이다. 두 블록 정도 내려가면 맥주 등을 맛볼 수 있는 선술집들이 나온다.<br/>프랑크푸르트(독일)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6.txt

제목: NASA 보고서…우주와 지구서 1년 보낸 쌍둥이 입체 분석  
날짜: 20170201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1104709001  
ID: 01100611.201702011047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1년 동안 한 명은 우주에서, 또 한 명은 지구에서 생활한다면 이들의 신체 상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까?<br/>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간 연구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gram)이 흥미로운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주제는 바로 우주인 스콧 켈리(52)와 그의 형 마크와의 신체 변화 비교다.<br/>NASA 소속 우주인 스콧은 지난 2015년 3월 지구를 떠나 340일 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다 귀환했다. 이 기간 중 그는 지구를 무려 5440바퀴나 돌았으며 각종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의 임무 중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같은 기간 지상에 있었던 쌍둥이 형 마크와의 신체 비교였다. 귀환 직후 NASA 측은 스콧의 척추가 늘어나 형보다 키가 5cm나 더 커졌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br/>이에 대해 스콧은 “(우주에 있는 동안) 골밀도가 감소했으며 근육은 위축됐다. 그리고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있어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지구에서보다 10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됐으며 이는 내 여생에서 치명적인 암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br/>이번 NASA의 보고서는 쌍둥이 형제간의 DNA 분석에 집중됐으며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 DNA 메틸화(methylation), 생물학적 지표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연구팀이 가장 놀란 것은 텔로미어(telomeres)의 차이다.<br/>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이 풀어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매는 것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단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면서 그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된다. 때문에 텔로미어는 수명 유전자, 장수 유전자 등으로 불리며,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수명이 늘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br/>연구팀은 흥미롭게도 지구로 귀환한 스콧의 텔로미어가 지상에 있던 형보다 더 길어진 것을 확인했다. 연구에 참여한 수잔 베일리 박사는 "<span class='quot0'>우주에 있던 스콧의 텔로미어가 길어진 것은 우리의 예측과 정반대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귀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텔로미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span>"고 설명했다.<br/>이어 "극미중력 상태에서의 생활, 우주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켈리 형제의 이번 사례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NASA 측이 우주인의 신체변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있다. 2030년 대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으로 쌍둥이 만큼 좋은 연구자료는 없다.<br/>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7.txt

제목: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별세…“암투병 중에도 한국경제 걱정”  
날짜: 20170201  
기자: 장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1095630001  
ID: 01100611.20170201095630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1일 별세했다. 향년 74세.<br/>강 전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정책 브레인’으로 통한 정통 경제관료로, IMF 외환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던 1999년 재경부 장관을 지낸 ‘경제사령탑’이었다.<br/>강 전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쏟아냈다.<br/>지난해 11월 30일 ‘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보고회에서도 그랬다.<br/>강 전 장광는 “정치적 안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예전의 잠재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br/>지난달 31일 강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날 발간보고회 참석은 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됐다. 그의 고언 역시 그가 한국 사회에 던진 마지막 공식 메시지가 됐다.<br/>‘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당시 경제수장들의 증언을 통해 전한 육성 기록물이다.<br/>그는 이 책에서 “금융기관은 타율적 준관치체제에서 자율적 경쟁체제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 노동개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장벽을 낮춰야 한다” 등 조언을 내놨다.<br/>“<span class='quot0'>김대중 정부 때는 야당 시절 정치적 측근들이 국정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는 공개선언이 나오고 청와대 비서실부터 정치권 인사채용을 엄격히 제한, 정권에 대한 나름의 신뢰가 있었고 관련 고위직들의 비리부정이 없었다</span>”며 마치 최근 국정 비선실세 파문의 원인을 지적하는듯한 발언도 책자에 담겼다.<br/>강 전 장관은 이미 3년 전부터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선뜻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맡았다.<br/>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령탑으로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지혜라도 후배에게 전하기 위한 마음이 컸다고 지인들은 전했다.<br/>강 전 장관의 한 지인은 “<span class='quot1'>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책에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span>”라며 “<span class='quot1'>투병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집필하시기도 했다</span>”라고 말했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58.txt

제목: 슈퍼밴드 ´아시아´ 베이시스트 존 웨튼 저세상으로  
날짜: 20170201  
기자: 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1095628001  
ID: 01100611.20170201095628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영국 프로그레시브록 그룹 ´킹크림슨´과 슈퍼밴드 ´아시아´의 멤버였던 존 웨튼이 67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저세상으로 떠났다.<br/>　　아시아 시절 동료이자 ´에머슨 레이크 앤드 파머´의 일원이었던 칼 파머(66)는 짤막한 성명을 내고 대장암을 앓아온 고인이 3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잠을 자다 영면했다고 전했다. 파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span class='quot0'>좋은 친구이자 음악 동료인 존 웨튼이 떠남으로써 세계는 또 하나의 음악 거인을 잃었다</span>”고 애도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미망인 리사와 아들 딜런이 있다.<br/>　　웨튼은 생전에 ‘킹 크림슨’과 ´유라이어 힙´, ´록시 뮤직´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나중에 슈퍼그룹 ´아시아´ 결성을 주도했다. 고인과 함께 1982년 아시아의 데뷔 히트작 ´히트 오브 더 모멘트´ 와 ´온리 타임 윌 텔´ 등을 작곡하고 연주했던 파머는 고인이“신사다운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뮤지션으로서 그는 용감하고도 혁신적이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아시아´의 음악을 전세계 차트 맨 위에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는 파머와 웨튼 외에 ´예스´ 출신 스티브 하우와 ´버글스´의 제프리 다운스 등 당대를 대표하는 록그룹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큰 화제와 인기를 끌었다.<br/>　<br/>파머는 또 “고인이 알코올중독과 싸워 이긴 것은 같은 싸움을 벌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를 알고 함께 일해온 이들에게는 그가 암과 벌인 용감한 투쟁은 더 많은 영감을 안겼다“며 최근 고인의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라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3월 키스 에머슨이, 지난달 그렉 레이크가 떠나면서 파머는 외로웠던 차에 ´아시아´에서 호흡했던 웨튼마저 잃었다.<br/>　<br/>　고인은 최근에 록그룹 ´저니´의 서포트 밴드로 미국 투어를 계획하다 화학요법 때문에 빠지게 됐고, 그 전에도 여러 투어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 파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 못했다. 존은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애쓰길 원했다“고 안타까워했다.<br/>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br/>　<br/>　<br/>　

언론사: 서울신문-4-659.txt

제목: [정서린 기자의 잡식주의자] ‘센 언니’들의 목소리  
날짜: 20170201  
기자: 정서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201034315001  
ID: 01100611.2017020103431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span class='quot0'>여자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아야…, 나이가 들면…</span>”으로 시작하는, 이번 명절에도 쏟아졌을 레퍼토리들. 익숙하시지요. 이에 제동을 거는 ‘센 언니’들의 목소리가 연초 출판가에선 유독 기운찹니다. ‘싸움의 달인’, ‘맷집 좋은 사회학자’로 불리는 우에노 지즈코, 가부장적인 사회에 맞서온 칼럼니스트 사카이 준코, 이혼, 암 투병, 나이듦 등 여성으로서 어려운 얘기까지 터놓는 작가 사노 요코 등 최근 신작들이 쏟아지는 일본 여성 저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br/>이들의 에세이에는 공통의 감각들이 짚힙니다. 결혼 여부, 아이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여자 인생의 성패를 가르려는 사회의 저열한 편견을 걷어 내죠. 일견 추레하고 비루한 생의 단면까지 서슴없이 내보이는 이들은 “누가 뭐라든 괜찮다. 당신 즐거운 대로, 당신 취향과 선택대로 살아가라”며 젊은층부터 중년까지 여성 독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br/>스스로의 발목까지 잡아채는 냉소적인 유머에 ‘우주 너머로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 결단력, 명랑함, 공격성, 집착 없음, 유연함, 타인에 대한 공감’(일본 시인 이토 히로미가 ‘느낌을 팝니다’에서 꼽은 지즈코의 특징) 등이 교집합이자 힘인 이들의 에세이는 최근 1~2년 새 출판시장의 한 줄기를 이룹니다.<br/>최근 이런 트렌드를 짚은 기사를 쓰면서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던 차. 아침에 포털에 실린 기사의 댓글창을 열었다가 헉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혈투’ 때문이었죠. 여성 비하·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한 축의 댓글이 수십여개 달리자 주어를 남성으로 바꾼 다른 축이 이를 고스란히 되받아치는 ‘미러링’ 전략으로 반격을 펴고 있었습니다.<br/>본의 아니게 싸움을 붙인(?) 꼴이 된 난감함도 잠시. ‘센 언니들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의 ‘야마’(핵심)로 수렴된다 싶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제각각의 선택과 취향으로 그려 나가는 삶의 다채로운 무늬와 형태, 색을 모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자는’으로 시작하는 이들의 무수한 문장들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는 셈이죠.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여성 혐오 댓글들은 상대를 겨냥하지만 결국 자신을 향한 저주에 묶여 있는 게 아닐까요.<br/>최근 급증하는 여성 혐오 발언에 여성학자 박혜란씨는 이렇게 고언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페미니스트가 공격하는 대상은 남성중심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제 사회일 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도 억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남자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인간 자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저서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에서)<br/>극작가 이브 엔슬러는 “용감하고 정직한 목소리와 말들의 힘으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들이 그들 자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균열을 내는 언니들의 목소리에, 그에 교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저주’ 대신 ‘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br/>ri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0.txt

제목: 빈곤과 암에 생명 위협 받는 7세 파키스탄 소녀  
날짜: 20170131  
기자: 안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1145728001  
ID: 01100611.20170131145728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불행은 항상 낙후된 국가와 가난한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든다.<br/>영국 데일리메일은 30일(현지시간) 암으로 왼쪽 눈을 잃은 뒤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7세 여자 아이 쉐자디의 사연을 소개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쉐자디는 이른 시기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나 빈곤한 가정 형편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br/>쉐자디는 태어난지 8개월이 됐을 때, 처음 왼쪽 눈이 부풀어오르는 고통을 경험했다.<br/>쉐자디의 엄마 무사맛 자한(50)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태어난 줄만 알았던 딸이 어느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들여올려 바라보았더니 눈이 빨갰고, 빨간 눈에서 매일 아무 이유없이 물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br/>이어 "쉐자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서 "딸아이가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고 덧붙였다.<br/>치료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부부는 여러 도시와 마을의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다. 수준 높은 의사를 소개받아도 대부분이 딸아이의 병명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다 카라치 지역에 한 의사에게서 딸이 안암을 앓고 있고, 이를 제거해야 살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br/>하지만 몇달 후 쉐자디의 얼굴은 다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지금은 얼굴 왼쪽이 축구공만큼 커진 상태다.<br/>아빠 알리 하산 샤이크(55)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동하는 사이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렸다. 앞으로 딸의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또한 "우리는 무척 괴롭지만 딸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도 쉐자디의 부모는 집주인이나 사업가 혹은 정부가 나서서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br/>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1.txt

제목: ‘착한 삭발 도미노’…왕따 삭발 소년 위해 삭발한 교장  
날짜: 2017013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1111703001  
ID: 01100611.2017013111170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미국 아이오와주(州) 피킨중학교에 다니는 11세 소년 잭슨 존스턴. 얼마 전 잭슨의 할아버지 릭은 임파선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말았다.<br/>그런 할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잭슨은 스스로 머리를 밀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런 그를 흉보고 놀리며 따돌리기까지 했다.<br/>“이봐, 너 암 걸렸냐?”<br/>그리고 얼마 뒤, 이 소식을 알게 된 한 남성이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br/>어느 날 학교 복도에 학생들이 모였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는 바로 피킨중의 팀 해들리 교장.<br/>해들리 교장이 “잭슨의 행동은 용기 있는 멋진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많은 학생이 손을 들었다.<br/>그러자 교장은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주위에는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고 말했다.<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나도 그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span>”고 힘차게 말했다.<br/>그러고 나서 해들리 교장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목에 천을 감기 시작했다. 이어 잭슨이 나와 교장의 머리를 밀기 시작했다.<br/>교장의 응원은 바로 잭슨처럼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마 스스로 머리를 민 잭슨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한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br/>이어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 웃는 얼굴로 “우리도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킨 가족’이니까요”라고 말했다.<br/>이날 일은 피킨중의 교사 폴라 폴록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폴록 교사는 “우리 학교 교장은 최고다!”는 멘트도 남겼다.<br/>그러자 해당 게시글에는 “최고의 교장 선생님이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떨렸다”, “잭슨과 해들리 교장의 친절함이 전해졌다”와 같이 교장과 소년의 행동을 칭찬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br/>한편 피킨중의 웹사이트에는 “인종과, 성별, 피부색, 국적, 신체 장애, 종교, 성 등 모든 면에서 차발하지 말라는 것이 이 학교의 교육 방침이다”는 소개 글이 나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씨를 갖길 바라는 이 학교 교육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다.<br/>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중요한 윤리 의식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해들리 교장. 그의 교육자로서의 행동에 가슴이 뜨거워진다.<br/>사진=폴라 폴록 / 페이스북<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2.txt

제목: [이상열의 메디컬 IT]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당뇨병 예방 전략  
날짜: 2017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1034246002  
ID: 01100611.2017013103424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만 올라가는 질병이라면 지금처럼 보건의료상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혈당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 환자들은 다양한 급·만성 합병증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당뇨 합병증의 대부분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br/>2014년 한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6위에 해당된다. 또 당뇨병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1~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국가 의료비 부담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한국인에게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확인됐다.<br/>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당뇨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눈앞의 치료에만 급급하고 있을까. 증상이 악화하고 합병증으로 고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기 전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br/>이런 의문을 갖고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병 예방을 목표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수행해 왔다. 미국, 핀란드, 중국 등에서 시행된 당뇨병 예방연구가 대표적이다. 운동, 식이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나 소량의 당뇨병 치료제를 미리 복용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당뇨병 발생률을 40~60% 정도 낮출 수 있었다. 불과 3년 내외의 짧은 연구 기간 동안 얻은 당뇨병 예방 효과는 연구 종료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됐다.<br/>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당뇨병 예방 전략을 국가 의료정책의 한 축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따라 미국의 당뇨병 발병률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건강보험 급여에 반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단순한 질병 관리가 아닌, 질병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급여화하려는 정책은 그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br/>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당뇨병학회가 후원하는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이 전국의 주요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구로, 학회의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한 ‘한국인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확립하려 한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여러 데이터로 가공돼 한국인 당뇨병 예방을 위해 값지게 사용될 것이다.<br/>필자도 이 연구에 실무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이라는 연구하기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과 의료를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IT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당뇨병 예방전략 개발에 응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IT 기기를 활용한 혈당 측정 등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기기를 활용해 당뇨병 발병을 차단하는 방안에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br/>물론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당뇨병 예방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언론사: 서울신문-4-663.txt

제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집단 암 발병’ 의왕경찰서 옆 아스콘 공장 정밀조사  
날짜: 20170131  
기자: 김병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1034149002  
ID: 01100611.20170131034149002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의왕경찰서 집단 암 환자 발생 사태를 정밀조사한다.<br/>경기도는 “H아스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의왕경찰서 등 주변 지역에 암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br/>의왕경찰서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명이 대장암과 부신암·간암 등으로, 1명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명이 구강암과 침샘암으로 투명 중이다.<br/>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은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필수 인원만 남기고 고천동주민센터로 청사를 임시 이전했다.<br/>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 형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br/>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4.txt

제목: 죽음 앞둔 10대 암환자가 세상에 퍼뜨린 ‘친절 메시지’  
날짜: 20170130  
기자: 안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0185635001  
ID: 01100611.2017013018563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마지막은 다가온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가 있다.<br/>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베카는 자신의 죽음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진정한 친절의 의미를 알리는 중이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치 않음을, 친절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말이다.<br/>지난주 23일(현지시간) 미국 NBC는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친절의 정의를 새롭게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사연 속 주인공은 캐나다 뉴브런스 윅주에 사는 베카 스코필드(17). 그녀는 2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로 지난해 4월 암과의 싸움을 끝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종양이 재발견됐고, 의사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br/>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는 죽기 전 훌륭한 일을 해내고 싶어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이 메시지를 본다면,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해달라"는 글을 적어 올렸다.<br/>이어 "친절함의 규모가 클 수도 혹은 작을 수도 있다"며 "자선단체 기부, 자원봉사, 당신의 부모가 부탁하기 전에 설거지하기, 보도 쓸기, 이번 연휴에 혼자일거라 생각되는 이를 방문하는 일도 친절을 베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br/>인터넷으로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버킷 리스트 달성을 돕고 싶다 전했고,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BeccaToldMeTo’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다.<br/>이 해시태그는 미국, 일본, 쿠웨이트, 호주 등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200만 명에게 전해졌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누군가를 위해 커피‧아침밥을 샀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헌혈을 했다’는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해시태그가 달린 티셔츠와 범퍼 스티커, 광고게시판 그리고 팔찌까지 등장했다.<br/>한때 남을 신경 쓰지 않던 전형적인 10대 소녀였던 베카. 그녀는 병을 통해 다른 이의 고통과 고충을 이해하게 되면서 겸손함을 배웠다.<br/>베카는 "<span class='quot0'>친절을 베푸는 일은 놀라운 일이란 사실을 깨달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빠는 항상 나에게 타인을 향한 친절을 가르쳤고 나 역시 그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친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베카는 "<span class='quot0'>이 세계는 때론 잔혹할 수 있지만 나쁜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지금의 삶이 선물이란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br/>한편 베카의 친구와 가족들은 ‘고 펀드미’를 통해 성금도 모금하고 있는 중이다. 23개월 안에 5800만원을 목표로 55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4000만원 가까이의 기금을 모은 상태다.<br/>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5.txt

제목: ‘암 동행기’ 세상과 나누던 20세 여성, 먼 길 떠나다  
날짜: 2017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0154118002  
ID: 01100611.20170130154118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영국 랭커셔에 사는 한나 리슨은 지난해 5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19살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한나는 낙담하지 않았다.<br/>암을 벗삼으면서 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심정 등을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덤덤하게 공개했다. 늘 웃는 얼굴로 쾌활함 잃지 않은 채 적어 내려간 '한나의 대장암 동행기(Hannah's Bowel Cancer Journey)'라는 제목으로 매번 올라오는 글들에 5000명의 팔로워들은 격려와 지지를 보냈고, 함께 희망을 꿈꿨다. 많은 이들은 그를 응원하다가 오히려 그의 두려움 없는 삶의 자세로부터 더욱 큰 용기를 얻었다.<br/>지난 29일(현지시간) 그의 SNS에 길지 않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한나가 아닌, 그의 가족이 올린 글이었다.<br/>'우리의 용감하면서도 아름다운 한나가 어제 암과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한나의 뜻을 이어 건강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일을 해갈 것입니다. 한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br/>아직 해야할 일이 많은 20살 청춘은 그렇게 떠났다.<br/>지난해 5월 병원에서 한나의 대장과 간에 5개의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장 일부를 제거한 뒤 배변주머니를 차고 생활해야만 했다. 특히 10대 여성의 입장에서 더욱 견디기 쉽지 않았을 일이었다.<br/>그럼에도 그는 꿋꿋했다. 오히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과거에 그의 자매 두 사람도 백혈병과 갑상선암을 극복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희망적으로 만들었다.<br/>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병세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이 됐고, 그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다. 또한 '축하해 주세요~. 제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어요'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br/>이어 다른 포스팅에서도 '정신없는 일들이 이어진 몇 달이네요. 처음에는 의사선생님들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더니 이제는 훨씬 더 긍정적이네요. 덕분에 제 외모도 더욱 좋아진 것 같고, 조만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기쁨을 드러냈다.<br/>하지만 병세는 급속히 악화됐다. 이달초 의사들은 한나의 약물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다. 그 마지막 순간조차 덤덤히 남겼다.<br/>'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 저도 가족들도 평온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동안 저와 가족들을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br/>한나는 28일 '영웅 중의 영웅상'을 받았다.<br/>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6.txt

제목: 경기도 암발생 의심, 의왕 아스콘사업장 정밀조사  
날짜: 20170130  
기자: 김병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30154116001  
ID: 01100611.20170130154116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집단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서울신문 2016년 11월 17일자 11면) 경기도가 암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왕 H아스콘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환경부와 함께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br/>　도는 30일 H아스콘사업장에 대한 악취와 오염물질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변 지역 암 환자 연관설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 배출원(굴뚝)과 주변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절기로 가동을 멈춰 다음 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의왕경찰서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명이 대장암과 부신암·간암 등으로, 1명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명이 구강암과 침샘암으로 투명 중이다. 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br/>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불완전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화합물(PAHs)에는 ‘벤조피렌(1급)’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필수 인원만 남기고 고천동주민센터로 청사를 임시 이전했다.<br/>도는 이에 따라 H아스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배출원(굴뚝)과 주변 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br/>　도는 특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br/>　도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br/>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47개 아스콘업체가 가동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b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br/>　

언론사: 서울신문-4-667.txt

제목: 사람이 좋다 조승구 “노래 못한다” 갑상선암 말기 극복 “기적이 있더라”  
날짜: 20170129  
기자: 이보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9154206001  
ID: 01100611.2017012915420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사람이 좋다’에서 트로트 가수 조승구의 이야기가 공개됐다.<br/>29일 오전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는 조승구가 출연해 갑상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겨내기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br/>2007년 갑상선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조승구는 갑상선 주변에 림프절에도 전이가 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는 “의사 선생님이 ‘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생명이 위태로웠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당연히 겁이 났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br/>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힘써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그는 “기적이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다 기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br/>조승구는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며 “불안해지니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됐다.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노래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 극복 과정을 설명했다.<br/>방송인 조영구는 “<span class='quot0'>이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형을 보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느꼈다</span>”고 덧붙였다.<br/>사진=MBC ‘사람이 좋다’ 캡처<br/>연예팀 seoule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8.txt

제목: 3D프린터가 사람을 죽여?  
날짜: 20170129  
기자: 박현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9145151001  
ID: 01100611.2017012914515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MIT출신의 30대 부부가 3D 프린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r/>미 CBS계열의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국 KPIX 5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0대 부부가 수년간 살던 버클리의 디킨 가로에 있는 4세대용 연립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br/>부부가 키우던 고양이 두마리 또한 숨진 채 발견됐다.<br/>버클리 경찰대변인에 따르면 숨진 부부는 올해 35세인 로저 모라시와 부인인 32세인 발레리 모라시다.<br/>로저는 게임개발자로 샤드라는 모험게임을 개발 중이었다. 발레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스미스 케틀웰 눈 연구소의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이었다.두사람은 MIT출신으로 겸손하고 재능이 뛰어난 연구자들이었다.<br/>이 부부는 집에서 3D 레이져 프린터로 작업을 했으며 시체에서 발견된 사망증세가 일산화탄소 중독과 일치했다.<br/>3D 프린터로 작업할 경우,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나오는 만큼 적절한 환기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일리노이 공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스크톱 3D 프린터들은 작업도중 미 연방당국에서 말하는 암이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입자와 화합물을 생성한다.<br/>경찰은 해당 연립주택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천연가스 및 전기공급회사인 PG&E와 소방당국의 위험물질팀에 연락해 가스누출 가능성이나 다른 위험요인을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오염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69.txt

제목: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암 사망 위험 커(연구)  
날짜: 20170126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6152636001  
ID: 01100611.201701261526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은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이 성인남녀 16만 명 이상의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영국의학저널(BMJ) 최신호(26일자)에 발표했다.<br/>특히 대장암과 전립샘암, 그리고 췌장암의 위험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도 백혈병과 식도암 위험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br/>연구진은 16세 이상 대상자 16만3363명에 관한 기존 장기조사연구 16건의 원래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됐으며 조사 동안 43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br/>연구진은 이 자료를 분석해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생활 습관, 암 발생률을 확인했다.<br/>그 결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생활 습관에 상관없이 컸다. 대장암은 약 2배, 췌장암과 식도암은 2배 이상이며, 백혈병의 경우 사망률은 훨씬 더 높았다.<br/>우울증이 생기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코르티손 수치가 급증하고 DNA 복구 기능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르티손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하나로 항염증, 항쇼크, 항알레르기 효과가 강해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쓰인다.<br/>이런 요인은 모두 암에 대한 몸의 방어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분이 우울하면 흡연과 음주 빈도가 늘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인도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br/>이에 대해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암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더욱 정확한 연관성을 알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0.txt

제목: 솟았다, 울산 관광의 해… 몰린다, 400만 인파  
날짜: 20170126  
기자: 박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6034211001  
ID: 01100611.20170126034211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가지산·신불산·영축산 등 해발 1000m 이상 7개의 봉우리가 휘감아 형상된 ‘영남알프스’, 선사시대 고래잡이 역사를 간직한 ‘반구대 암각화’,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도심하천 생태복원의 성공모델인 ‘태화강 십리대숲’, 동해의 푸른 물살을 가르며 힘껏 헤엄치는 ‘고래떼의 장관’, 수중왕릉의 전설을 간직한 ‘대왕암공원’, 세계 최고의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이 힘차게 돌아가는 ‘산업현장’. ‘2017년 울산 방문의 해’가 밝았다. 4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산의 발걸음이 새해 벽두부터 분주하다.<br/>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다음달 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선포식에서 국내외에 울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으며 ‘관광도시 울산’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br/>선포식은 홍보 영상 상영, 축사, 김기현 울산시장의 ‘울산이 부른다’ 주제 관광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업무협약, 시상식, 여행사 설명회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날 초청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울산의 관광정책을 설명하고, 선포식 본 행사가 끝나면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울산관광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이날 행사에 여행사 대표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을 대거 초청해 여행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시장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울산은 산업뿐 아니라 해안·산악·역사명소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3월과 6·7월, 9·10월을 특별여행주간으로 정해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br/>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행사와 축제, 국제행사가 울산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는 유비쿼터스(U) 관광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울산만이 가진 차별화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관광과 같은 특수관광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핵심 관광콘텐츠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연중 이벤트를 열고 해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3억원으로 확대한다.<br/>시는 울산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가 높은 점을 적극 고려해 다시 찾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울산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여행 실태조사에서 가족여행만족도 부문에서 광역시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자연경관 부문 1위를 비롯해 숙박·음식·친절도·재방문 의사 부문 2위, 문화유산 부문 3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관광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와 울산을 다녀간 관광객들은 해돋이 명소 간절곶을 비롯해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태화강 십리대숲, 장생포 고래관광, 몽돌해변 등을 인기 관광코스로 꼽았다.<br/>특히 간절곶, 태화강 십리대숲, 영남알프스, 대왕암공원 등 4곳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7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에서는 2013년 반구대 암각화와 간절곶, 2015년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문화특구가 각각 한국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br/>간절곶에서는 새 천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전국에서 매년 10만명 이상이 몰려든다. 지난해 여름에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열풍까지 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과 강변의 십리대숲은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진 낙원이다. 5~6급수의 더러운 물이 흐르던 태화강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1~2급수의 생명의 강으로 변모해 세계적인 도심하천 생태복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2013년에는 환경부와 문체부 주관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산업도시 울산이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br/>영남알프스에는 연간 300여만명의 등산객이 찾는다. 신라 천년 고찰인 석남사, 작천정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수정 동굴, 신불산 폭포 자연휴양림, 홍류폭포, 파래소폭포, 작수천계곡, 배냇골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품고 있다.<br/>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1.txt

제목: 인체삽입형 통신기기로 통화하고, 센서 달린 옷으로 건강 체크  
날짜: 20170125  
기자: 임주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5171157001  
ID: 01100611.20170125171157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휴대전화가 아닌 내 몸에 삽입한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통화한다. 입고 있는 옷이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호흡, 혈류량을 체크해 이상이 있으면 알려준다. 아직은 영화 속에서나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오는 2025년이면 현실화될 전망이다.<br/>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25일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산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5년 즈음 나타날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교육·의료·금융·교통·공공·제조·유통 등 7가지 분야로 나눠 그려봤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br/>먼저 학교에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이 이뤄진다. 종이 교과서는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로 바뀐다. 교실에서 우주, 해저, 피라미드 등 VR을 구현해 수업에 활용한다.<br/>의료에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진료가 크게 확대된다. 이미 IBM이 개발한 ‘왓슨’은 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병명과 필요한 검사 등을 알려주는 ‘회이트잭’, AI 간호사 ‘몰리’ 등도 등장했다. 국내 의료 AI 시장은 2014년 18억원에서 2019년 25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br/>금융은 ‘현금 없는 사회’ 도래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과 간편 결제 증가로 이미 주요국은 현금 결제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비현금 거래 규모는 4263억 달러(약 497조원)로 2011년 3063억 달러(약 357조원)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ATM·CD 기기는 2만 9661대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br/>교통에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이 구축돼 차량과 차량이 서로 통신하게 된다. 도로 파손, 사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주행차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한다.<br/>공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확대돼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 대응한다. 제조 공장은 최적의 생산효율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대체된다. 유통에선 자동차, 장난감, 책, 집 등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온다.<br/>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span class='quot0'>초연결 사회에서 기업들은 제품이 아닌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만큼 다양한 영역으로 다각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2.txt

제목: 버섯에 치매 예방 효과 있다…11종 확인(연구)  
날짜: 2017012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5155149001  
ID: 01100611.201701251551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부 버섯에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과학전문 사이언스데일리는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연구진이 식용버섯과 약용버섯 총 11종에 함유된 화합물에 신경퇴행의 진행을 늦추거나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br/>연구진이 확인한 버섯은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s), 망태버섯(Dictyophora indusiata),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흰목이버섯(Tremella fuciformis), 송이버섯의 일종(Tricholoma sp.), 계종버섯(Termitomyces albuminosus), 호랑이젖버섯(Lignosus rhinocerotis), 번데기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느타리버섯의 일종(Pleurotus giganteus),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 자흑색불로초(Ganoderma neo-japonicum)로 총 11종이다.<br/>이번 연구는 이런 버섯에 뇌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노화 관련 질환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r/>사실 버섯은 기존 연구에서도 항산화, 항종양, 항바이러스, 항암, 항염증, 항균, 항당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br/>연구진은 항염증 특성을 가진 버섯은 신경퇴행성질환 등 여러 노화 관련 만성질환에 기여하는 고혈압을 막는 기능성 식품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br/>이번 연구는 버섯의 항치매 활성 화합물과 약리학 검사 결과와 관련한 과학적인 정보를 조사한 것이다.<br/>연구진은 총 11종의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을 선택해 실험 쥐와 그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br/>그 결과, 각 버섯은 특정 뉴런(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유지, 증식, 그리고 생존을 조절하는데 주로 관여하는 신경성장인자(NGF)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결국, 이 영향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 및 감각 신경망인 말초신경의 재생을 촉진했다.<br/>연구진은 이들 버섯은 신경성장인자(NGF)의 생성을 촉진하므로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부터 뉴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br/>또한 일부 버섯에는 뇌의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br/>약용버섯으로 쓰이는 번데기동충하초는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뉴런의 사멸은 물론 기억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궁뎅이버섯도 가벼운 인지 손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r/>또한 주로 차(茶)로 달여 마시는 영지버섯은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그런데도 뇌와 인지 건강에 관한 버섯의 효과는 여전히 다른 식물과 약초보다 연구에 있어 초기 단계라고 연구진은 지적한다.<br/>기존 연구는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밝혀진 빙카(페리윙클)와 인삼이라는 두 약초에 중점을 뒀다.<br/>또한 학자들은 로즈마리에서 향을 내는 활성 에센셜 오일(방향유) 중 하나가 특별한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하는 것을 발견했다.<br/>이번 연구를 검토한 삼파스 파르타사라티 박사는 “<span class='quot0'>심혈관계 질환과 암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식품 성분에 관한 연구논문과는 대조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음식에 중점을 둔 연구는 극히 적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신경보호 작용을 가진 더 많은 식재료를 확인하기 위한 자극제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치매와 기타 관련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강에 좋은 첨가물을 함유하고 의학 효과가 있는 식품을 계속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span>”고 결론지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약용 식품 저널’(Journal of Medicinal Food) 최신호(1월1일자)에 실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24일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br/>사진=Journal of Medicinal Food<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3.txt

제목: 故 이태석 신부 삶 남수단 교과서 실린다  
날짜: 20170125  
기자: 심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5034237002  
ID: 01100611.20170125034237002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오랜 내전으로 2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하다 암으로 2010년 선종한 이태석 신부의 삶과 업적이 내년 2월부터 남수단 교과서에 실린다.<br/>남수단의 뎅뎅 호치 야이 교육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남수단 교육심의위원회가 현재 존리(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삶과 업적을 다룬 내용을 집필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 내용이 담긴 교과서는 올해 제작에 들어가 내년 2월 새 학기에 맞춰 발간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선교를 위해 남수단으로 떠났다. 그는 남수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는 톤즈에서 움막 진료실을 짓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다.<br/>호치 야이 장관은 “<span class='quot0'>남수단 초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이 신부의 삶과 사진이 한쪽 전면에 게재되고 중학교 시민권(Citizenship) 과목 교과서에는 두 쪽 전면에 걸쳐 실린다</span>”고 말했다.<br/>이 신부의 교과서 등재를 측면 지원한 김기춘(66) 남수단 한인회장은 “이 신부의 고귀한 삶이 결국엔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그의 업적이 남수단을 넘어 세계에도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4.txt

제목: 톱 모델 가비 오딜르의 용기있는 고백 “저 인터섹스였어요”  
날짜: 20170124  
기자: 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4213637001  
ID: 01100611.201701242136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적인 패션 모델 한느 가비 오딜르(30)가 좀처럼 털어놓기 어려운 비밀을 공개했다.<br/>벨기에 출신으로 패션 브랜드 ‘말버리’의 광고에 등장해 낯이 익은 오딜르는 미국 일간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의 성징을 모두 갖고 있었다며 자신이 이처럼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금기를 깨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내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XY염색체들을 여자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게 만드는 안드로겐 불감성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을 갖고 태어났으며 ‘인터섹스’였다고 털어놓았다. 몸 속에 있는 남성의 성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10세 때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18세 때는 여성 성기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br/>24일 오딜르의 인터뷰를 전한 영국 BBC는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이처럼 ‘인터섹스’로 태어난 이들이 세계 인구의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개했다. 오딜르는 “당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기를 깨는 것”이라며 “나이로나 시절로나 지금 이 순간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할 완벽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 성기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소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뭔가 잘못 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br/>또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수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섹스’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솔직했더라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남편이며 역시 모델인 존 스위어텍은 아내가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 “<span class='quot0'>믿기지 않을 만큼 자랑스럽다</span>”고 밝혔다. “한느와 그의 가족(과 많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정보와 선택의 기회는 부족했지만 스스로의 몸에 대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인터섹스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들을 옹호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br/>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5.txt

제목: [금융 특집] 삼성화재, 건강+손해보험 한번에… 100세까지 보장  
날짜: 20170123  
기자: 유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3034219002  
ID: 01100611.2017012303421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가 지난해 4월부터 판매 중인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보험업계의 올인원 상품이다. 사망, 장해, 진단비, 수술비, 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외에도 화재 위험, 배상 책임 등 손해보험 고유의 보장 내역까지 한 상품에 모두 담을 수 있다.<br/>15년마다 보장 내역을 재점검해 바꿀 수 있어 고객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하다.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된다. 특히 가입 후 15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상품에 상해 80% 이상의 후유장애나 질병 고도장애(1·2급)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br/>보험 기간 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 암이 전이 혹은 재발하면 재진단 때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고객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면 입원수술 시 20만원, 통원수술 시 10만원을 보상한다. 고객이 쌓은 적립금은 저축성보험으로 계약 전환해 만기 또는 해지 시 기간을 정해 나눠 받을 수도 있다.<br/>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6.txt

제목: [금융 특집] 미래에셋생명, 암·뇌출혈·심근경색 병력자도 보험 OK  
날짜: 20170123  
기자: 임주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3034213002  
ID: 01100611.2017012303421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은 점점 발생이 증가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4년 암 환자는 157만 7152명으로 2010년 94만 8336명에 비해 50%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617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평균 84%에 달한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과거 병력이 있는 중장년층도 사망과 암·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3대 질병을 보장받는 ‘간편하게 생활보장보험’을 출시했다.<br/>이 상품은 유병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간소화한 간편고지형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의사의 재진단이나 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안에 입원 또는 수술한 기록이 없고 ▲5년 안에 암으로 진단이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약을 먹어도 가입 가능하다.<br/>40~65세가 가입 가능하며 기존 유병자보험 상품보다 가입 나이를 낮춘 게 특징이다. 계약 후 15년이 지나면 5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최초계약 기간 15년은 최대 10년인 업계 평균보다 5년이나 길다.<br/>또 주계약 만기환급형을 선택하면 최초계약 만기 시점에 100만원을 지급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한다. 최종 만기 연령도 90세로 높였다.<br/>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7.txt

제목: “매운맛 즐기는 사람이 수명 더 길다” (美 연구)  
날짜: 2017012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2164156001  
ID: 01100611.2017012216415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칭할 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하지만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의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버몬트대학 연구진이 미국 내 성인 1만 6000명을 23년간 추적관찰한 전국보건-영양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운 붉은 고추(Hot red chilli peppers)를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13% 더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br/>연구가 진행된 23년간 사망한 사람은 4946명이었으며, 이중 매운 고추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적인 사망률이 13% 더 낮았다.<br/>연구 과정 속에서 나타난 매운 고추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했다. 매운 고추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나이가 더 젊었고, 음주와 흡연을 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고, 여성보다는 남성,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였다.<br/>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추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br/>연구진은 고추의 이런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다만, 고추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처럼 자극성이 강한 물질을 처리하며 일명 ‘캡사이신 리셉터’라 불리는 TRP(ransient receptor potential) 수용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br/>고추의 매운 성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br/>지난 해 12월, 독일 보훔대학 연구진은 악성 유방암 환자들의 몸에서 추출한 암세포에 캡사이신을 투여해 관찰한 결과, 암세포의 세포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암세포 상당수가 괴사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확인했다.<br/>생존 암세포들 역시 활동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체내에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진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냄새를 흡입하는 정도로는 암을 치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br/>매운 고추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8.txt

제목: “오래 앉아있는 여성은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 (연구)  
날짜: 20170122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2115629002  
ID: 01100611.2017012211562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앉아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됐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UC샌디에이고) 연구진이 미국 ‘여성건강계획연구’(WHI)에 참여한 64세 이상 여성 14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가 8세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br/>연구진은 평균 나이 79세인 이들 여성의 허리에 가속도계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한 주 동안 움직임을 추적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참가 여성들의 세포가 건강한지를 분석했다.<br/>그 결과, 참가 여성 중 덜 움직인 그룹은 세포 손상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br/>특히 더 오래 앉아있는 여성은 DNA 가닥 끝에서 노화방지 기능을 하는 텔로미어가 더 짧게 마모돼 있었다.<br/>이를 통해 연구진은 여성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했고,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신체 세포의 조기 노화가 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br/>이런 과정은 암과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br/>물론 하루 동안의 피해는 하루에 30분 만이라도 활발하게 걷거나 정원을 가꾸고 또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적절한 운동을 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br/>실제로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는 더 오래 앉아있는 여성 중 하루에 30분 만이라도 운동한 경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span>”고 말했다.<br/>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br/>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br/>연구진은 근무 시간의 평균 75%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보내는 사무직이나 택시 운전사, 또는 조종사 등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br/>연구를 이끈 알라딘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몸의 세포가 빨리 노화하는 것을 밝혀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실제 나이가 항상 생물학적 나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pan>”고 말했다.<br/>전문가들은 운동 부족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성인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30분씩 적절한 운동을 하거나 1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한다.<br/>하지만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br/>이에 대해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어렸을 때부터 운동의 혜택을 알고 운동이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 80세가 돼 있을 때도 일상이 돼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제 연구진은 남성들에게도 이번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br/>이 연구 결과는 ‘미국 역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사진=ⓒ Tom Wang / Fotoli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79.txt

제목: “마지막까지 웃겠어요”…병원에서 ‘댄스파티’ 연 암 환자  
날짜: 2017012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1151618001  
ID: 01100611.2017012115161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다. 고된 암 치료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환자의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br/>화제의 주인공은 알렉시아 아얄라(32)라는 이름의 한 미국 여성. 그녀는 2015년 희귀 자궁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넘도록 힘든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다.<br/>고통스러운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 세포는 온 몸으로 퍼져갔고, 그녀는 더 강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수 밖에 없었다.<br/>좌절하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이 여성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내기로 결심한 그녀는 자신의 친구와 이벤트를 기획했다.<br/>아얄라는 친구를 병원으로 부른 뒤 신나는 댄스파티를 벌였다. 머리도 모두 밀어버린 채 환자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음악에 맞춰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다.<br/>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올리며 “몸이 아프고 치료가 힘들어도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고 전했다.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됐다.<br/>그리고 지난 18일, 내내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br/>아얄라는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글을 통해 “병에 걸렸다고, 치료가 힘들다고 꼭 우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웃을 것”이라고 밝혔다.<br/>생의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가 남긴 여러 건의 ‘댄스 영상’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현지 언론에도 소개됐다. 웃음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br/><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0.txt

제목: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전자 쓰레기 38% 아시아에서 버려져  
날짜: 20170121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1001202001  
ID: 01100611.2017012100120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신 IT 기기가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분명 최신 버전의 기기를 구입했는데, 매뉴얼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또 최신 버전이 등장해 구매욕을 자극한다. 특히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끝없는 최신의 굴레’를 대표하는 IT 기기라 할 수 있다.<br/>‘얼리 어답터’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가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까지 점차 늘면서, 전 세계는 ‘전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br/>전 세계에서 전자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시아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IT 발전이 공존하는 아시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IT 기기가 유입되고, 사용되다가 결국 버려진다.<br/>지난 15일 유엔 산하 유엔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아시아 12개국의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총 1230만t에 달한다. 이는 5년 만에 무려 63%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전자제품 생산이 급증한 중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2배 이상 늘었다.<br/>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670만t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본(223만t), 한국(83만t), 인도네시아(81만t), 베트남(45만t) 순으로 조사됐다.<br/>물론 유럽도 전자 쓰레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유엔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버려진 전자 쓰레기는 4180t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전체 전자 쓰레기의 38%를 차지하는 1600만t을, 미국 대륙이 1170만t을 버려 나란히 불명예스러운 1, 2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전자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28.4㎏)였다.<br/>●구호 명분 삼아 폐기… 선진국서 저개발국으로<br/>세계 각국이 쏟아지는 전자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유독성 전자 쓰레기 수백t이 고철, 구리 등으로 둔갑해 태국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br/>당시 태국 당국이 적발한 전자 쓰레기는 주로 폐기된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으로, 그 양이 무려 196t에 이르렀다. 일본의 밀수출업자는 전국에 남아도는 전자 쓰레기를 팔아치우고, 태국의 밀수업자는 싼값에 전자 쓰레기를 들여와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부품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br/>아프리카 역시 전자 쓰레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유해 폐기물은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국가 간 이동 및 처리가 금지돼 있는데, 매년 전 세계 전자 쓰레기의 90%는 선진국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으로 ‘구호품’이라는 명목하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br/>실제 가나에서는 전자제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고품으로 값싸게 넘겨진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IT 기기로 확인됐다.<br/>●분리 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해결방법은?<br/>전자 쓰레기에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과 파라듐뿐만 아니라 귀금속인 금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 2014년 전 세계에서 버려진 전자 쓰레기에 섞인 위의 금속 자원은 무려 520억 달러(약 60조 6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br/>문제는 이 전자 쓰레기로부터 돈 되는 금속을 분해하기 위해 불에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가나의 ‘전자 쓰레기 산’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허용치의 45배 넘게 검출됐다.<br/>돈도 안 되고 건강과 환경에도 좋지 않은 ‘백해무익’ 독성물질도 수두룩하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CFC)는 물론이고, 정신질환과 암, 불임과 발달장애를 유발하고 간과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수은과 카드늄, 크롬 등도 다량 함유돼 있다.<br/>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 쓰레기의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다. 제조업체 혹은 국가가 나서 전자 쓰레기를 수거해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걸러내고, 이를 다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다.<br/>홍콩 정부는 지난해말, 전자제품 재활용 통합시설 운영의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 5곳의 지역에 전자 쓰레기 수거저장센터 및 더욱 빠른 처리를 돕는 위성센터 8개를 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시설의 도입으로 연간 약 3만t의 전자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독일 연방환경청은 소비자들이 생활 가전 등 전자 제품의 정확한 수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도 전에 그저 ‘오래 썼다’는 이유로 제품을 교체하는 습성이 있으며, 이것을 전자 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제조업체에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라벨로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br/>뉴욕은 강경 정책을 내놓았다. 2015년부터 전자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는 한편,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대형 창고를 지정해 수거율을 높이고 있다.<br/>인열폐식(因?廢食), 목이 멜까 봐 식사를 끊는다는 뜻이다. 전자 쓰레기를 걱정해 전자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 다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고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순기능을 기대한다면, 제조업체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나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br/>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1.txt

제목: “문체부 직원들, 썩을대로 썩었다”…박사모, 조윤선 사퇴 건의에 격분  
날짜: 20170120  
기자: 장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0222636001  
ID: 01100611.20170120222636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문체부 직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br/>박사모 회원들은 20일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체부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br/>박사모의 한 회원은 “문체부 직원들 항명. 조윤선장관 사퇴촉구라니”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장관직 내려놓아라 사퇴하라(하는) 내부직원들. 반란 일으키고 분열노리는 문체부 하극상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br/>이어 “조윤선 장관에게 힘을 못 실어 줄 정 등 뒤에 총을 쏘고 난도질이라니. 썩을 대로 썩었다”고 비판했다.<br/>다른 박사모 회원들도 이 회원의 글에 동조하며 “대중 무현 할 때부터 키워온 좌빨들. 이제는 암 덩어리로 키웠다. 암 덩어리 제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임자”, “문체부 내에서도 좌파공무원들 많다. 나라가 좌파들의 선동에 좌파 성향이 돼가고 있다”, “아랫사람들조차도 모조리 좌파들이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2.txt

제목: “젊음 유지 비결? 7시간 자고, 해초·커피 먹어라”  
날짜: 20170120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20163134001  
ID: 01100611.2017012016313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자고 해초를 먹고 커피 몇 잔을 마시면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빨리 나이 들어 생물학적으로 5세 정도 더 늙는다”<br/>이는 텔로미어와 이를 만드는 효소 텔로머라아제의 기능을 밝혀 노벨상을 받았던 한 저명한 생물학자의 최신 조언이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9일(현지시간) 세계적인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 교수가 같은 대학 교수 엘리사 에펠 박사와 함께 출간한 신간 ‘텔로미어의 효과’(The Telomere Effect)를 통해 공개한 젊음 유지 비결이다.<br/>이는 두 교수가 전하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식이요법)나 생활습관 개선에 의존하지 않고 텔로미어에 관한 자신들의 다년간 연구로 알 수 있었던 교훈을 공개한 것이다.<br/>여기서 텔로미어는 구두끈 끝이 풀리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싸매는 것처럼,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말단부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점점 풀리며 그 길이도 조금씩 짧아지고 이 때문에 세포는 점차 노화해 죽게 되는 것이다.<br/>이미 텔로미어는 암과 심장질환, 치매, 그리고 당뇨병 등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br/>그런데 이런 텔로미어의 길이를 급격히 줄이는 요인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의 요요현상, 흰 빵과 설탕 섭취 등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br/>물론 텔로미어의 마모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br/>블랙번 교수는 “<span class='quot0'>지중해식 식사를 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해초를 먹으며, 몇 잔의 커피를 마시면 다시 텔로미어를 유지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span>”고 설명했다.<br/>또한 “텔로미어 연구로 얻게 된 여러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교훈을 학술지에 묻어두기 보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r/>사진=ⓒ 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3.txt

제목: 누텔라 한 통에 담긴 우리가 몰랐던 진실  
날짜: 20170119  
기자: 안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9152651002  
ID: 01100611.20170119152651002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사람들은 누텔라 한 병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없다면 이 사진이 다소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다.<br/>이번 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텔라의 주재료가 상세히 나와 있는 사진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미국 거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서는 2만87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br/>사진 속 누텔라의 이면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초콜릿 헤이즐넛 스프레드 대신 팜유, 코코아, 헤이즐넛, 탈지분유와 설탕, 딱 다섯가지 주요 성분으로 채워져있다.<br/>각 재료가 일정한 비율로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병의 반이 흰 설탕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다.<br/>누텔라 홈페이지의 영양 정보에 따르면, 스프레드 1큰술당(15g) 8.5g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즉 400g인 한병에 무려 227.2g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의미다.<br/>누텔라 측은 인터넷을 휩쓸고 있는 사진 속 재료 비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성명을 통해 "누텔라 제조법은 독특해서 이를 보호하고 싶기에 재료의 전체 구성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br/>그 다음으로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가 팜유인데, 이를 두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br/>지난해 5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식물성 기름 팜유, 팜유지에 포함된 글리시딜-지방산에스테르(GE)등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유아에게 치명적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누텔라는 팜유가 아닌 다른 기름으로는 누텔라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연출할 수 없고, 발암력이 없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br/>실제 초콜릿 스프레드는 팜유를 필요로 하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기름 중에 팜유가 가장 저렴하고 상당히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채씨나 해바라기씨유로 바꿀 경우 연간 95억~26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br/>누텔라 제조업자들은 "영양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신념 중 하나가 바로 적은 제공량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맞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상품에 붙은 라벨은 소비자가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돕고, 누텔라를 균형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즐길 수 있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준다"고 말했다.<br/>최근 암 유발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절대적인 최우선사항이며, EFSA의 방침에 의거해 원자재 선택시 품질을 신경쓰고, 명확한 산업공정을 적용한다. 또한 품질 관리팀이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한 물질들을 항상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이유로 누텔라를 비롯한 페레로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br/>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4.txt

제목: “오래 앉아 있으면 빨리 늙는다…최대 8세”(연구)  
날짜: 2017011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9110704001  
ID: 01100611.201701191107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앉아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됐다.<br/>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캠퍼스(UC샌디에이고) 연구진이 미국 ‘여성건강계획연구’(WHI)에 참여한 64세 이상 여성 14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가 8세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br/>연구진은 평균 나이 79세인 이들 여성의 허리에 가속도계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한 주 동안 움직임을 추적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참가 여성들의 세포가 건강한지를 분석했다.<br/>그 결과, 참가 여성 중 덜 움직인 그룹은 세포 손상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br/>특히 더 오래 앉아있는 여성은 DNA 가닥 끝에서 노화방지 기능을 하는 텔로미어가 더 짧게 마모돼 있었다.<br/>이를 통해 연구진은 여성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했고,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신체 세포의 조기 노화가 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br/>이런 과정은 암과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br/>물론 하루 동안의 피해는 하루에 30분 만이라도 활발하게 걷거나 정원을 가꾸고 또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적절한 운동을 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br/>실제로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는 더 오래 앉아있는 여성 중 하루에 30분 만이라도 운동한 경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span>”고 말했다.<br/>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br/>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br/>연구진은 근무 시간의 평균 75%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보내는 사무직이나 택시 운전사, 또는 조종사 등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br/>연구를 이끈 알라딘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몸의 세포가 빨리 노화하는 것을 밝혀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실제 나이가 항상 생물학적 나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pan>”고 말했다.<br/>전문가들은 운동 부족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성인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30분씩 적절한 운동을 하거나 1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한다.<br/>하지만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br/>이에 대해 샤디아브 박사는 “<span class='quot0'>어렸을 때부터 운동의 혜택을 알고 운동이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 80세가 돼 있을 때도 일상이 돼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제 연구진은 남성들에게도 이번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br/>이 연구 결과는 ‘미국 역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사진=ⓒ Tom Wang / Fotoli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5.txt

제목: 명상 한 걸음 사색 한 걸음… 구로구에 ‘더불어 숲길’  
날짜: 20170119  
기자: 이범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9034243003  
ID: 01100611.20170119034243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지난해 1월 15일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느낀 소회와 고뇌를 편지 형식으로 적어 내놓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스테디셀러다.<br/>신영복은 ‘변방을 찾아서’,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하며 시대의 지성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주 ‘처음처럼’도 그의 글씨체로 친숙하다.<br/>서울 구로구가 신 전 교수의 1주기를 맞아 ‘더불어 숲길’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올곧은 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에게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br/>‘더불어 숲길’은 신 전 교수가 재직했던 성공회대 뒷산에 길이 480m, 폭 2m로 조성된 산책로다. 이름 또한 세계 22개국을 여행한 기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의 가치를 담은 신 전 교수의 대표적 저서 ‘더불어 숲’에서 착안해 명명했다.<br/>숲길 전 구간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았다. 산책 도중 쉴 수 있는 등의자도 설치했다. 특히 ‘더불어 숲길’의 주인공인 신영복 교수가 생전에 직접 쓴 서화작품 31점을 안내판 형식으로 해놔 주민들의 눈길을 끈다.<br/>‘더불어 숲길’은 인근 푸른수목원, 구로올레길 3코스와도 연결돼 올레길 최고의 코스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구로구는 푸른수목원을 확장하고 이 일대를 ‘더불어 숲’으로 이름 붙일 예정이다.<br/>이성 구로구청장은 “<span class='quot0'>‘더불어 숲길’이 사색과 명상의 길, 신영복 교수의 참된 뜻을 함께 느껴 보는 길이 되길 바란다</span>”고 전했다.<b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6.txt

제목: [송혜민의 월드why] ‘스마트폰의 눈물’…쓰다 버린 스마트폰의 운명  
날짜: 20170118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8134205001  
ID: 01100611.201701181342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신 IT 기기가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분명 최신 버전의 기기를 구입했는데, 매뉴얼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또 최신 버전이 등장해 구매욕을 자극한다. 특히 현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끝없는 최신의 굴레’를 대표하는 IT기기라 할 수 있다.<br/>‘얼리 어답터’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IT기기가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까지 점차 늘면서, 전 세계는 ‘전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br/>전 세계에서 전자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시아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IT발전이 공존하는 아시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IT기기가 유입되고, 사용되다가 결국 버려진다.<br/>지난 15일 유엔 산하 유엔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아시아 12개국의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총 1230만t에 달한다. 이는 5년 만에 무려 63%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전자제품 생산이 급증한 중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2배 이상 늘었다.<br/>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670만t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본(223만t), 한국(83만t), 인도네시아(81만t), 베트남(45만t) 순으로 조사됐다.<br/>물론 유럽도 전자 쓰레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유엔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버려진 전자 쓰레기는 4180t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전체 전자 쓰레기의 38%를 차지하는 1600만t을, 미국 대륙이 1170만t을 버려 나란히 불명예스러운 1, 2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전자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28.4㎏)였다.<br/>◆구호 명분 삼아 폐기…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br/>세계 각국이 쏟아지는 전자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유독성 전자 쓰레기 수백t이 고철, 구리 등으로 둔갑해 태국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br/>당시 태국 당국이 적발한 전자 쓰레기는 주로 폐기된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으로, 그 양이 무려 196t에 이르렀다. 일본의 밀수출업자는 전국에 남아도는 전자 쓰레기를 팔아치우고, 태국의 밀수업자는 싼 값에 전자 쓰레기를 들여와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부품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br/>아프리카 역시 전자 쓰레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유해 폐기물은 국제협악인 ‘바젤협약’에 따라 국가 간 이동 및 처리가 금지돼 있는데, 매년 전 세계 전자 쓰레기의 90%는 선진국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으로 ‘구호품’이라는 명목 하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br/>실제 가나에서는 전자제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고품으로 값싸게 넘겨진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IT 기기로 확인됐다.<br/>◆분리 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해결방법은?<br/>전자 쓰레기에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과 파라듐 뿐만 아니라 귀금속인 금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 2014년 전 세계에서 버려진 전자 쓰레기에 섞인 위의 금속 자원은 무려 520억 달러(약 60조 6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br/>문제는 이 전자 쓰레기로부터 돈 되는 금속을 분해하기 위해 불에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가나의 ‘전자 쓰레기 산’ 토양에서는 중금속이 허용치의 45배 넘게 검출됐다.<br/>돈도 안 되고 건강과 환경에도 좋지 않은 ‘백해무익’ 독성물질도 수두룩하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CFC)는 물론이고, 정신질환과 암, 불임과 발달장애를 유발하고 간과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수은과 카드늄, 크롬 등도 다량 함유돼 있다.<br/>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 쓰레기의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다. 제조업체 혹은 국가가 나서 전자 쓰레기를 수거해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걸러내고, 이를 다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다.<br/>홍콩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자제품 재활용 통합시설 운영의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 5곳의 지역에 전자 쓰레기 수거저장센터 및 더욱 빠른 처리를 돕는 위성센터 8개를 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시설의 도입으로 연간 약 3만t의 전자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독일 연방환경청은 소비자들이 생활 가전 등 전자 제품의 정확한 수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도 전에 그저 ‘오래 썼다’는 이유로 제품을 교체하는 습성이 있으며, 이것이 전자 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제조업체에게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라벨로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br/>뉴욕은 강경정책을 내놓았다. 2015년부터 전자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는 한편,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대형 창고를 지정해 수거율을 높이고 있다.<br/>인열폐식(因噎廢食), 목이 멜까봐 식사를 끊는다는 뜻이다. 전자 쓰레기를 걱정해 전자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 다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순기능을 기대한다면, 제조업체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나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7.txt

제목: 김경숙 前 학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놔달라”  
날짜: 20170117  
기자: 이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104714001  
ID: 01100611.2017011710471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br/>김 전 학장은 이날 영장심사 시작 약 25분 전인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br/>미리 기다린 취재진이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br/>‘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느냐.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씨를) 모르고 지냈다. 2015년 8∼9월 이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br/>그는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내는 가운데 “좀 들어가겠다. 놔달라”며 주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br/>이날도 김 전 학장은 12∼13일 특검 사무실에 나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처럼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이었다.<br/>그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는 안경을 끼고 혈색 좋은 모습이었으나 검찰 조사 때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 암 수술 전력을 언급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br/>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14일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br/>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br/>김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88.txt

제목: 브라질 여성들이 태양을 즐기는 법…테이프 선탠  
날짜: 2017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091210001  
ID: 01100611.20170117091210001  
카테고리: 국제>중남미  
본문: 한여름을 맞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테이프를 이용한 선탠이 유행하고 있다.<br/>'테이프 선탠'이란 말 그대로 비키니 대신 테입으로 몸을 가리고 자외선으로 피부를 태우는 기법. 비키니를 입을 때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자국을 남길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br/>에리카 로메로는 선탠을 위한 테이핑 전문가다.<br/>리우데자네이루 서부 레알렝고에 있는 그의 집엔 매일 여성 수십 명이 몰려든다. 로메로의 테이핑으로 은밀한 곳을 살짝 가린 여성들은 테라스에서 일광욕을 즐긴다.<br/>테이프를 몸에 붙인 여성들이 선탠을 즐기는 시간은 약 3시간. 로메로는 테이핑과 장소를 제공하고 20달러(약 2만3500원)를 받는다.<br/>지난해 여름 매출 2만4000달러(약 2840만원)를 올린 로메로는 올 여름 매출목표를 3만 달러(약 3550만원)로 늘려 잡았다.<br/>로메로는 "<span class='quot0'>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매출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브라질에서 시작된 테이프 선탠은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br/>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주변국에서도 테이프 선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br/>문제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피부암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br/>유난히 선탠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브라질에서 피부암은 가장 흔한 암이다. 브라질 암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6~2017년 여름 시즌 피부암에 걸리는 여성이 9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br/>21차 이베로-라틴아메리카 피부학회의 대표 페르난도 가티는 "<span class='quot1'>대낮에는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걸 피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노출이 불가피할 때는 최소한 SPF 30 정도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br/>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언론사: 서울신문-4-689.txt

제목: [이상욱의 암 연구 속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상 진단법  
날짜: 2017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034252001  
ID: 01100611.201701170342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에서 영상 진단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비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암 치료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두 영상 장비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모두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CT나 MRI는 암 진단 및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법으로 자리잡았다. 일반인에게도 CT나 MRI를 검사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br/>이 검사법들은 종양이 재발했는지 판단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에도 이런 검사법들은 필수적이다. 몸 안에 존재하는 종양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종양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쬘 수 있기 때문이다.<br/>이처럼 의학 영상 진단법의 발전은 종양치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몸 안 구석구석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영상획득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종양에 대한 영상 진단법의 발전은 필요가 없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지금의 영상 진단법은 암 덩어리에 대한 진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암세포가 뭉쳐 자라면서 그 덩어리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커졌을 때만 영상 진단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가 환자 몸 안에 존재하는지는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종양에 대한 영상 진단법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일반 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가끔식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들이 MRI 검사에서 “종양이 없다”고 진단받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검사법도 암세포 단위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영상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 암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몇몇 연구자들이 차세대 암 영상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다음으로 CT나 MRI에서 암 덩어리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직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암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덩어리가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진단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양전자단층촬영(PET-CT)이란 진단법으로, 촬영 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따라서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의 섭취율이 높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다. 포도당 성분과 유사한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면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하지만 PET-CT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종양세포에만 방사성 의약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ET-CT 검사를 했을 때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구분이 애매한 사례가 가끔씩 발견된다. 또 종양의 크기가 최소한 직경 5㎜ 이상은 돼야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도 있다.<br/>그동안 암 치료 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지만 인류의 암 정복을 위해서는 암세포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영상 진단법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MRI나 초음파 같은 새로운 영상 진단법들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마도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영상 진단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자는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언론사: 서울신문-4-690.txt

제목: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과대 포장된 카레 속 ‘쿠르쿠민’ 효능  
날짜: 20170117  
기자: 유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034235001  
ID: 01100611.2017011703423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도에서 태어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식, 바로 ‘카레’입니다.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는 카레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7대 웰빙 음식’ 중 하나로 소문나면서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레가 뇌세포 활동을 증진시켜 준다고 해 수험생들이 시험 전에 반드시 챙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br/>카레의 주재료는 강황이라는 황금색 향신료인데 여기에 함유된 ‘쿠르쿠민’이란 물질이 항염, 항산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 각종 암은 물론 치매 같은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br/>많은 사람이 강황과 울금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강황과 울금은 같은 식물이지만 강황은 뿌리줄기, 울금은 덩이뿌리로 다르다고 합니다. 또 강황은 카레의 원료로, 울금은 한약재로만 쓰인다고 하네요.<br/>●美 “검증된 적 없다” 논문 발표 화제<br/>그런데 미국 미네소타대, 하버드의대 부설 브리검여성병원, 일리노이대 약대 공동연구진이 “<span class='quot0'>쿠르쿠민의 치료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다</span>”는 내용의 논문을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메디컬 케미스트리’ 11일자에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은 “쿠르쿠민은 지금까지 발기부전, 탈모, 암,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돼 왔으며 이와 관련한 수천건의 논문과 120번 이상의 임상시험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br/>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위해 특정 물질의 약효를 검증할 때는 ‘특정 화합물이 질병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반응하는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합물은 실제 약효는 없지만 질병 단백질과 결합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답니다. 쿠르쿠민이 그런 화합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br/>강황의 추출물 중에는 쿠르쿠민 말고도 수십개의 화합물이 있고 그것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약효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운 뒤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br/>그런데 쿠르쿠민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이 유독 기존 문헌에 나오는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르쿠민의 효능에 대해 과장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2009년 이후 15편 이상 쿠르쿠민 관련 논문이 철회됐고 내용이 수정된 것도 수십편에 이른다고 합니다.<br/>●기존 문헌 맹신에 연구 결과 왜곡 가능성<br/>쿠르쿠민이나 강황 추출물이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강황과 쿠르쿠민의 효능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교한 실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교신저자인 마이클 월터스 미네소타대 의약화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논문이 엉성하게 수행되는 연구들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span>”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작 논문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이번 논문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요.<br/>이번 논문은 엄격한 논리 구조를 가진 과학에서도 선입견, 기존 결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 무신경함과 고집스러움이 개입될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선입견, 맹종, 고집스러움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일 것입니다.<br/>edmondy@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1.txt

제목: “EU시장 접근권 안주면 英 법인세 대폭 낮춰 조세회피처로 만들 것”  
날짜: 20170117  
기자: 하종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034221002  
ID: 01100611.20170117034221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인세를 대폭 낮춰 영국이 유럽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U 시장 내에서 기존과 같이 영국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은 향유하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EU와의 경제 전쟁이 예상된다.<br/>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 암 스타그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영국은 유럽식의 조세 시스템과 규제 제도를 따르는 유럽식 경제 체제로 남기를 원하지만 단일시장 접근권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경제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단일시장 이탈 후 부과될 EU 관세에 대비해 영국에 기반을 둔 사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대거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해먼드는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조세 회피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span class='quot1'>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span class='quot2'>이는 유럽에 일종의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며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의미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탈퇴 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EU로부터의 이민 통제, 단일시장 접근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br/>해먼드의 강경 입장은 오는 17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세부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의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br/>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파운드화는 16일 오전 아시아 거래에서 1.6% 하락한 1.198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브렉시트 투표 이후 달러 대비 19.4% 떨어진 것이며 파운드화 가치가 1.2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br/>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2.txt

제목: 암환자 자살 시도 위험 일반인보다 3.3배 높아  
날짜: 20170117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7034154002  
ID: 01100611.2017011703415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br/>박기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팀은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1만 59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포괄적정신의학’ 최근 호에 실렸다.<br/>단순히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만성질환자가 일반인보다 1.16배 높았다. 2가지 이상의 질환이 있으면 1.2배로 늘었다. 질환별로는 골관절염 환자가 1.3배, 뇌졸중 환자가 1.8배 높았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암 환자가 일반인보다 3.3배 많았다. 다른 질환도 골관절염 2.1배, 협심증 3.9배, 신부전 4.9배, 폐결핵 12.5배 등의 순서로 높았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3.txt

제목: [건강을 부탁해] ‘매운맛’은 억울해? 수명과 연관관계  
날짜: 20170116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6174719001  
ID: 01100611.2017011617471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칭할 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하지만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의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버몬트대학 연구진이 미국 내 성인 1만 6000명을 23년간 추적관찰한 전국보건-영양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운 붉은 고추(Hot red chilli peppers)를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위험이 13% 더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br/>연구가 진행된 23년간 사망한 사람은 4946명이었으며, 이중 매운 고추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적인 사망률이 13% 더 낮았다.<br/>연구 과정 속에서 나타난 매운 고추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했다. 매운 고추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나이가 더 젊었고, 음주와 흡연을 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고, 여성보다는 남성,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였다.<br/>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추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br/>연구진은 고추의 이런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다만, 고추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처럼 자극성이 강한 물질을 처리하며 일명 ‘캡사이신 리셉터’라 불리는 TRP(ransient receptor potential) 수용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br/>고추의 매운 성분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br/>지난 해 12월, 독일 보훔대학 연구진은 악성 유방암 환자들의 몸에서 추출한 암세포에 캡사이신을 투여해 관찰한 결과, 암세포의 세포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암세포 상당수가 괴사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확인했다.<br/>생존 암세포들 역시 활동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체내에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진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냄새를 흡입하는 정도로는 암을 치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br/>매운 고추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 <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4.txt

제목: [월드피플+] 뚱뚱한 발레리나, 아름다움과 편견에 대해  
날짜: 20170116  
기자: 안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6150142001  
ID: 01100611.20170116150142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아름다움을 논하는데 있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깡마른 몸매의 소유자만 발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한 십대 발레리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br/>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플러스 사이즈 발레리나를 소개했다.<br/>미국 델라웨어주 밀퍼드에 사는 리지 하웰(15). 5살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한 리지는 10년간 발레를 연습해왔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재즈와 탭댄스를 하고, 지역 행사에 참가할 정도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의 플러스 사이즈는 춤을 추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br/>지난 11월 자신의 춤추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했는데, 그 중 연속 푸에테 회전을 연습하는 영상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br/>발레 기술 중 하나인 푸에테는 한쪽 발을 축으로 하고 발끝으로 서서 다른 한쪽 발을 올려 크게 흔들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말한다. 영상 속 적갈색의 레오타드와 타이즈를 입은 리지는 힘들이지 않고 11번의 회전 동작을 선보인다.<br/>그녀의 동영상은 75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2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당당한 자신감과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모든 여성들의 롤 모델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br/>반면 '암에 걸릴 것이다', '얘들아, 이것이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꽤 있었다. 이런 댓글에도 그녀는 '토네이도를 말하는 거냐'라며 응수하는 여유를 보였다.<br/>리지는 "<span class='quot0'>특히 모든 사이즈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좋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영감을 준다는 언급이 나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든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플러스 사이즈의 사람들은 춤을 출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남길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br/>그녀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춤에 대한 나의 열정"이라고 덧붙였다.<br/>또한 "고정관념은 깨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말을 강조하며 사이즈 때문에 꿈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 소녀들에게 충고했다.<br/>'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당신은 그들보다 두 배 더 노력해야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이다.<br/>사진=페이스북, 인스타그램(리지댄스)<br/><br/>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5.txt

제목: [단독] “장기 5곳 잘라내고도 3500㎞ 완주… 짧고 굵게 살다간 아들은 꿈 이뤘죠”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6034157001  
ID: 01100611.2017011603415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사람들이 그럽디다. 희귀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떻게 아픔을 달래고 살았느냐고, 불쌍하다구요. 전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윤혁이는 엄마인 제게도 기적을 남겼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가르침 말입니다.”<br/>●‘근육 종양’ 전 세계 200여명뿐<br/>8년 전 생존율 5%의 희귀암으로 아들을 잃은 김성희(64)씨를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아들 고 이윤혁씨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던 2009년 국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코스에 도전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길을 달려 보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완주했다. 이씨의 사이클 도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이 다음달 개봉한다. “삶과 죽음은 누구나 겪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짧고 굵게 살다 먼저 앞서갔을 뿐입니다.” 김씨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결연함도 묻어 있었다.<br/>윤혁씨는 23세이던 2006년, ‘결체 조직 작은 원형 세포암’ 말기(4기) 판정을 받았다. 전 세계에 환자가 고작 200여명뿐이라는 희귀암이다. 육종암의 일종으로 내장이 아닌 근육이나 지방에 악성 종양이 생긴다. “당시에 3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혁이는 4년을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무척 대견하고 감사합니다.”<br/>김씨는 인터뷰 내내 오래된 핑크색 폴더폰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아들이 대학 시절 사준 선물이라고 했다. 아마추어 보디빌더 선수로, 체육 교사의 꿈을 키우던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장기 5곳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항암치료는 25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암은 집요하게 재발했다.<br/>“어느 날 윤혁이가 ‘생존에 매달리는 대신 꿈꾸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3500㎞에 육박하는 거리를 달려 보겠다는 겁니다. 얘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결국 ‘넌 꼭 해낼 거야’라고 말하고 보냈습니다.”<br/>2009년 7월 4일 이씨는 ‘투르 드 프랑스’의 출발점인 모나코에 섰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거쳐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었고 47일 만인 8월 20일 파리 개선문에 도착했다. “암환자가 선수들도 낙오하는 3500㎞를 완주했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br/>귀국 후 이씨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고, 완주의 꿈을 이룬 지 채 1년이 넘지 않은 2010년 7월 15일 김씨의 품에 안겨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다는 건 늪으로 기어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담석까지 생겼지만 하루도 마음 편히 입원도 하지 못했죠. 베갯잇을 구겨 넣으며 넋 놓고 울다가 실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혁이의 완주를 보며 ‘주어진 기간은 달라도 모두에게 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br/>한식 요리사인 김씨는 꿈을 현실로 만든 아들을 보며 자신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고 했다.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봉사를 나가는 목표가 생겼고, 죽을 때는 꼭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결심도 했다.<br/>●윤혁씨 다큐영화 ‘뚜르’ 새달 개봉<br/>“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자전거를 탄 아들이 안갯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마치 암이 없는 하늘로 윤혁이가 달려가는 모습 같습니다. 잠깐의 여행이었지만 그 누구도 아닌 엄마에게 와서 큰 선물을 주고 간 윤혁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br/>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6.txt

제목: 특검 ‘정유라 이대 입학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날짜: 20170114  
기자: 오세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4211709001  
ID: 01100611.20170114211709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br/>특검이 이날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증 혐의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한 정씨가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br/>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정씨에게 학교 측이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저자이기도 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span class='quot0'>김 전 학장이 3번 부탁해 최순실·정유라를 만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김 교수가 (정씨에 대해) ‘정윤회 딸이라 도와야 된다’ 말했다</span>”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br/>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정씨의 특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김 전 학장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해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br/>지난 12∼13일 이틀 연속 피의자로 김 전 학장을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이 국회 청문회 때와 달리 병색을 완연히 드러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등장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을 쓰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으나 특검팀은 죄질을 무겁게 보고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했다.<br/>이화여대의 정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과 류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br/>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추가 조사한 뒤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b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7.txt

제목: 스웨덴 지성이 마지막 2년간 찾은 삶의 의미  
날짜: 20170114  
기자: 함혜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4034155001  
ID: 01100611.2017011403415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사람으로 산다는 것/헨닝 망켈 지음/이수연 옮김/뮤진트리/460쪽/2만 2000원<br/>전 세계적으로 4000만부 이상 팔리고 40여개 언어로 번역된 ‘빌란드 시리즈’를 비롯해 수많은 화제작을 남긴 스웨덴의 대표 작가 헨닝 망켈. 그는 30년 동안 모잠비크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기아와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연극 연출가로, 반핵 활동가로도 헌신적인 삶을 보냈다.<br/>망켈은 2014년 불치의 암 진단을 받았고, 2년이 채 안 되는 투병 기간을 보낸 뒤 2015년 67세로 타계했다. 시한부 삶을 살았던 그는 마지막 시간 동안 몇 가지 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지나온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고 부단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삶을 반추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다. 암투병 초기 망켈은 자신을 덮친 감정의 혼란 속에서 종종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곤 했다. 한 살 때 어머니가 가족을 떠난 후 평범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아홉 살이던 해의 추운 겨울날 아침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예기치 않은 통찰의 순간을 경험한다. “나는 나일 뿐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나다.” 그는 모래알들이 사람을 삼키는 사막의 모래늪에 대한 어린 시절의 공포도 떠올렸다.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공포는 다시 나타났다. 정체성에 눈떴던 순간의 기억으로 모래늪에 빠진 것 같은 공포를 극복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br/>망켈은 판사였던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이곳저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6세에 학교를 자퇴하고 화물선에서 노무자 생활을 하고 파리에 가서 보헤미안처럼 살다가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극장의 무대 담당 스태프로 일하며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973년 노동조합운동을 소재로 한 첫 소설 ‘바위 발파공’을 발표했고 그 즈음 아프리카를 여행했다. 많은 여행은 그에게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소설과 희곡을 집필하며 연극연출을 병행하던 망켈은 1986년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에 있는 극단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부터 한 해의 절반을 아프리카에 머물렀다. 아프리카는 불평등에 대한 그의 분노를 더 깊고 날카롭게 만들었다.<br/>인종 간의 차별, 사회적 불평등, 식민지배의 잔재, 여성의 희생, 불행한 거리의 아이들에 관한 인식은 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동인으로 평생 활동해 온 행동하는 지식인의 삶의 기록이자 사람으로 태어나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br/>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8.txt

제목: 시력 저하·암·혈액 등 4개 질환 장애연금 지금보다 빨리 받는다  
날짜: 20170114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4034126002  
ID: 01100611.2017011403412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암으로 장애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br/>개정안에 따르면 시력 장애와 루게릭병 등 사지마비 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 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br/>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 눈에 시력 저하나 시야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한편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을, ‘완치일’은 완전히 질병을 치유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는 날을 의미한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699.txt

제목: ‘맨몸의 소방관’ 첫방 이준혁, 열혈 소방관 강철수로 완벽 변신 ‘눈길’  
날짜: 20170113  
기자: 임효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3100716001  
ID: 01100611.2017011310071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맨몸의 소방관’ 이준혁이 열혈 소방관 강철수로 열연하며 단번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br/>지난 12일 첫 방송된 KBS2 4부작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에서는 불길을 뚫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장광호(이원종 분)의 모습에 매료돼 소방관이 된 열혈 청년 강철수(이준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br/>강철수는 롤모델 장광호가 암에 걸려 소방관을 그만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설상가상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까지 미루게 된 장광호를 위해 누드모델을 자처했다. 상체에 화상 흉터가 있어야 누드모델이 가능하다는 독특한 조건에 부합한 이준혁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 오성진(박훈 분)의 신분을 빌려 소방관임을 숨기고 수상한 상속녀 한진아(정인선 분)와 얽히게 됐다.<br/>하지만 이 모든 일은 10년 전 화재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한진아가 꾸민 함정이었다. 극 말미에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 권정남(조희봉 분)이 오성진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게 되면서 신분을 빌린 강철수가 범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br/>이 날 방송을 통해 이준혁은 능청스럽고 실없는 연기를 현실감 넘치게 표현해내며 극에 재미를 더했다. 그동안 보여준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한 회 방송만으로 쾌활하면서도 듬직한 강철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br/>한편, KBS2 4부작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은 다음주 수, 목 오후 10시에 방송된다.<br/>사진제공=KBS2 ‘맨몸의 소방관’ 방송 캡처<br/>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0.txt

제목: 40대 시한부 남성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  
날짜: 20170112  
기자: 송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2160717001  
ID: 01100611.2017011216071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이번 생에 남은 시간이 단 몇 개월뿐이라면,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을까?<br/><br/>영국의 40세 남성 닉 로즈는 지난 9개월간 끔찍한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암)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암세포는 순식간에 뼈부터 폐까지 전이 됐지만, 그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힘든 화학치료도 마다하지 않았다.<br/><br/>의료진도, 환자 본인도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닉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죽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올해 네 살이 된 아들 로건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었다.<br/><br/>아이를 낳은 뒤 행방을 감춘 로건의 엄마 대신, 닉은 로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닉은 그런 아들이 자신 없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길 원했다. 또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들을 사랑으로 돌봐 줄 새 가족을 보고 싶었다.<br/><br/>그는 고된 치료 일정에도 아들 로건을 입양해 줄 가족 ‘후보’를 찾아다녔고, 결국 로건의 새 가족이 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양부모를 찾았다.<br/><br/>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닉은 영영 아들 곁을 떠나고 말았다.<br/><br/>닉의 지인은 “<span class='quot0'>아들은 닉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는 끝까지 용감하게, 아들의 새 가족을 찾는 일에 남은 시간을 썼다</span>”고 전했다.<br/><br/>현재 로건은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로건의 학비 등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br/><br/>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1.txt

제목: 김경숙 특검 출석…취재진 전화 가슴에 닿자 “이쪽은 안 된다”  
날짜: 20170112  
기자: 김유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2133639001  
ID: 01100611.20170112133639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한 달 전 국회 청문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br/>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1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김 전 학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에 안경을 벗고,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다.<br/>김 전 학장을 겨우 알아본 취재진 한 명이 질문을 시작했지만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몰려든 취재진의 휴대전화가 가슴 부위에 닿자 김 전 학장은 “<span class='quot0'>이쪽은 안 된다, 여기 수술한…</span>”이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br/>김 전 학장은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본인은 2016년 6월 20일에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항암치료 중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수반하는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을 겪고 있다</span>”고 밝혔다.<br/>이어 “통원 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1월 4일 오후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br/>일각에서는 김 전 학장이 암 환자인 점을 들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br/>특검은 학사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2.txt

제목: 적당히 먹으면 살 빠져…‘0칼로리 푸드’ 23가지  
날짜: 20170111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1135636002  
ID: 01100611.20170111135636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어떤 음식은 가진 칼로리(열량)보다 씹고 소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더 많다. 이는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에 돌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이른바 ‘제로 칼로리 푸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셀러리’가 있다. 이런 식품은 생각보다 더 많다.<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시간) ‘제로 칼로리 푸드’로 불리는 식품 23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br/>1. 사과 47㎉(100g)<br/>하루 사과 한 개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오래된 속담처럼 사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풍부하게 들었다. 비타민C와 A 등 필수 비타민으로 가득한 사과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br/>2. 살구 12㎉(1개)<br/>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C와 칼륨, 식이섬유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영양소 역시 심장 건강을 증진한다.<br/>3. 아스파라거스 6㎉(1줄기)<br/>비타민A, C, E, K와 같은 필수 비타민과 섬유질로 가득 차 있으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br/>4. 비트 36㎉(100g)<br/>철분과 엽산의 좋은 공급원이 되며 항산화물질도 풍부하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운동 능력을 개선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br/>5. 브로콜리 33㎉(100g)<br/>비타민K와 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칼륨과 섬유질도 풍부하다. 이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도 많아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br/>6. 콜리플라워(꽃양배추) 3㎉(작은꽃 1개)<br/>한 접시의 콜리플라워는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100㎎)의 약 77%를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필수 비타민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br/>7. 셀러리 2㎉(1줄기)<br/>주성분이 물이어서 먹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다.<br/>8. 크랜베리 15㎉(100g)<br/>비타민C뿐만 아니라 섬유질, 망간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항산화 물질 또한 많이 들어있다.<br/>9. 물냉이 4㎉(¼다발)<br/>뼈와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K와 A의 함량이 높다. 약효 성분이 있다고 여겨지며, 항암 효과가 밝혀진 화합물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br/>10. 오이 6㎉(1인치 조각)<br/>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건강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 유지는 물론 심장과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br/>11. 펜넬(회향) 12㎉(100g)<br/>섬유질이 풍부하며, 월경전긴장증세(PMT) 등 월경전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br/>12. 마늘 49㎉(100g)<br/>너무 많이 먹으면 ‘제로 칼로리 푸드’가 될 수 없지만, 정량을 먹게 되면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진다.<br/>13. 자몽 24㎉(½개)<br/>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주스로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14. 껍질 콩 24㎉(100g)<br/>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비타민과 기타 비타민이 풍부하다. 또한 일부 영양학자는 껍질 콩을 먹으면 배가 들어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br/>15. 케일 33㎉(100g)<br/>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견해차가 크다. 일부 영양학자는 케일보다 브로콜리나 브루셀스프라우트(미니 양배추)를 먹는 게 실제로 더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채소에는 많은 필수 비타민이 들어있다.<br/>16. 리크(서양 대파) 2㎉(100g)<br/>비타민K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비타민B6와 C, 철분, 구리 망간도 함유돼 있다.<br/>17. 레몬 3㎉(1조각)<br/>서양에서는 레몬이 인생의 고통이나 쓴맛을 의미해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건넨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말이 있다. 레모네이드는 달고 맛있지만, 만일 누군가 레몬을 건넨다면, 이제는 그냥 먹자. 적당히 먹으면 제로 칼로리 푸드로써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br/>18. 상추 14㎉(100g)<br/>주로 수분으로 돼 있어 당신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다.<br/>19. 양파 7㎉(1조각)<br/>거의 모든 요리책에 주재료가 되고 있지만, 적당히 먹으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br/>20. 라즈베리 1㎉(1개)<br/>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으며, 여성의 생식능력을 증진해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21. 딸기 3㎉(1개)<br/>같은 양의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또한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졌다.<br/>22. 스웨드(스웨덴 순무) 24㎉(100g)<br/>칼로리가 낮아 서양에서는 다이어트로 체형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되고 있다. 또한 적당량의 비타민C를 공급해준다. 조리된 스웨드 85g에는 하루 비타민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 면역체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br/>23. 수박 16㎉(¼조각)<br/>수분이 많아 물 대신 섭취해도 좋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심장마비와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br/>사진=ⓒ sunnysky69 / Fotoli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3.txt

제목: 현대차 ‘올 뉴 투싼’ 이달 중순 국내 리콜  
날짜: 20170111  
기자: 김헌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11034307002  
ID: 01100611.20170111034307002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이달 중순 ‘올 뉴 투싼’ 리콜을 실시한다. 바퀴 쪽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리어 트레일링 암)의 강도 부족 등으로 부품 변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br/>현대차는 10일 이런 내용의 리콜 계획을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5년 9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11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br/>같은 기간 생산돼 중국에 판매된 올 뉴 투싼 약 10만대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지난해 10월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리콜된 적이 있다.<b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4.txt

제목: 암 앓던 美여성의 네 쌍둥이 기적 출산기  
날짜: 20170109  
기자: 안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9155639001  
ID: 01100611.20170109155639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네 쌍둥이를 자연임신할 확률은 70만 분의 1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네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암이 재발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br/>암에 걸려서도 뱃속의 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엄마가 있어 화제다. 미국의 NBC방송과 US위클리는 7일(현지시각) 암 생존자인 한 여성이 네 쌍둥이를 자연임신한 후 다시 암 환자가 된 비극적인 사연을 소개했다.<br/>켄터키주 포트캠벨의 케일라(29)와 찰스 부부(26)는 지난해 12월 30일 네 쌍둥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러나 케일라는 보통 산모와는 달랐다.<br/>그녀는 2016년 1월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암환자였다. 평소 끈질긴 가려움과 고질적인 기침으로 괴로워했고, 1년 반을 오진으로 고생하다 종양이 흉곽의 3분의1로 퍼져있고 림프절 또한 비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br/>그리고 5개월 간의 화학요법 후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뜻밖에 임신 소식을 접했다.<br/>케일라는 "우리는 아마 치료 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들었다"며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더니 4명의 건강한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남편 찰스 역시 "내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이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순간"이라 말했다.<br/>기쁨도 잠시, 11월이 되자 케일라를 옥죄였던 암이 재발했고 결국 아이의 건강과 암 치료를 위해 의료진은 임신 30주째에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그리고 찰스, 마이클, 빅토리아, 릴리안이 무사히 태어났고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머물고 있다.<br/>케일라는 "나는 네쌍둥이는 물론 에단(12)과 하퍼(2) 두 아이의 엄마"라면서 "자식들과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엄마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5년 안에 생존할 확률이 50%라고 말했지만 반드시 이겨내 여섯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br/>사진=인스타그램(kaylagaytan8)<br/>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5.txt

제목: 땅속의 황금으로 불리는 ‘울금’, 소화장애 개선부터 암예방 돕는 슈퍼푸드로 ‘주목’  
날짜: 2017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9152649001  
ID: 01100611.201701091526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울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화장애 개선, 신진대사 촉진은 물론 암 예방까지. 울금을 꾸준히 먹으면 특별한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슈퍼푸드 울금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br/>울금은 생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잘라보면 속이 다르다. 울금은 속이 노란 반면 생강은 그렇지 않다. 울금은 강황과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된다. 강황이 수입산이라면 울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br/>울금을 슈퍼푸드로 부르는 것은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란 성분 때문이다. 항산화, 항염 작용이 강력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br/>울금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한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울금, 먹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또한 울금은 소화 기능을 촉진시킨다. 울금은 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돕는 담즙이 잘 생성되게 만들어 소화가 잘 되게 한다.<br/>또한 종양 등 비정상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여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r/>나아가 소화,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면역 기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을 준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해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br/>우리나라 울금의 주요 재배지인 진도는 겨울철이 따뜻하여 울금의 최적 생산지이다. 열대식물인 울금은 진도군의 기후가 아열대 지역과 비슷해 잘 자라고 생산된 울금도 타지역보다 색깔이 좋고 향이 깊으며 커큐민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br/>진도 울금 식품 가공사업단에서는 얼마전 진도에 울금 가공공장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울금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진도 울금 식품 가공사업단은 간편하게 울금을 복용할 수 있는 분말과 티백을 출시하여 누구나 쉽게 슈퍼푸드인 울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6.txt

제목: “당신의 기대수명은 ○○세” 곧 피검사로 안다  
날짜: 20170109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9143159001  
ID: 01100611.2017010914315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어쩌면 SF(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br/>당신의 수명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혈액 검사법을 알아냈다고 미국 보스턴대학 연구진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br/>이들 과학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NIA)가 지원하는 ‘장수가족조사’(Long Life Family Study)에 참가한 지원자 약 5000명의 혈액 표본에서 수집한 ‘바이오마커’ 자료를 사용해 이들 기증자의 이후 8년간 건강 변화와 비교 분석했다. 여기서 바이오마커란 체액이나 조직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정보를 가진 분자를 뜻한다<br/>또 이들은 이들 참가자의 미래가 무병장수인지 아니면 암이나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큰지를 밝히기 위한 바이오마커 유형을 구분했다.<br/>그 결과,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평균 19개의 바이오마커 유형(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r/>반면 더 적은 수의 또다른 사람은 위와 같은 표준에서 벗어나 특정 의학 상태와 신체 기능 수준, 그리고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특정 바이오마커 유형을 갖고 있었다.<br/>예를 들어 어떤 한 유형은 질병 없이 노화하는 것과 연관돼 있었고, 다른 유형은 치매와 연관돼 있었으며, 또다른 유형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가 없는 노화와 관련돼 있었다.<br/>이를 통해 연구진은 수명 예측에 관한 서로 다른 바이오마커 특징 총 26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br/>특히 이번 연구가 획기적인 점은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건강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행동을 바꿈으로써 예측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br/>연구를 이끈 파올라 세바스티아니 박사와 토머스 펄스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런 바이오마커 특징은 사람들의 노화에 따른 차이점을 묘사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노화와 인지·신체 기능의 변화, 생존,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장래성을 보여준다</span>”고 설명했다.<br/>또한 “이는 여러 순환계 바이오마커의 정보를 활용해 또 다른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과 관련한 특징에 관한 분자 기반의 노화 관련 정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고 말했다.<br/>이어 “이미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 많은 예측 및 위험 점수가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특정 바이오마커 그룹 유형은 한 사람이 얼마나 잘 노화했는지와 특정 노화 관련 증후군이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발 더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br/>그러면서도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더욱 자세히 알려면 더 많은 사람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에이징셀’(Aging Cell) 최신호(1월 6일자)에 실렸다.<br/>사진=ⓒ포토리아<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7.txt

제목: 비타민 담배로 금연…정말 가능할까요  
날짜: 20170109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9034135001  
ID: 01100611.201701090341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해 6만명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 <br/>한달만 끊어도 피부 탄력 돌아와 <br/>시중 판매 ‘비타민 담배’ 모두 불법 <br/>건강 해치고 흡연 조장할 우려 커 <br/>전자담배도 몸에 해롭긴 마찬가지<br/>정유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시도하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흡연으로 사망하는 누적인원이 1억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6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을 넘기기 쉽지 않다.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 효과 때문에 단 하루만 금연해도 금단증상이 생기기 때문이다.<br/>●금연하면 심근경색·뇌졸중 걸릴 확률 ‘뚝’<br/>8일 학계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지 하루가 지나면 우리 폐는 점액과 기타 흡연 잔해를 청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인다. 1개월이 지나면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사라지면서 피부에 힘이 붙고 탄력이 생긴다. 2개월 뒤에는 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수년 이상 금연을 지속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br/>금단 증상을 줄이려면 담배 대용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허연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금단증상이 심할 경우 주위에 당근, 오이, 견과류, 건포도 등 담배 대용품을 두고 흡연욕구를 느낄 때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양치질이나 손 씻기,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 이어 “10~15년간 금연하면 비흡연자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금연에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하면 도파민 부족으로 초조함이나 불안감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하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껌이나 사탕 형태로 섭취하는 제품이 흔하다.<br/>●금연보조제 최대한 천천히 30분 정도 섭취<br/>그러나 금연보조제를 섭취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유태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span class='quot1'>금연보조제를 섭취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30분 정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너무 빨리 섭취하면 니코틴 흡수가 빨라져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span>”고 조언했다.<br/>니코틴 패치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제품이다. 매일 아침 체모가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취침 전 제거하는 방식이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임의로 패치를 잘라 사용하면 니코틴 흡수용량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같은 자리에 계속 패치를 붙이면 피부에 과민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br/>금연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제품도 일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담배’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비타민 담배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습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타르가 없는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니코틴 농도가 높아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따라서 보건소나 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을 찾아 먼저 ‘니코틴 의존도 평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8~12주 정도 진행하는 금연치료는 3회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1~2회차 치료비도 모두 환급받는다. 사실상 금연에 성공하면 치료비가 전액 무료인 셈이다. 처방용 금연치료제는 최대 55%의 금연 효과를 보인다. 유 과장은 “<span class='quot2'>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흡연 습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연보조제와 치료제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8.txt

제목: [메디컬 인사이드] 당뇨병에 무작정 운동? 혼수상태 올 수도  
날짜: 20170109  
기자: 정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9034133002  
ID: 01100611.20170109034133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국민 20명 중 1명 당뇨병으로 진료 <br/>혈당수치 300이상일 때 운동은 ‘독’ <br/>체내 ‘케톤’ 많이 쌓이면 정신 잃을수도 <br/>갈증·복통·구토·체온저하 증상 동반 <br/>심박수 체크후 운동 강도 정해야 <br/>일반적으로 ‘암’을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여기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질병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큰 질병은 2002년과 2012년 2번의 연구에서 모두 당뇨병이 1위로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313개로 구분한 뒤 특정 질병의 심각성을 분석했는데 10년 동안 1위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br/>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사협회는 2013년 기준 미국 내 당뇨병 진단 및 치료비 지출액이 총 1014억 달러(약 121조원)로 주요 20개 질병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진료인원은 258만명으로 국민 20명 중 1명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의료정보가 당뇨병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만명의 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예방만큼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8일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법에 대해 들었습니다.<br/>●밥 먹기 전 운동하면 ‘저혈당’ 오기 쉬워<br/>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300㎎/㎗ 이상일 때는 운동보다는 우선 치료로 혈당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br/>김경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공복 혈당이 300㎎/㎗ 이상이라면 운동을 해도 제대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약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형성돼 오히려 몸이 힘들어지고 심하면 혼수상태까지 올 수 있다</span>”고 조언했습니다. 케톤이 많이 쌓여 ‘케톤산혈증’이 생기면 갈증과 복통, 구토, 체온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에서 케톤이 발견돼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299㎎/㎗ 이하라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복이나 식전에는 저혈당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먹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식후 30분~1시간 사이입니다.<br/>운동 강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부하검사’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1분당 심장박동 수로 운동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대 심장박동 수인 ‘최대 심박수’를 계산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입니다. 적정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75% 수준입니다. 차봉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50세 환자라면 1분당 102회 또는 127회의 적정 심박수를 구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유산소 운동은 20분 ~1시간 미만이 적당<br/>겨울철에는 외부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걷기, 속보, 구영,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 주로 지낸다면 가벼운 아령 들기,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 계단 오르내리기로 바꿔도 됩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책을 15~20㎝ 정도 쌓아 놓고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운동은 계단을 걷는 것과 유사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훌라후프도 좋습니다. 무거운 훌라후프를 10분 정도 돌리면 8분을 달리기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지하철에서 서서 가기, 텔레비전을 볼 때 바른 자세로 앉기, 전화 통화할 때 제자리 걷기, 대화할 때 손동작 많이 하기 등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니트 다이어트’(비운동성 활동 열생성)도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br/>유산소 운동은 20분 이상~1시간 미만, 근력 강화 운동은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1주일에 3~5회 정도 운동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발’이 있으면 전용 신발을 신고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일반 자전거보다 고정식 자전거가 발에 부담이 적습니다.<br/>●음식엔 설탕 대신 저열량 감미료 사용해야<br/>당류 섭취량은 전체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800㎉를 섭취한다면 180㎉가 허용치입니다. 음료수 한 병도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진 음식의 대명사인 튀김은 아예 거들떠보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러 튀김을 벗겨낸다고 해도 재료에 기름이 밸 수 있기 ‘열량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교수는 “<span class='quot0'>맵고, 짜고, 단맛이 있는 자극적인 음식은 식욕을 일으키고 무의식 중에 과식이나 폭식을 부른다</span>”며 “<span class='quot0'>설탕을 무제한으로 섭취하는 것도 고혈당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열량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습니다.<br/>아무리 바쁘더라도 당뇨병 환자라면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음식을 천천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자리에서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적정 열량은 남성은 체중 1㎏당 30㎉, 여성은 25㎉입니다. 비만이라면 이 수치에서 500~1000㎉를 빼면 됩니다.<br/>당뇨병이 있다면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고 숙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수면 시간이 부족한 여성은 30%, 남성은 50%까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1'>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혈당 조절을 잘하고, 생활습관 원칙을 잘 지키면 심각한 합병증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09.txt

제목: ‘유희열의 스케치북’ 엄정화, “암수술 후 8개월간 말 못 해” 결국 눈물  
날짜: 20170108  
기자: 김채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8105116001  
ID: 01100611.2017010810511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엄정화가 암을 이겨내고 돌아왔다.<br/>7일 방송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첫 번째 손님으로 엄정화가 출연했다.<br/>이날 유희열은 엄정화의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전했다. 엄정화는 갑상선암 수술 중에 성대를 다치기까지 했다고. 엄정화는 “<span class='quot0'>목을 다친 걸 알게 되면 일도 차질이 있고 혼자 많이 견뎠다</span>”고 입을 뗐다.<br/>이어 엄정화는 “성대 한쪽이 마비가 되서 수술하고 8개월을 말을 못했다. 사실 제가 말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말을 이었다.<br/>또 “그 다음에는 성대를 맞춰주는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그 주사도 맞지 않고 연습을 하다가 이겨냈다”고 덧붙였다.<br/>유희열은 엄정화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실 100% 예전의 목소리는 아니다. 떨림이 느껴진다. 하지만 무대, 표정, 안무, 노래, 공기 등 모든 게 합쳐져서 현재 엄정화라는 사람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br/>사진 = 서울신문DB<br/>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10.txt

제목: 아연은 회춘의 묘약…‘유전자 마모’ 막아(연구)  
날짜: 20170105  
기자: 윤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5113145001  
ID: 01100611.201701051131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연(Zn)에 유전자(DNA) 마모를 현저하게 막는 효과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r/>미국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대(UCSF) 산하 베니오프 아동병원연구소(CHORI)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로 하루에 4㎎의 아연을 추가로 더 섭취하면 감염·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세포상의 건강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br/>이 같은 아연의 양은 영양 섭취가 취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식단에 더할 수 있는 아연 쌀이나 아연 밀처럼 생물 영양을 강화한 ‘생합성영양’(Biofortification) 작물에 함유된 것과 같다.<br/>흔히 접하는 여러 식재료에도 아연이 함유돼 있다. 굴이 대표적이다. 100g에 16.6㎎의 아연이 들어 있다. 이밖에도 호두 100g당 아연 3㎎, 캐슈넛 100g당 6.5㎎, 계란 노른자 100g당 4㎎이 함유되어 있는 등 굴, 다시마, 석류, 현미, 보리, 청국장 등에도 충분한 아연이 있다.<br/>수석연구원 재닛 킹 박사 등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식단에 아연을 적당히 추가하는 것만으로 산화 스트레스와 DNA 손상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br/>킹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식단에 아연의 섭취를 조금만 늘리면 몸 전체에서 신진대사가 진행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결과는 아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음식에 기반을 둔 개입이 전 세계의 미량 영양소 결핍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span>”고 말했다.<br/>아연은 우리 몸 어디에나 있으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촉진한다. 또한 아연은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연은 만성 심혈관계질환과 암의 발병에 관련한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제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br/>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광택이 나는 백미나 고도로 정제된 밀 또는 옥수숫가루를 먹지만 이는 에너지는 제공하지만 아연과 같은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는 제공하지 않는다.<br/>아연은 거의 3000종에 달하는 효소 단백질 중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br/>충분한 아연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DNA에 대한 일상적인 마모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br/>연구진은 6주 동안 진행된 무작위대조 연구에서 DNA 가닥 절단을 계산해 아연이 인간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br/>이들은 DNA 손상에 관한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 적당량의 아연이 건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는 혈중 아연을 관찰하거나 아연 상태의 평가를 위해 발육 부진과 발병률을 조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한다.<br/>킹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결과는 기아와 영양 실조에 관한 숨겨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식품 기반 해결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어 “생합성영양 작물은 아연 결핍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br/>사진=ⓒ Africa Studio / Fotolia<br/>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11.txt

제목: 조순제 “박정희 대통령 재산, 최태민 일가에 넘어가…달러·금괴·귀금속·채권”  
날짜: 20170103  
기자: 장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3153218001  
ID: 01100611.20170103153218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긴 재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아버지 최태민씨에게 넘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br/>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사망한 최태민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씨가 이와 같이 증언했다는 내용이다.<br/>3일 YTN은 조순제씨의 아들인 조모씨가 이와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br/>조순제씨는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녹취록을 작성할 때 폐암 말기였고, 이후 대선 당일 숨질 때까지 간병하던 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br/>당시 조순제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박 대통령이 남긴 돈이 최태민에게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해졌다.<br/>조순제씨의 아들 조모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 돈이 어떤 경로로든 최태민에게 다 전달됐다.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셨던 부분중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비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부정에 가담한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br/>조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금고에 남아 있던 재산은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달러와 금덩어리. 귀금속. 채권”이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아버님이 하셨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br/>이 자금은 이후 최태민의 5번째 아내이자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이 씨가 상당 부분을 관리해왔다고도 조씨는 전했다. 조씨는 “숫자는 감각적인 수준 이상 암달러. 일수 하면서도 장부 기재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br/>조준제씨는 이 재산이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따로 떼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 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b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12.txt

제목: ‘詩’로 쓴 中 스모그  
날짜: 20170103  
기자: 이창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3034120003  
ID: 01100611.20170103034120003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너의 혈관 하나하나에… 너의 장기 하나하나에…<br/> 새해 첫날부터 중국 전역을 강타한 스모그가 논문이 아닌 시(詩)가 되어 세계적인 과학잡지에 실렸다.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2일 상하이 퉁지(同濟)대학병원 흉부외과 자오샤오강(趙曉剛) 교수의 시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흉부외과 의학잡지인 ‘체스트’(CHEST)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자오 교수는 스모그가 초기 폐암의 일종인 ‘간유리음영’(GGO)을 어떻게 유발하고 말기 폐암으로 발전하는지를 논문이 아닌 시로 설명했다. 시가 논문과 동일하게 의학 잡지에 실린 것은 처음이라고 펑파이는 설명했다.<br/>시 제목은 ‘간유리음영의 고백’이다.<br/>“<span class='quot0'>나는 향기롭고 은밀한 스모그가 좋아/ 몽롱한 그림자에 신비함이 드리워져 있지/ 네가 깔깔대는 아이였을 때 나는 조용히 증식했고/ 네가 질풍노도의 청년일 때 나는 깊숙한 곳에서 비로소 암이 된 거야/ 네가 나약해진 만큼 나는 강해져/ 밤새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네가 참 좋아/ 맘에 꼭 드는 드넓은 정원을 만들어 주거든/ 너의 혈관 하나하나에 내 자손을 남기고/ 너의 장기 하나하나에 나의 깃발을 걸 거야</span>”<br/>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언론사: 서울신문-4-713.txt

제목: [2017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 오늘만 같지 않기를 - 조현주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2034145001  
ID: 01100611.20170102034145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등장인물<br/>노대복 69세, 마을버스기사<br/>양옥화 67세, 노대복의 아내<br/>노운수 45세, 노대복·양옥화의 아들, 택시기사<br/>노만석 22세, 노운수의 아들, 퀵서비스맨<br/><br/>때 <br/>어느 가을 토요일 저녁<br/>장소 <br/>한눈에도 오래되고 허름해 보이는 집의 거실이다. 거실 벽은 얇은 나무합판으로 둘러쳐져 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거나 나무합판이 삐져나온 곳이 보인다. 가구나 테이블, 가전제품, 주방의 싱크대 등에도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다.<br/>무대 뒤쪽은 주방이다. 싱크대와 냉장고 등이 있고, 냉장고 앞에 식탁으로 사용하는 원목 탁자가 있다. 주방 오른쪽으로는 미닫이문이 있고, 이 문을 나가 좁고 긴 복도를 따라가면 현관문이 나온다(객석에서 현관문은 보이지 않는다). 미닫이문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걸려 있고, 그 바로 옆은 노만석의 방이다.<br/>주방 왼쪽으로는 뒷마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스테인리스로 된 문이 있다. 뒷마당에는 양옥화가 가꾸는 텃밭이 있다. 파나 고추 같은 것들을 키운다. 바로 옆에 방문이 있고(노운수의 방), 그 옆에 또 하나의 문이 있다. 이곳은 욕실 겸 화장실이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방문이 있다(노대복, 양옥화의 방). 방문이 마치 이 집 인테리어의 전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외의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다. 흔한 액자조차 벽에 걸려 있지 않다.<br/>무대 앞쪽에는 온 가족이 앉을 수 있는 패브릭 소파가 객석을 향해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고 담요 같은 것들이 걸쳐져 있다. 왼쪽 소파에는 마른 빨랫감들이 아무렇게 놓여 있다. 가운데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꽃병이 있다. 테이블은 나무의 밑동을 잘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역시 오래돼 보인다.<br/>무대 밝아지면 대복, 방문을 열고 등장한다.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다. 잠시 후 뭘 찾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 기억이 났는지 서랍장을 뒤져 손톱깎이를 찾아 소파 쪽으로 온다.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는다. 자신의 발을 불만스러운 듯 이리저리 살피는 대복. 한참을 들여다보다 깎기 시작한다. 통증이 있는지 간간이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한다. 동작을 반복하다 신경질이 나는지 손톱깎이를 옆 소파에 던져 버린다.<br/>대복 빌어먹을! 발가락을 뽑아내든가 해야지.<br/>소파에 드러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손톱깎이를 찾는다. 다시 발톱을 깎기 시작하는 대복. 곧바로 미닫이문이 열리고 휘파람을 불며 운수 등장한다. 무스로 정돈한 올백 머리, 알이 큰 선글라스를 쓰고, 동선운수라고 쓰인 택시회사의 제복을 입고 있다. 거울을 보며 한껏 폼을 잡는 운수. 그런 모습을 한심한 듯 쳐다보는 대복. 잠시 후 둘의 눈이 마주친다. 과장되게 인사를 건네는 운수.<br/>운수 그간 옥체 건강하셨습니까?<br/>대복 누구?<br/>운수 저는 그러니까, 아들입니다.<br/>대복 그런 이름은 내 머릿속엔 없는데. 여긴 어떻게? 분명 문을 걸어 잠갔는데.<br/>운수 수척해 보이십니다, 아버님. 들어가서 쉬시지요. (혼잣말처럼, 하지만 대복에게도 들릴 정도로 크게) 큰일이야, 빨리 기억이 돌아와야 할 텐데.<br/>대복 뽑아낼 게 있는데 뽑아낼 수가 없네요. 어째야 합니까, 하나님.<br/>운수 하나님은 바쁘셔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br/>대복 쑤욱, 하고 뽑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br/>운수 세상에 있는 건 다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섭니다.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지요.<br/>대복 실수를 하셨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하나님. (발톱에 통증을 느끼는지 인상을 찡그린다)<br/>운수 병원엘 가세요. 왜 가만히 두고 병을 키워요?<br/>대복 내 병을 키우는 건 네놈이다, 이 망할 자식아.<br/>운수 또, 또 그러신다. 혈압도 높은 양반이.<br/>대복 어디 가서 뭘 했기에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냐?<br/>운수 뭘 하긴요, 일했죠.<br/>대복 네놈이 야간조인 건 너만 모르고 우리 가족이 다 알아.<br/>운수 일 끝나고 피곤해서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잤습니다.<br/>대복 걸어서 이십 분이면 오는 너의 회사 말이냐?<br/>운수 밤새 운전만 하면 다리가 부어요. 천근만근입니다.<br/>대복 그래, 알지 알아. 나도 사십 년을 운전만 해서 발톱이 이 모양이지. 보이냐? (발을 들어 운수 쪽으로 내민다) 얼빠진 놈.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br/>운수 그만하세요. 저도 낼모레면 오십이에요.<br/>대복 아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겨우 칠십밖에 처먹지 않아서.<br/>운수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죠.<br/>대복 어디서 같잖게 나이 타령이야?<br/>운수 조심하세요. 곧 터집니다, 제 인생에 잭팟이. 뒷일,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br/>대복 감당 못해도 좋으니 제발 좀 터져다오 그놈의 잭팟.<br/>운수 두고 보세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는다)<br/>대복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다 발톱을 깎기 시작한다) 어디 이름 모를 강에 가서 돌 껴안고 뛰어들든가 해야지.<br/>운수 (소파에 앉으며) 그 의사 새끼 그거 돌팔이였나봐요. 수술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그래요?<br/>대복 내성발톱이란 게 원래 그렇다.<br/>운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br/>대복 내 자식도 내 맘처럼 안 되는데, 뭔들 되겠냐?<br/>운수 이 자식새끼는 자나깨나 아버님, 어머님 생각뿐입니다.<br/>대복 자나깨나 노름 생각뿐이겠지.<br/>운수 노름이라뇨. 친, 목, 도, 모. 남들이 오해하겠어요.<br/>대복 그래. 하룻밤에 몇 백만 원이 오가는 친목도모.<br/>운수 전 아니에요. 그런 돈도 없고.<br/>대복 얼마나 다행이냐, 네놈이 개털인 게.<br/>운수 총알만 있으면. (대복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농담이에요, 농담.<br/>대복 네 엄마 한 번 더 쓰러지면 네 귓구멍에 총알을 박아주마.<br/>운수 말씀 한번 살벌하십니다.<br/>대복 이 집의 절반이 아직도 은행 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겠지, 응? 내가 평생을 일해 장만한 이 집 말이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1-23번지!<br/>운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느낌이 와요. 운의 바람이 저한테 불어오고 있다고요.<br/>대복 여기 죄 많은 노름꾼 하나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정수리에 번개라도 내리쳐 주세요.<br/>운수 요즘엔 말이죠, 상대가 어떤 패를 들었는지가 보여요.<br/>대복 세 치 혀로 거짓을 일삼는 죄인입니다. 지옥의 문을 잠깐 열었다 닫아주실 순 없으신가요? 그 틈으로 살짝 밀어 넣고 싶습니다만.<br/>운수 진짜라고요. 앉아서 딱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놈이 지금 땡을 쥐고 있구나, 삼팔따라지를 쥐고 구라를 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br/>대복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어찌나 놀라운지 전혀 믿기지가 않아.<br/>운수 열에 여덟은 정확하게 맞힙니다. 이제야 빛을 보는 겁니다, 그간의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그리고.<br/>대복 돈과 빚이.<br/>운수 네, 그렇죠. 정말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터집니다, 빰빠라밤~.<br/>대복 내 속이나 터지게 하지 마라. (사이) 그런데.<br/>운수 네, 존경하는 아버님.<br/>대복 상대 패가 보이는데 왜 돈을 못 따는 거냐?<br/>운수 중요한 지적이십니다.<br/>대복 이유가 뭐냐?<br/>운수 제 패가 그놈들 패보다 낮아서죠.<br/>대복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그걸 몰랐네. 내가 몰랐어. (사이) 어떤 패를 들었는지는 보이는데, 그 패를 이길 수 없는 개패만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지?<br/>운수 환장할 일이죠. 한 끗으로 밟히고 족보로 밟히고 땡으로도 밟히고.<br/>대복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놈이구나 너는.<br/>운수 기다리세요. 아스팔트는 깔렸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br/>대복 노름꾼에 거짓말쟁이에 재수까지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곁에 자리가 남아 있나요?<br/>운수 정말, 미치겠다니까요.<br/>대복 정신 빠진 놈.<br/>발톱을 정리하고 대복이 뒷마당으로 나가자 운수는 피곤한지 소파에 깊이 몸을 묻는다. 잠시 후 안방 문을 열고 옥화 등장. 손에 쥔 기저귀를 주방 쪽에 있는 휴지통에 버린 후 소파 쪽으로 와 잠든 운수를 본다. 옆 소파에 걸쳐진 담요를 들어 운수의 몸에 덮어주는 옥화. 뒷마당에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대복, 가만히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옥화, 소파에 앉아 이불을 개기 시작한다.<br/>운수 (깜짝 놀라 일어나며 잠꼬대한다)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벌놈아. 내 돈이야.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씩씩댄다. 뜨악해하는 옥화와 눈이 마주치자 태연한 척한다) 언제 나오셨어요?<br/>옥화 미칠 거면 저 산골 오지 같은 데 가서 미쳐다오. 내가 못 찾아갈 곳에.<br/>운수 며칠 만에 본 아들이 조금은 반갑지 않으세요?<br/>옥화 그럴 리가. 전~혀 반갑지가 않단다.<br/>운수 마음에도 없는 말 하십니다 또.<br/>옥화 네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br/>운수 별일 없었어요?<br/>옥화 없었다.<br/>운수 정말요?<br/>옥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거다. 하긴, 그런 게 너한테 뭐 중요하겠니. 한 달에 반을 밖에서 자는 애가.<br/>운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br/>옥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br/>운수 그럴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손가락만 빨고 집안에 처박혀 있을까요? (사이) 빌어먹을. (일어난다)<br/>옥화 혹시, 여자 생겼냐?<br/>운수 무슨 소리에요?<br/>옥화 정희 엄마가 봤다더라, 네가 어제 젊은 여자랑 시장 입구 족발집에 있는 걸.<br/>운수 (다시 자리에 앉는다) 아, 그분. 평생을 남 얘기로 입을 털어오신 분이죠.<br/>옥화 그래도 없는 얘긴 안 턴다. 누군데?<br/>운수 아무 사이 아니에요.<br/>옥화 말해봐. 어떤 사람인데?<br/>운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br/>옥화 너 갔다 온 거 알아?<br/>운수 나 참. 그냥 아는 다방 여자애예요.<br/>옥화 다방?<br/>운수 (실망한 듯 보이는 옥화를 보며) 대체 뭘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도 저한테 무슨 기대 같은 걸 갖고 계세요?<br/>옥화 그런 거 없다. (사이) 좀 제대로 된 여잘 만나면 세상이 무너지냐?<br/>운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br/>옥화 알아서 하기는. 알아서 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br/>운수 어머니!<br/>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온다. 울음소리 점점 커진다.<br/>운수 저거 아직도 안 갖다 버렸어요?<br/>옥화 말 좀 예쁘게 해라. 저거라니.<br/>운수 만석인 어디 갔어요?<br/>옥화 씻는다.<br/>운수 이 자식은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br/>옥화 이따 데려다주기로 했다더라.<br/>운수 그래요?<br/>옥화 정말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br/>운수 누구요?<br/>옥화 우리!<br/>운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br/>옥화 만석인 절대 안 된다는데, 네가 얘기 좀 잘 해봐.<br/>운수 나도 싫어요. 그리고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br/>대복 (목소리) 여보, 이리 좀 들어와 봐.<br/>옥화, 뭔가 더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소파에 기대서 거실을 둘러보는 운수. 욕실 문이 열리고, 바지와 러닝만 입은 만석이 머리를 털며 등장.<br/>운수 여, 아들. (모른 체하는 만석을 향해) 인사 좀 하지.<br/>만석 오셨어요.<br/>운수 그래. (방으로 곧장 들어가려는 만석을 멈춰 세우며) 아들아. 이리 좀 앉아봐라.<br/>만석 바쁩니다.<br/>운수 나도 바빠. 딱 일 분만 얘기하자.<br/>만석 (앉으며) 왜요?<br/>운수 (무심하게) 너, 뭐하는 놈이야?<br/>만석 뭐가요?<br/>운수 (주방 쪽에 있는 종이상자를 가리키며) 저거 말이야.<br/>만석 저게 뭐예요?<br/>운수 저거 말이야, 저거. 벌써 며칠째야? 열흘 정도 되지 않았냐?<br/>만석 (알아차리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br/>운수 밖에는 뭐가 밖에야? 그 일주일 새에 저 방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 모르냐? 젖병에 딸랑이에 인형에. 그것만으로도 한 살림이다.<br/>만석 오늘 데리고 갈 겁니다. 담당자 만나기로 했어요.<br/>운수 그런 건 바로바로 처리했어야지.<br/>만석 제가 알아서 합니다.<br/>운수 아니지, 아니지. 이건 우리의 문제라고. 네가 저걸 이 집 안에 들여놓았던 순간부터 말이야, 우리 가족은 모두 공범이 된 거라고.<br/>만석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담당공무원과도 이미 다 얘기가 됐거든요.<br/>운수 공무원? 이 자식 순진하게. 걔네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 다짐을 받아 놔야지 서면으로다.<br/>만석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애 있는 동안 매일 찾아와서 체크하고.<br/>운수 (말 자르며) 확실하게 하란 말이다. (사이) 여자는? 연락은 됐고?<br/>만석 아뇨.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요.<br/>운수 처음 몇 번은 받았잖아.<br/>만석 받았죠.<br/>운수 뭐라고 그랬댔지? 그 남자 애가 확실하니까 잘 키우든, 아님 고아원에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br/>만석 그랬죠.<br/>운수 망통 같은 년. 애가 무슨 쓰레기야? (사이) 남자는?<br/>만석 여전히 연락 두절. 출입국 기록을 보면 필리핀 쪽으로 간 것 같다던데.<br/>운수 하긴 나라도 웬 여자가 네 애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했으면 외국으로 떴을 거다.<br/>만석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되겠죠.<br/>운수 뭐, 하든 말든.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대체 어떤 강심장이면 애를 박스에 담아서 퀵으로 보낼 수 있나? 대단해, 대단해. 졸라게 놀라워. 안 그러냐?<br/>만석 전 별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놀라운 일을 많이 겪어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br/>운수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비아냥이 수준급이냐? (말이 없는 만석을 향해) 됐고. 정말 네 애 아니지? 마지막 기회다. 지금 말하면 다 용서해주마.<br/>만석 대체 몇 번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br/>운수 근데 너도 생각을 해봐. 퀵으로 물건을 받았어. 물건을 받았는데 수취인이 없어. 수취인도 없고 돈도 착불이라 못 받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져왔는데, 짜잔. 램프의 요정처럼 아이가 튀어나왔네? 너라면 이게 이해가 가냐?<br/>만석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요.<br/>운수 네가 이 애빌 가다마사, 띄엄띄엄 보는, 아주 건방진 경향이 있는데.<br/>만석 (말 자르며) 됐어요. 내 애 아니고, 오늘 데려다줄 거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더는 아무 말 마세요.<br/>운수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경우엔, 뭔가 보상금 같은 거 안 주냐? 일주일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했는데.<br/>만석 안 줍니다. 버려진 애 돌봐주고 무슨 돈을 바래요? 양심도 없어요?<br/>운수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양심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러다 손가락 빨고 사는 거야. 손해만 보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고.<br/>만석 우리 집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죠. 누구 덕분에.<br/>운수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반색하며) 그러니까, 뭔가 탈출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들아. 그런 의미에서, 총알 좀 있냐? 이번에야말로 빚에서 좀 벗어나보게.<br/>만석 (어이없어하며) 없어요.<br/>운수 갚는다, 갚아. 이번에 한꺼번에 갚는다. 얼마지 이제까지 빌린 게? 한 백만 원 되냐?<br/>만석 이백십팔만 사천오백 원이요!<br/>운수 거짓말하지 말고.<br/>만석 이자 빼고 원금만!<br/>운수 그렇게 많았냐? 사천오백원은 뭐야?<br/>대복 지난주에 가져간 담뱃값이요.<br/>운수 아, 그래, 백 원짜리랑 십 원짜리 말이지.<br/>집 앞 편의점 알바애가 실실 쪼개더라. 십 원이 남네요, 하면서. 그 뒤로 내가 거길 못 가요.<br/>만석 능력 없으면 끊으세요.<br/>운수 담배까지 못 피우면 이 엿 같은 세상을 어떻게 견디겠냐?<br/>만석 그래서, 얼마요?<br/>운수, 비굴하게 웃으며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인다. 만석,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br/>만석 여기요.<br/>운수 (지폐를 보며) 뭐냐 이게?<br/>만석 담배 네 갑은 살 수 있을 겁니다.<br/>운수 (손가락 두 개를 힘차게 펴며) 이 두 개를 말한 거지, (손가락을 굽혀서 내보이며) 이 두 개가 아니라.<br/>만석 없어요.<br/>운수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 지나면 바로 준다니까, 진짜로.<br/>만석 없습니다. (사이) 다음주 할머니 병원 가는 거 알고 있죠?<br/>운수 벌써 한 달이 지났냐?<br/>만석 이번엔 몇 십만 원이라도 좀 내세요. 할아버지도 나도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목구멍까지 찼다고요.<br/>운수 알았어, 알았어. (혼잣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신약으로 하자니까.<br/>만석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br/>운수 네 할머니이기 전에 내 엄마야. 어디서 돼먹지 않은 소리야?<br/>만석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오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다예요.<br/>운수 필요 없어, 새끼야. 보자 보자 하니까 지 애비를 허수아비 짚단으로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다시 나와 지폐를 챙기고 욕실로 향한다) 두고 봐,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네놈 얼굴에 뿌려줄 테니까.<br/>만석 이백이십오만 사천오백 원입니다.<br/>운수, 가만히 노려보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는다. 멍하니 지갑을 들여다보는 만석. 한숨을 쉬다 옆에 놓여 있는 빨랫감을 발견하고 정리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빈 분유통을 들고 나오는 옥화. 분유통을 싱크대에 넣은 후 소파로 와 앉는다.<br/>옥화 저녁은 어떡할래?<br/>만석 바로 나가봐야 해요.<br/>옥화 뭐가 급하다고 밥도 걸러. 찌개 끓여 놓은 거 데우면 되니까 한술 뜨고 가.<br/>만석 담당 직원이 곧 전화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바로 나가야 해요.<br/>옥화 그 사람은 주말에도 일한다니?<br/>만석 그 사람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겠죠.<br/>옥화 여기 있는다고 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리 야박하게. 전화해서 월요일에 데리러 오라 그래라.<br/>만석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이상은 안 돼요. 아까 얘기드렸잖아요.<br/>옥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야. 애를 데려가면 재울 데는 있대? 분유는 탈 줄 알고? 이제야 겨우 적응 좀 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면 애가 놀라. 월요일에 오라 그래.<br/>만석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버려진 애들 보살피는 거.<br/>옥화 버려지다니.<br/>만석 빨리 가야 적응을 하죠.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br/>옥화 왜 못 살아? 그냥 살면 되지.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던?<br/>만석 (얼버무리며) 별말 없었는데요.<br/>옥화 하여튼 도움이 안 돼요. (사이) 한 번 더 생각해봐라.<br/>만석 뭘요?<br/>옥화 우리가 키우는 거 말이다.<br/>만석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br/>옥화 네가 말한 그 절차라는 것만 해결하면 키울 수 있는 거잖냐.<br/>만석 그냥 들은 걸 얘기한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요.<br/>옥화 그 애 얼굴을 봐서 알잖니? 큰 눈망울, 둥근 콧잔등에 숱도 무성하고. 사랑받으며 크면 이쁘게 자랄 거야. 천벌받아, 그런 애 버리면.<br/>만석 천벌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죠.<br/>옥화 이 할미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싶다.<br/>만석 자식을 버리는 게 이해가 가요 할머닌? 그래요?<br/>옥화 (당황하며) 그건 아니다만. 그래도 이게 다 인연 아니겠나 싶고.<br/>만석 여긴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길어지면 불행한 인연이 될 뿐이죠.<br/>옥화 애 생각을 해봐라. 어디 멀리 외국에 보내져서 소젖 짜고 양털이나 벗겨내게 할 셈이냐?<br/>만석 누가 그래요?<br/>옥화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티비에서 다 봤다.<br/>만석 팔려 가는 게 아니에요, 입양이죠. 외국 가서 더 잘 먹고 좋은 교육받고 더 사랑받고 클 거예요. 그리고 아무려면 어때요. 내 아이도 아닌데.<br/>옥화 우리 손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졌을까. 민달팽이 집이 없다고, 불쌍하다고 울던 우리 착한 손자는 어디 갔을까. 응? (사이, 달래듯) 그러지 말자. 어디 보내지 말고 우리가 키우자.<br/>만석 우리 형편을 좀 생각하세요.<br/>옥화 입 하나 는다고 당장 내일 굶어 죽는다니? 제 먹을 건 타고나는 거야.<br/>만석 다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요.<br/>옥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br/>만석 무슨 생각이요?<br/>옥화 그 절차라는 거, 내가 하면 되지.<br/>만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br/>옥화 왜 말이 안 돼?<br/>만석 할머니는 안 돼요.<br/>옥화 내가 왜 안 돼?<br/>만석 암 환자가 무슨 애를 키워요?<br/>옥화 (당황하며) 그게 무슨. 암 환잔 애를 못 키운다니?<br/>만석 입양도 못 할 거예요.<br/>옥화 이 집에 나 혼자뿐이냐? 너도 있고, 운수도 있고, 네 할아버지도 있고.<br/>만석 전 빼주세요. 도와 드리지 않을 거니까.<br/>옥화 그래, 그럼 넌 빠지고. 나랑 네 애비랑, 아니 네 할아버지랑 키우지 뭐.<br/>만석 맘대로 하세요. 근데 애는 오늘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얘긴 끝났습니다.<br/>옥화 안 된다. 그렇게 안 둘 거야, 이 할미가.<br/>만석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하셔야 해요. (방으로 향한다)<br/>옥화 (혼잣말처럼) 커갈수록 지 애비를 닮아가는 건지.<br/>만석, 옥화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간다. 옥화, 멍하니 앉아 있다. 잠시 후 대복 안방에서 나온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다. 욕실 문을 열고 깜짝 놀라는 대복.<br/>대복 아이고 깜짝이야. 뭔 짓이냐, 이 망할 자식아!<br/>운수 (목소리만) 뭐가요?<br/>대복 왜 그러고 섰냐고?<br/>운수 (목소리만) 하루에 삼사 분씩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줘야 뇌경색에 안 걸린답니다.<br/>대복 옷이나 처입고 해라.<br/>운수 (목소리만) 아버지, 여긴 욕실이라고요.<br/>신경질적으로 문을 닫는 대복. 주방으로 가 대충 손을 닦고 거실 쪽으로 나와 소파에 앉는다.<br/>대복 애새끼가 갈수록 이상해져. (사이, 혼자 웃으며) 아, 고놈, 참 여자애라서 그런지 애교가 장난이 아니네. 눈웃음치는 게 어찌나 이쁜지. 안 그래? (옥화가 반응이 없자) 뭐해?<br/>옥화 응? 왜요 왜?<br/>대복 어따 정신을 팔고 있어?<br/>옥화 뭐라고 했어요?<br/>대복 밥 먹자고.<br/>옥화 아, 그래요, 그래야죠.<br/>대복 (일어서는 옥화를 말리며) 이 사람이 나사가 빠졌나. 있어 그냥. 저녁은 무슨. 연씨네 상갓집 가기로 했잖아.<br/>옥화 어디요? 아, 그랬죠, 상갓집.<br/>대복 약 때문에 그래? (문득 생각난 듯) 아, 애는 만석이가 보나?<br/>옥화 (힘없이) 조금 있다 데려다주기로 했대요.<br/>대복 (실망한 듯,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래. 오늘? 뭔 사람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나.<br/>옥화 만석일 잘못 키웠나 봐요.<br/>대복 그건 또 무슨 소리야?<br/>옥화 엄마 없는 손자새끼, 기 안 죽이고 번듯하게 키우려고 어르고 달래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어른 되더니 인정머리도 없고, 고집불통에, 저밖에 모르고.<br/>대복 헛소리하지 마. 만석이만 한 놈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내가 살면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만석이 놈이 내 손자라는 거야.<br/>옥화 나도 그런 줄 알았죠.<br/>대복 맘고생을 하면서 커서 그런지 어린놈이 어둔 구석이 있긴 하지만.<br/>옥화 친구도 하나 없는 거 아니겠죠?<br/>대복 헛소리 지껄일 거면 가서 옷이나 챙겨 입고 나와.<br/>옥화 정말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br/>대복 누굴?<br/>옥화 저 애요.<br/>대복 어허, 이 사람. 물이나 줘.<br/>옥화 왜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br/>대복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무책임한 일이지.<br/>옥화 (물을 가지러 가며) 풍족하게 키우진 못해도 부족하게 안 키우면 되잖아요. 딴 집에 가서 어떻게 클지 누가 알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br/>대복 당신이 신경쓸 일 아니야 그건.<br/>옥화 그럼 난 뭘 할까요? 왜요? 당신도 암 환자가 뭔 소릴 하나 싶은 거예요?<br/>대복 이 사람, 할 게 왜 없어?<br/>옥화 뭐요?<br/>대복 (무심하게) 잘 보내줘야지.<br/>둘 다 잠시 말이 없다. 잠시 후 물을 떠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옥화. 대복, 마신다.<br/>대복 (곧바로 잔을 내려놓으며) 찬물 없어?<br/>옥화 따뜻한 거 드세요.<br/>대복 사십 년 동안 내가 따뜻하게 마시는 거 봤어?<br/>옥화 배 아프다면서요.<br/>대복 그런 적 없는데.<br/>옥화 지난밤에도 배 붙잡고 끙끙댄 거 다 알아요.<br/>대복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살던 대로 살아야지.<br/>옥화 살던 대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br/>대복 우리 꼴이 어때서? 이만하면 잘살았지. (냉장고 냉동칸에서 얼음을 꺼내 컵에 담아 휘젓는다)<br/>옥화 거기 찬장 위에 좀 봐요.<br/>대복 왜?<br/>옥화 만석이가 무슨 비타민인가 사왔다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했어요.<br/>대복 (찬장을 뒤적여 약통을 꺼내 읽는다) 아쿠알렌? 이게 뭔데?<br/>옥화 몰라요, 몸에 좋대요.<br/>대복 당신이나 먹어.<br/>옥화 드세요.<br/>대복 아, 안 먹어. 내가 평생 약이란 걸 먹고 살았던가. 당신이나 꼬박꼬박 챙겨 먹어, 까먹지 말고. (약통을 다시 찬장에 넣는다)<br/>옥화 난 다른 약 못 먹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치료하는 동안 다른 약은 먹지도 말라고.<br/>대복 (찬장 문을 닫으며) 아, 몰라. 그럼 낫고 나서 먹든가. (그냥 물만 마신다)<br/>옥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따뜻한 물도 싫다, 약도 싫다, 그놈의 고집은.<br/>대복 칠십 년을 이렇게 살았어. (소파 테이블로 잔을 가져온다)<br/>옥화 앞으로 반백년은 더 살 텐데,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겨야죠.<br/>대복 시답지 않은 소리. 오늘내일하는데 새삼스럽게 뭔 건강 타령이야. 요즘엔 아주 귀가 따가워, 하도 몸 여기저기가 곡소리를 내서. 운전도 그만해야 할까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내가 겁이 나. 차 몰고 가다 승객들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 다 내 저승길에 데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요즘엔 정말이지 제발 곱게만 죽었으면 하는 게. (시무룩해하는 옥화를 보며) 괜찮겠어? 상갓집엔 나 혼자 가도 돼.<br/>옥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연씨네가 남도 아니고.<br/>대복 인생 참 허무하지. 그 양반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br/>옥화 그러게요. 그렇게 시간 아깝다고, 바쁘게 살아야 한다더니 정말 바쁘게 가버렸네요.<br/>대복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하며 살아야 해. (사이) 몸은 어때?<br/>옥화 그냥 그래요.<br/>대복 그냥 그렇다고?<br/>옥화 그냥 그렇다고요.<br/>대복 그냥 그런 게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br/>옥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br/>대복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야?<br/>옥화 아휴, 그냥 그런 줄 알아요.<br/>대복 (멋쩍은 듯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이, 자꾸, 화가 늘어.<br/>옥화 피곤해요. 좀 누워 있다 나올게요.<br/>대복 전기장판 켜놨어.<br/>옥화 벌써 무슨 전기장판을 켜요, 돈 아깝게.<br/>대복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면서 오들오들 떠는 거 보기 싫어. 이불도 깔아놨으니까 가서 누워 있어.<br/>옥화 (문득 생각난 듯) 애들 밥을 차려줘야 하는데.<br/>대복 내가 차려줄 테니까 들어가.<br/>옥화 당신이 무슨.<br/>대복 어허, 들어가. 나도 다 할 줄 알아.<br/>옥화 (머뭇거리다) 그럼, 좀만 누울게요.<br/>대복 들어가, 들어가.<br/>옥화 방으로 들어가고 홀로 남은 대복.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간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넥타이를 꺼내 매기 시작한다. 하지만 잘되지 않는지 번번이 실패한다. 욕실 문을 나와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운수. 대복이 포기하고 소파로 걸어 나오자 헛기침을 하며 소파로 다가오는 운수. 욕실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br/>운수 아, 개운하다.<br/>대복 (시계를 보고, 운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제대로 씻기나 한 거냐?<br/>운수 진정한 신사는 항상 한결같아야 합니다.<br/>대복 네가 한결같이 얼간이긴 하지.<br/>운수 또 그러신다. 하나뿐인 아들이 얼간이면 퍽도 좋으시겠네요.<br/>대복 이럴 줄 알았다면 줄줄이 낳을 걸 그랬지.<br/>운수 그러시지 그랬어요?<br/>대복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네놈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울 것 같아서.<br/>운수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br/>대복 (놀란 얼굴로) 네놈 태어났을 때 우리 전 재산이 얼마였는 줄 아냐? 수중에 칠만 원이 있었다, 칠만 원! 자장면 한 그릇에 삼십 원이었는데, 그걸 못 사먹었다, 돈이 아까워서.<br/>운수 귀에 인이 박이겠어요 그 얘긴.<br/>대복 부탁이니 제발 그 쓸모없는 귀에 좀 박아 놔라. 어디 구멍이라도 뚫린 거냐? 왜 맨날 듣고 흘려, 흘리긴?<br/>운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사이) 어머닌요?<br/>대복 방에 누워 있다.<br/>운수 밥 먹고 바로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어머니!<br/>대복 네가 차려 먹어라.<br/>운수 왜요?<br/>대복 내 마누라가 네놈 종이냐? 앞으론 네가 차려 먹어.<br/>운수 나 참, 계속하실 거예요? 그만하시죠.<br/>대복 밥솥 안에 밥 있고, 냄비 안에 찌개 있다. 그 손 노름할 때만 쓰지 말고 이젠 네 엄마 좀 도와라.<br/>운수 아니, 밥을 나만 먹어요? 숟가락 하나만 얹자는데, 그것도 못마땅하세요 이젠?<br/>대복 (넥타이를 살피면서) 네 엄마랑 난 초상집 갈 거다.<br/>운수 무슨 초상집을 하루건너 하루씩 가요?<br/>대복 난들 아냐? 줄줄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아?<br/>운수 또, 또 흥분하신다.<br/>대복 봐라. 네 애비 꼴을 봐. 나도 곧 간다. 차에 치여 가고, 산책하다 심장마비 걸려 가고, 자다 가고, 내 친구들 다 그렇게 갔어. 나도 멀지 않았다.<br/>운수 아버진 오래 사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br/>대복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보자.<br/>운수 묻지 마세요.<br/>대복 너, 나 가고 네 엄마 가면 뭐하고 살래? 그냥 지금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동네 노름판이나 기웃거리면서 주인 없는 강아지마냥 떠돌면서 살고 싶냐?<br/>운수 퍽도 좋겠습니다.<br/>대복 정신 좀 차려라. 네 나이가 벌써 오십이야.<br/>운수 오십이 뭐 어때서요?<br/>대복 뭔가 대단한 건 못 해냈어도 대단한 척은 해야 할 나이 아니냐. 내가 딱 네 나이 때 이 집을 샀다. 빚 하나 없이. 너도 기억하지?<br/>운수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그때 결혼했잖아요.<br/>대복 (당황하며) 그랬냐?<br/>운수 말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br/>대복 (말 자르며) 묻지 마라.<br/>운수 그 여잘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br/>대복 그런 적 없다.<br/>운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본도 알 수 없는 고아여서? 술집에서 니나노 하던 여자라서? 셋 중에 골라보세요. 아니면, 주관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대답 없는 대복을 향해 채근하듯) 네, 네?<br/>대복 이상한 아이였다. 음침하고 말도 없고 늘 남의 눈치만 살피고. 병 걸린 사람처럼.<br/>운수 멀쩡할 리가 있습니까? 평생을 비바람 속에서 살아가보세요. 누구라도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절 사랑해줬습니다. 저도 사랑했고요.<br/>대복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다.<br/>운수 거짓말 마세요. 아버진 그냥 그 여자가 싫었던 겁니다. 아님, 제가 싫었던 건가요?<br/>대복 그 시절 우리 대 부모들은 다 그랬다. 어떤 부모라도 그랬을 거야. 우린 옛날 사람이다.<br/>운수 심지어 만석일 낳고 나서도 변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도! 어머니도!<br/>대복 그 애가 도망간 게 우리 탓이라는 거냐?<br/>운수 (어이없어하며)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두 분 말고 그 여잘 싫어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br/>대복 그만하자. 이십 년도 지난 얘기.<br/>운수 그러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도.<br/>대복 (분노하며)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개차반처럼, 한량처럼,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받으면서 살겠다고?<br/>운수 제 인생입니다.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br/>대복 신경써라 써. 이 지옥불에 빠질 자식아. 이 동네에서 사십 년을 살았어. 모두가 우릴 안단 말이다.<br/>운수 아버지를 아는 거죠. 어머니를 아는 거고.<br/>대복 너는 뭐 어디서 날아 들어왔냐? 네가 우리 집안 골칫덩이인 것도 다 알아.<br/>운수 그렇게 부끄러우시면 나가 드릴까요?<br/>대복 안 되지, 안 돼. 그럴 수야 없지. 나가서 또 무슨 사골 치려고. 수작 부릴 생각 마라.<br/>운수 아, 그렇죠. 이 집이 아직까지 반은 아버지 거죠?<br/>대복 (정색하며) 더는 안 된다. 한 번 더 사고 치면 그땐 정말 너랑 나랑 갈라서는 거다.<br/>운수 갈라서는 게 그리 낯선 경험이 아니라서.<br/>대복 돈은 어떡할 거냐?<br/>운수 무슨 돈이요? (황당해하는 대복을 향해) 갚을 테니 기다리세요.<br/>대복 원금은 바라지도 않으니 은행이자라도 내놔라.<br/>운수 갚습니다, 원금까지 다. 십 원짜리 하나 빼놓지 않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br/>대복 말했다. 이자.<br/>운수 알았다고요. 갚는다고요.<br/>이때 방문이 열리고 만석이 거실로 나온다. 외출복 차림이다.<br/>운수 여, 아들아. 아버지 밥 좀 차려다오.<br/>주방으로 향하는 만석. 밥을 차리려 하는 줄 알고 득의만만해하며 대복을 향해 웃음 짓는 운수. 만석이 박스를 살펴보고 소파 쪽으로 가져오자 실망한다.<br/>운수 아드님? 제 말 귓구멍에 들리셨어요?<br/>만석 차려 드세요. 바로 나가봐야 돼요.<br/>운수 뭐 어려운 일이라고. 밥 푸고 찌개 데우고 반찬 꺼내놓으면 되지.<br/>만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br/>운수 캬아, 아버지. 보셨죠. 제 아들이 저렇게 자기 소신이 있고 싸가지가 없습니다.<br/>대복 차려 먹어라 네가. 만석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br/>운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언제부터 예의범절이란 단어가 사라진 거죠?<br/>대복 넥타이를 못 매겠어.<br/>만석, 대복 목에 건 채로 넥타이를 매보다가 안 되자 벗겨내 거울 앞으로 가져가 자기 목에 걸고 매듭을 맨다.<br/>운수 하긴. 원래 대단한 집안은 아니죠 저희가. 족보도 없고.<br/>대복 상놈의 집안이라서 미안하구나.<br/>운수 상놈까지는 아니고. 농민이나 소작농,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은.<br/>대복 내 십이대손 할아버지께선 정오품 정량 별좌 교리셨다. 네놈의 십삼대손 할아버지 말이다.<br/>운수 처음 듣는 얘기네요.<br/>대복 그럴 리가. 삼십 원짜리 자장면 얘기 다음으로 많이 해줬을 텐데.<br/>만석 (넥타이를 대복의 목에 걸어주며) 잠깐 봐요. (정리를 해준다) 됐어요.<br/>운수 아들아, 너는 이 얘기 들어봤냐? 우리 조상 중에 정오품 정, 뭐,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셨다는데.<br/>만석 근데 이거 너무 낡았어요.<br/>대복 괜찮다. 아직 쓸 만해.<br/>운수 아주 개가 짖는구나, 개가 짖어. 내 말은 다 씹어 드셔들.<br/>만석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실밥도 다 터지고. 다른 거 하세요.<br/>대복 괜찮다니까.<br/>운수 손자분 말 들으세요. 온 동네가 영감님을 아신다면서요.<br/>만석 제 거 있는데 가져올게요.<br/>대복 (만류하며) 됐다. 상갓집에 요란하게 하고 가는 거 아냐. 이 정도가 딱 좋아.<br/>만석 할머니랑 같이 가세요?<br/>대복 그래. 저녁 같이 챙겨 먹어라.<br/>만석 저도 바로 나가봐야 해요.<br/>운수 차리고 가라. 네 아버진 배고프다.<br/>대복 밥은 먹어야지.<br/>운수 그래, 밥은 먹어야지.<br/>만석 약속 있어요.<br/>대복 그러냐? 제대로 된 거 먹고 다녀라.<br/>운수 난 약속 없다. 밥 차려줘라.<br/>만석 할머닌요?<br/>대복 방에. 슬슬 깨워야겠다.<br/>만석 제가 들어갈게요. 애도 데리고 나와야 하고.<br/>운수 찌개 데우고 들어가라. 밥 퍼놓고 데리고 나와. 반찬도 꺼내고.<br/>만석 그만 징징대세요.<br/>운수 뭐, 징징? 오냐오냐하니까 이 새끼가 정말.<br/>만석 이젠 제발 철 좀 드시죠.<br/>운수 아유, 그래요. 철이 일찍 들어서 몸이 무거우시겠어요 우리 아드님은.<br/>만석 가족은 안중에도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을 하든 말든 그냥 아버지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죠?<br/>운수 핏대 세우지 마라. 한 대 치겠다 그러다?<br/>만석 할머니 치료비도 그렇고. 할아버지 발톱 수술 못 하는 거 돈 없어서인 거 알고나 있어요? 대출이자가 한 달에 얼만지나 알고 있냐고?<br/>운수 다 아니까 침 튀기지 마라.<br/>만석 아시면 아는 만큼 내놓으세요.<br/>운수 퍽이나 많이 내놓나 보지? 오토바이 그거 타서 얼마나 버냐? 백? 이백?<br/>만석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릴 정도는 버니까 걱정 마세요.<br/>운수 아주 그거 돈 조금 빌려줬다고.<br/>만석 모범을 좀 보이시라고요.<br/>운수 왜? 내가 못 미덥냐? 너도 네 엄마처럼 도망갈래?<br/>대복 (엄하게) 그 입 다물어라. 네 귀방맹이 날릴 힘은 나도 아직 있으니까.<br/>운수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삼대가 진하게 한번 엉켜볼까요?<br/>만석 그만하죠.<br/>운수 왜? 막상 하려니까 쫄려? 어이, 아들, 와 봐. 와보라고.<br/>운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만석을 따라가며 뒤통수를 톡톡 친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뒤통수를 때리자 만석이 되돌아서 운수의 양손을 잡아챈다. 바닥에 떨어지는 지폐. 곧바로 만석의 멱살을 쥐는 운수. 운수의 팔목을 강하게 쥐는 만석. 대복, 테이블에 있는 컵을 그들을 향해 던진다.<br/>대복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놈들 둘 다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마.<br/>적막이 흐르고, 잠시 후 옥화가 방문을 열고 등장한다. 차분한 옷차림,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다. 바구니 안엔 아이가 잠들어 있다. 운수와 만석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는 옥화. 테이블 위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소파에 앉는다. 대복을 보고 이마를 찌푸리는 옥화.<br/>옥화 아, 또 왜 그 넥타이를 했어요. 버렸어도 벌써 버렸어야 할 걸.<br/>대복 이 사람 버리긴 왜 버려 이걸.<br/>옥화 멀쩡한 넥타이를 두고 왜 자꾸 그것만.<br/>대복 다 자기 몸에 맞는 게 있는 거야. 난 이게 편해.<br/>옥화 그놈의 고집은.<br/>이때, 전화벨이 울리고 만석 통화한다. 통화가 끝난 후 옥화에게 다가오는 만석. 옥화의 눈치를 보다가 바구니에 손을 뻗는 만석.<br/>옥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라.<br/>만석 가야 해요, 할머니.<br/>옥화 알았어.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야. 여기, 이것만 좀 하고. (바구니를 정리한다)<br/>대복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거기, 거기. 바람 안 들어가게 잘 좀 욱여넣어 봐.<br/>옥화 알겠어요, 있어 봐요.<br/>대복 한 번 더 포대기에 싸야 하지 않겠어?<br/>옥화 그럴까요? 바람이 차니까 아무래도.<br/>만석 그 사람이 집 앞까지 차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br/>대복 그렇다는데?<br/>옥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계속한다)<br/>운수 (상자를 발로 툭 차며) 야, 이것도 같이 가져가. 여기다 담아왔으니 여기에 담아가야지.<br/>옥화 저 상잔 두고 가라. 저기에 또 이 애를 가둘 수는 없어. 그럴 순 없어.<br/>만석 알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br/>대복 어이쿠. 깼는데? 여보, 깼어.<br/>옥화 (바구니 안을 보며) 간다고 또 인사한다고 깬 거야, 기특하게? 그런 거야?<br/>대복 우루루루루, 까꿍. 웃는다 웃어. 고놈 참.<br/>옥화 한 번 더 해봐요.<br/>대복 그럴까? 우루루루루, 까꿍!<br/>옥화 (만석을 향해) 아가, 방에 파란색 가방 하나 있어. 그거 좀 갖고 나와.<br/>대복 뭔데?<br/>옥화 애한테 필요한 것 좀 쌌어요.<br/>대복 딸랑이도 넣지 그랬어. 그거 좋아하던데.<br/>옥화 넣었어요.<br/>대복 잘했네.<br/>운수 (빈정거리듯) 참, 재미나게 사십니다, 두 분. 알콩달콩, 보기 좋네요.<br/>대복 아직도 안 나갔냐?<br/>운수 나가야지요. 이 집에 제가 있을 곳이 없는데.<br/>대복 밖엔 있고?<br/>운수 글쎄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찾아볼까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다.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만석과 눈이 마주치지만 서로 외면한다) 돈도 생겼겠다.<br/>옥화 밥 한 숟갈 뜨고 가. 너 좋아하는 꽃게찌개 끓여놨어.<br/>잠시 침묵.<br/>운수 됐어요. 약속 있어요.<br/>옥화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낼 아침에 들어와서 먹어.<br/>운수 그냥 드세요. 얼마 된다고 그걸 남겨요. 갔다 올게요. (나간다)<br/>옥화 (밖에서 들리게 큰소리로)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 알았지? 알았지?<br/>대복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만석에게) 왜 그러고 섰어? 앉아.<br/>만석 집 앞에 와 있대요.<br/>대복 벌써?<br/>만석 네.<br/>옥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잘살아라. 사는 게 제 맘처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모 원망 말고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세월 가고 세월 가면 언제 이만큼 왔나 싶을 테니 하루하루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 네 세상도 한세상, 내 세상도 한세상, 결국 한세상 사는 거니, 그러니까 너는 멀리멀리, (떨리는 목소리) 발길 닿는 데까지 멀리 가렴.<br/>대복 (꽃병에서 꽃을 꺼내 바구니 옆에 감는다) 꽃바구니 타고.<br/>옥화 그래, 꽃바구니 타고. 어디, 하루하루가 오늘만 같겠니?<br/>대복 그래. 오늘만 같을라고.<br/>전화벨이 울리지만 받지 않는 만석. 그런 만석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옥화. 천천히 바구니를 내어준다.<br/>만석 갔다 올게요. 늦을지도 몰라요. 먼저 주무세요.<br/>대복 그래. 얘기 잘하고 와.<br/>만석 네. 저 가요, 할머니.<br/>반응 없는 옥화. 대복 손짓으로 만석을 보낸다. 만석 밖으로 나간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다가가 밖으로 나가는 만석을 지켜보는 대복.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온다. 그사이 옥화 역시 일어서 서성이다가 가운데 소파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대복 그 옆에 앉아 정면을 응시한다.<br/>대복 갔네.<br/>옥화 갔네요.<br/>대복 그래. (사이) 어떡할까? 우리도 가야지?<br/>옥화 가야죠.<br/>대복 안 가면 안 되겠지?<br/>옥화 안 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씨잖아요.<br/>대복 그래. 가야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씨니까.<br/>옥화 네.<br/>대복 그럼 갈까?<br/>옥화 그래요, 가요.<br/>대복 그래. 가자구.<br/>옥화 가요.<br/>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두 사람.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br/>암전.

언론사: 서울신문-4-714.txt

제목: 암투병 제자 위해…매일 병원 찾아 수업하는 교사  
날짜: 20170101  
기자: 박종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611.20170101030153001  
ID: 01100611.2017010103015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미국 소셜사이트 레딧과 각종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br/>최근 SNS를 통해 100만 회 이상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은 병실에 누워있는 한 소년과 밖에 앉아 있는 한 성인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br/>사진에서 두 사람은 병실과 연결된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무슨 상황인지 자못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연은 이렇다.<br/>사진 속 어린 소년은 암 투병 중이며 병실 밖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통화하는 남자는 그의 선생님이다. 보도에 따르면 선생님은 암 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 제자를 위해 매일 이렇게 병실로 찾아와 전화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에서 촬영됐다는 것 외에 두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br/>데일리메일 등 해외언론들은 "아픈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헌신이 눈물겹다"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이 사람같다면 세상에 삐뚤어지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br/>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